

건설기업의 성공적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안

2020. 11

이 홍 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 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이행 필요성	5
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범위	5
(1)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5
(2)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	8
(3) 지속가능경영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0
(4) 지속가능경영과 유사 개념 비교	13
2.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14
(1) 일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14
(2)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20
제3장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25
1. 개요	25
2.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25
(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26
(2)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28
(3) ISO 26000	30
3. 주요 분야별 글로벌 규범의 세부 내용	32
(1) 지속가능경영의 운영 절차	32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36
(3)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성과의 검증	41
제4장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45
1.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45

(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45
(2)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49
(3) 해외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53
(4)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56
2.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62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62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66
(3)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	68
3. 소결 :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73

제5장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분석 79

1. Skanska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분석	79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79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81
2.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분석	89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89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92
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100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00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03
4.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114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14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17
5. 국내외 건설기업 사례분석의 시사점	125
(1)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125
(2)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과 전담 조직체계 운영	125
(3)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적용	126
(4)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추진 체계 마련 및 주요 활동 추진	127
(5) 자사 및 협력회사 포함 확장된 가치사슬상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127
(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제3자 기관 검증	128

제6장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129
1. 개요	129
2.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 및 전략 체계 구축	129
3.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131
(1) 지속가능경영위원회	131
(2) 지속가능경영사무국	132
(3) 사업부 단위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무조직	132
(4) 성공요인	132
4.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 선정	133
(1)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선정	133
(2) 지속가능경영 주제 선정	136
5. 지속가능경영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140
(1) 환경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40
(2) 보건 및 안전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44
(3) 상생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47
(4) 윤리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49
(5) 사회공헌활동 분야 가이드라인	152
6.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측정 및 개선 체계 마련	154
(1)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KPIs) 도출	154
(2) 핵심성과지표(KPIs)의 실적치 분석 및 목표 설정	155
(3) 공유가치창출(CSV) 모델 활용	156
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	157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57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158
 제7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3
 Abstract	 167

〈표 차례〉

<표 II-1>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6
<표 II-2> 국내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과정	7
<표 II-3> 지속가능경영의 다양한 정의	9
<표 III-1>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25
<표 III-2>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가이드라인	26
<표 III-3>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27
<표 III-4> GRI 표준(Standards)의 구조 및 주요 내용	30
<표 III-5>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 및 37개 쟁점 사항	32
<표 III-6> GRI 101 기초(Foundation) 공시 표준의 주요 내용	36
<표 III-7> GRI 102 일반적 공시 내용(General Disclosures) 표준의 주요 내용	37
<표 III-8> GRI 103 경영접근 방식(Management Approach) 공시 표준의 주요 내용	38
<표 III-9> GRI 200~400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의 주요 내용	39
<표 III-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기본적 원칙	40
<표 III-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검증 표준	42
<표 III-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검증 요소	43
<표 IV-1> KPMG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 대상	48
<표 IV-2> 초기 단계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 현황	50
<표 IV-3> 주요 국가별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비교	53
<표 IV-4> 선진국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56
<표 IV-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내 건설기업 현황	61
<표 IV-6> 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적용 글로벌 표준	64
<표 IV-7>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실태	65
<표 IV-8>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기관 검증 현황	67
<표 IV-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편입 국내 기업 수 추이	68
<표 IV-10> 코스피 상장사 대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71
<표 IV-11>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대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	72
<표 V-1> Skanska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및 주제(Topics)	81
<표 V-2> Skanska의 안전보건매뉴얼 내용	84
<표 V-3> Skanska의 안전보건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	84

<표 V-4>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7대 추진 전략별 실행 방안	90
<표 V-5>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및 중대성 평가 결과 ..	92
<표 V-6> 현대건설의 환경경영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93
<표 V-7> 현대건설의 윤리·준법경영 추진 체계	98
<표 V-8> 온실가스 감축 실적	105
<표 V-9> GS건설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110
<표 V-10> GS건설의 사회공헌활동 분야 및 주요 활동	114
<표 V-11>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방향	115
<표 VI-1>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체계	130
<표 VI-2>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의 역할 및 구성	131
<표 VI-3> 건설기업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134
<표 VI-4>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핵심 분야	135
<표 VI-5>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주제 식별 방법	138
<표 VI-6> 건설기업의 일반적 환경경영 주제(topics)와 목표 설정 예시	141
<표 VI-7> Skanska의 보건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	145
<표 VI-8> GS건설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149
<표 VI-9> 윤리경영 전담부서 및 전담자 정의와 배치 요건	151
<표 VI-10>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핵심성과지표(KPIs)	155
<표 VI-11> 현대건설의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모델	156

<그림 차례>

<그림 II-1> 지속가능경영 TBL(Triple Bottom Line) 모델	10
<그림 II-2>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지속가능경영 구성 요소	11
<그림 II-3>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의 지속가능경영 구성	12
<그림 II-4>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	14
<그림 III-1> GRI G4와 GRI 표준(Standards)의 구조 변화	29
<그림 III-2> UN Global Compact의 지속가능경영 6단계 모델	33
<그림 III-3>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세스	34
<그림 III-4> ISO 26000 범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5
<그림 IV-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 추이	46
<그림 IV-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등록 기업 수 추이	47
<그림 IV-3> 전 세계 상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추이	49
<그림 IV-4>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51
<그림 IV-5>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추이	52
<그림 IV-6>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 중 업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54
<그림 IV-7>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57
<그림 IV-8> 전체 국내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비교	58
<그림 IV-9>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 간 실태	59
<그림 IV-10> 우리나라 상위 100대 전체 기업 및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	60
<그림 IV-1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실태	63
<그림 IV-12>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기관 검증 추이	66
<그림 IV-13> DJSI World 지수 편입 국내 기업 및 건설기업 수	69
<그림 IV-14> 2019 DJSI World 지수 편입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산업별 점수 비교 ..	70
<그림 V-1> Skanska의 존재 목적 및 핵심 가치	80
<그림 V-2> Skanska의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	82
<그림 V-3>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 비전	86
<그림 V-4>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을 위한 4가지 전략	86
<그림 V-5> Skanska의 지역사회공헌(Community Investment) 3가지 핵심영역	88

<그림 V-6>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90
<그림 V-7>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절차	91
<그림 V-8> 현대건설의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조직체계	93
<그림 V-9> 현대건설의 안전경영 추진 전략	96
<그림 V-10> 현대건설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 및 조직체계	99
<그림 V-11>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101
<그림 V-12>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102
<그림 V-1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102
<그림 V-14> GS건설의 환경경영 전략 체계	103
<그림 V-15> GS건설의 상생경영 추진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108
<그림 V-16> GS건설의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 방향	111
<그림 V-17> GS건설의 사회공헌 추진 조직(봉사단)체계	113
<그림 V-18>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116
<그림 V-19>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절차	117
<그림 V-20> 롯데건설의 윤리경영 조직 및 주요 수행업무	122
<그림 VI-1>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6단계 모델	129
<그림 VI-2>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의 결정 단계와 적용 원칙	137
<그림 VI-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주제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139
<그림 VI-4> 글로벌 25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제시 기업 비중	141
<그림 VI-5> 현대건설의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조직체계	142
<그림 VI-6> 현대건설의 친환경 건설 프로세스	143
<그림 VI-7> GS건설의 상생경영 추진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148

요 약

제1장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필요성과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우수 건설기업들의 사례들을 기초로 도출함.

제2장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이행 필요성

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범위

- 지속가능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킨 것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경영방식임.
-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강조해왔던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슈가 모두 지속가능경영으로 통합되고 체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주요 기업들은 재무적 연차보고서와 함께 환경경영보고서, 사회공헌백서 등을 통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2.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1) 일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

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임.

-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SO 26000, UNGC 10대 원칙, GRI 표준(Standards) 등이 있음.
-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FTSE4Good, IVA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과 ESG 투자와 같은 사회적 책임투자(SRI) 경향도 지속가능경영 이행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결국, 지속가능경영 이행은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기업과의 거래, 해외 투자자 유치, 기업 이미지 제고, 직원 사기 등에 영향을 미침.
-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은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해 고객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결국 해당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 첫째,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자연을 일정 부분 훼손하고,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환경경영의 추진 필요성이 큰 산업임.
- 둘째, 건설산업은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전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생산주체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이 매우 중요한 산업임.
- 셋째, 건설산업은 옥외생산 특징과 더불어 생산제품의 구조나 과정상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 및 안전경영 이슈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
- 넷째, 건설산업은 부패 발생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이고, 지역사회 민원도 자주 발생해 윤리경영과 지역 사회공헌이 중요한 산업임.

- 다섯째, 국내 공공조달 시장과 해외 조달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 관련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것 역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유임.

제3장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1.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 중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이 있음.
- 1999년 설립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했으며, 10대 원칙은 전 세계 경제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 원칙과 목표를 제시함.
- GRI 가이드라인은 1997년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임.
 -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원칙 및 표준 제시, 구체적 작성 방법 등을 기술한 가이드라인임.
 - GRI 가이드라인의 가장 최근 버전은 GRI 표준(Standards)으로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과 주제별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으로 구성됨.
-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주요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기존의 기준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을 개발하

고, 77개 개발국의 합의해 의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

-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개발 등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37개 쟁점 사항별 요구 활동과 수준을 제시함.

2. 지속가능경영 실행 절차 가이드라인

- UNGC에서 2010년 딜로이트(Deloitte)와 공동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6단계 운영모델을 제시함.
 -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표준 단계로 방침 수립, 평가, 목표/전략 설정, 이행, 성과 측정, 의사소통 등의 총 6단계로 구성됨.
-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7대 핵심 주제들을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모델을 제시함.
 -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를 시작으로 마지막 개선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의 실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했음.
-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기업들이 ISO 26000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하였음.
 - ISO 26000 이행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 진단 부분과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성과 진단 부분으로 구성됨.
 - 프로세스 진단 체크리스트는 ISO 26000에서 제시된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세스에 맞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제시했음.

3.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성과의 검증 표준

-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객관적 검증 표준 및 방법론

이 등장했고, 이를 기초로 전문적인 제3자 검증 기관들도 등장함.

- 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 검증 표준으로는 세계회계사연맹(IFAC)의 ISAE 3000과 기업 보고서 검증 글로벌 비영리조직인 Account Ability사에서 제공하는 AA1000 AS 등이 있음.
 - 국내 검증 표준으로는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SRV 1000 기준 등이 있음.
-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검증 표준들은 검증의 주요 원칙과 세부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음.
- 공통적 검증 원칙 및 요소는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등임. 이외에도 각 검증 표준에 따라 정보의 균형성 및 비교 가능성,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검토함.

제4장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은 선도적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편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 이후 보고서 발간 기업이 증가했음.
-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1990년 중반 이후 본격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고서 발간 수가 급증함.
 - 건설기업 중에서는 Skanska사가 1996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0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Technip, Strabag 등이 2000년대 중반 보고서를 발간함.
 - 국내는 2008~2010년 사이 대형 건설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8개사, 2014년에는 10개사의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속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음.
 - KPMG의 2017년 조사에서 49개국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72%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고, 우리나라도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73%가 보고서를 발간함.
 - 매출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국내 건설기업은 최근 10년 동안 8~9개사 정도인데, 이 가운데 80% 내외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함.
 - 단, KPMG 조사에서 영국 등 9개국의 경우 100대 기업 중 보고서 발간 비율이 90~99%를 기록해 향후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중견 건설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미흡하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이 다수 있어 긍정적임.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위 이하 건설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대그룹 계열사 3~4개사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 또한, 30위 이내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내용을 밝히고 있음.
 - 반면, 50위 이하 건설기업의 경우는 일부 기업이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의 범주에 포함될 일부 경영방침을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할 뿐, 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은 제한적임.

2. 국내외 기업들과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을 분석함.

- 첫째,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모두 글로벌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
 -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 10개사 모두 GRI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함.
 - 이는 KPMG 2017년 조사에서 글로벌 250대 기업의 89%, 그리고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의 75%가 보고서 작성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임.
 - 단, 해외 선도적 기업과 달리 GRI 가이드라인 외에 UN Global Impact의 10대 원칙, UN SDGs의 기업 목표와의 연계 등은 다소 미흡한 편임.

- 둘째,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기관 검증도 해외 기업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건설기업 10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9개사가 제3자 기관에 의한 보고서 검증을 받고 있음.
 - 이는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의 67%만이 제3자 기관 검증을 받고 있고,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 45%만이 제3자 기관 검증을 받는 것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치임.

- 셋째, 글로벌 건설기업과 국내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크지 않음.
 -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평가에 의하면,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건설기업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국내 건설기업 간의 점수 차이는 약 3점임.
 - 이는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국내 기업의 점수 차이가 약 7점인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임.
 -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결과, ESG 수준이 양호한 B+ 등급 이상의 기업 비중이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제5장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분석

1.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범위로 포함함.
- 다음으로, 사례분석 대상 건설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분야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공정거래, 윤리·준법, 사회공헌, 인권경영 등이었음.
 - Skanska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고 자국 내 외국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핵심 분야 중 다양성과 포용 분야를 포함함.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의 경영방식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과 전담 조직체계 운영

- 사례분석 결과, 모든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도 도출해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
 - 정성적 목표뿐 아니라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 등과 연계해 정량적 목표를 단기, 중장기별로 제시한 기업도 다수 있었음.
 -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성과관리를 위해 목표와 연계된 정량적 핵심 성과지표(KPIs)를 도출하고, 이를 기간별로 평가하는 기업도 존재했음.
-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도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이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
 -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사회, 임원회의 등 최고 의결단계에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논의함.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환경, 안전보건 등 핵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함.
- 또한, 지속가능경영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보좌할 지속가능경영사무국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배치함.
- 이 외에 사업본부, 현장 단위별로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슈를 논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조직을 갖추기도 함.

3.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적용

- 사례분석 대상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규정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함.
- 대표적으로 UNGC의 10대 원칙,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ISO 26000,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등을 적용함.
-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가장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GRI 가이드라인과 ISO 26000을 대부분 기업이 적용해 세부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음.
-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 세부 핵심 분야별로도 ISO 14001, ISO 45001, OHSAS 18001, KOSHA 18001 등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적극 적용하는 기업들도 존재함.

4.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추진 체계 마련 및 주요 활동 추진

- 지속가능경영의 전반적 방침과 목표, 전략뿐 아니라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 핵심 분야별로도 목표와 전략 실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기업들도 존재함.
- Skanska는 환경, 안전보건, 윤리 등 핵심 분야별 목표와 전략 체계를 갖추고 실행함.
-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환경, 안전보건, 상생, 윤리, 사회공헌 등

과 같은 핵심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 체계를 별도로 갖추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 분야별 추진 조직은 본사 단위의 환경경영팀, 안전보건경영팀 등과 같은 기존의 부서를 활용하거나 부서를 신설해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 본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담부서와 협조하에 핵심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고, 본사의 전담부서는 지속가능경영 모든 핵심 분야의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5. 자사 및 협력회사 포함 확장된 가치사슬상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 다수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협력회사의 가치사슬까지 확장해 추진하는 특징을 보임.
- Skanska는 탄소 제로 목표와 같은 목표를 협력회사 가치사슬까지 포함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별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협력회사를 평가해 협력회사 등록시 활용함.
- 사례분석 기업들은 대부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교육과 동참을 요구함.
- Skanska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협력회사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하도급업체 윤리규범에 반영해야만 거래관계를 맺음.

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제3자 기관 검증

- 사례분석 대상 건설기업은 모두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목표와 활동, 성과

를 담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함.

- 보고서를 글로벌 표준에 기초해 작성할 경우 이는 단순한 발간의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전략과 조직체계, 프로세스, 활동, 성과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사례분석 대상 국내 건설기업들은 모두 GRI의 최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의거해 보고서를 작성했음.
- 또한, 제3자 기관에 의해 보고서의 내용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 검증을 획득하였음.
- 국내 건설기업들의 보고서를 검증한 제3자 기관은 다양했는데, 이들 기관이 적용한 검증 표준은 AA1000, ISAE 3000 등 대부분 객관적으로 공인된 글로벌 검증 표준을 적용하였음.

제6장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 UNGC 6단계 모델, ISO 26000 사회적 책임 실천 절차, GRI 표준(Standards),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을 6단계 모델로 제시함.

1.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 및 전략 체계 구축

- 우선 기업의 특성과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 체계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략별 세부 실행 방안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핵심 분야별 목표와 전략, 세부 실행 방안을 연계하는 체계를 선택함.

-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는 목표 달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 평가하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함.
-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와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전 및 목표를 수정하는 피드백 체계가 필요함.

2.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에는 일반적으로 본사 단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사무국, 그리고 각 사업부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무조직 등이 필요함.
-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전략 체계의 승인, 성과 점검 등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함.
-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방침 및 의사결정, 성과 점검 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원, 지속가능경영 총괄 기획 및 조정, 활동 및 성과 점검, 보고서 발간 총괄, 외부 평가기관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상설 부서 혹은 TF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전담자 배치로도 운영이 가능함.
- 지속가능경영 실무 추진 조직은 우선 본사 단위에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담당 부서 혹은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함.
- 사업부(본부) 단위에도 분야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부서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설현장 단위에 분야별 업무 수행 담당자도 지정해야 함.

3.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 선정

-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주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의 구축과 실행 방안의 이행이 필요함.
- 선행연구와 사례를 참조하면, 건설기업의 핵심적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환경경영과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이며, 다음으로 윤리준법경영, 보건안전경영, 인권 및 노동 관행, 지역 사회공헌 등임.
- 핵심 분야별 주제(topics)는 GRI 가이드라인의 4단계 절차(후보 주제 파악, 우선순위 결정, 유효성 검증, 검토)를 따라 선정함.
 - 아울러 GRI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AA1000 등)이 요구하는 포괄성, 지속가능성, 중대성, 완전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4. 지속가능경영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 환경경영, 보건안전경영, 윤리준법경영, 상생경영, 사회공헌 등 건설기업의 핵심적 지속가능경영 분야별로 목표 및 전략,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환경경영의 경우 에너지, 온실가스, 자재, 용수 등과 관련한 배출량, 사용량, 비용 등의 최소화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 이행해야 함.
 - 각 분야별 추진 전략과 더불어 추진 조직체계의 구축도 필요하고,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대상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전체 가치사슬상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

-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의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기초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서 구성은 프로필, 기업 및 주요 사업 소개,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체계, 핵심 분야 및 분야별 이슈 선정, 핵심 분야별 전략 체계 및 세부 경영방식과 활동, 지속가능경영 성과, 제3자 기관의 보고서 검증 결과 등의 순서로 구성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가급적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보고서 검증 결과인 검증서, 검증에 적용된 검증 원칙과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해 수록함.
 - 다양한 검증기관이 존재하나, 검증 원칙은 지속가능경영 검증의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는 ISAE 3000, AA1000 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경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요성이 부각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기업 경영에 접목한 개념으로 기업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속가능경영 개념은 1990대 들어 지속가능기업협의회(BCS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설립 등과 함께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발표, 1999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대 원칙 제시,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 발표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은 빠르게 확산하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CSR 보고서 등과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보고서를 전 세계적으로 등록, 수집하고 있는 코포레이트 레지스터(Corporate Register)에 의하면, 1992년 26개였던 보고서 등록 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0년에는 6,000개에 육박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기존의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보건 및 안전경영, 상생경영 등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통합해 체계화하는 추세가 강화되었다. 기업의 연차 사업보고서를 기존에 별도 발간하던 환경보고서, 사회공헌백서 등과 통합해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통합 보고하는 추세도 확산되었다. KPMG 조사에 의하면, 1999년 글로벌 25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35%에 그쳤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1년에 95%를 기록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9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 상위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위 100대 기업 중 70%를 조금 넘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보다 지속가능경영 도입이 좀 더 늦은 편

이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기업이 본격 등장한 반면, 건설기업은 2008년 삼성물산이 처음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9년에도 대형 건설기업 1곳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쳤는데, 2010년 이후 보고서 발간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곳 정도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웨덴의 Skanska사가 1996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02년 본격적으로 통합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Technip, Strabag 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기업을 넘어 중견 건설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확산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기업들이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비해 10위를 넘어가면 보고서 발간 실태가 급감하고, 30위 이하 건설기업의 경우 보고서 발간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기업이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을 단편적으로 추진할 뿐 통합적 지속가능경영 추진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성공적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 강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와 더불어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자연을 일정 부분 훼손하고,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전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생산주체 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옥외생산 특징과 생산제품의 구조나 과정상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 및 안전경영 이슈도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건설은 부패 발생에 가장 취약한 산업 중 하나이고, 지역사회 민원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지역사회공헌을 통한 이해관계자 관리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뿐 아니라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지속가능경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강화된다는 것 역시 건설기업 입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의 변화와 건설산업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를 정량적 자료와 주요 건설기업 사례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바람직한 지속가능경영 발전 방향과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필요성을 고찰하고, 실태분석 및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분석해 이를 기초로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과 발전 과정,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과 가이드라인의 개괄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RI 가이드라인과 같은 핵심적 글로벌 규범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들의 최근까지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건설기업 중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 건설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하였고 현재도 가장 모범적 건설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Skanska사의 사례를 분석한다. 국내 사례로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3개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사례분석 등을 기초로 국내 건설기업들이 향후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의 전체적 추진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인 환경경영, 보건 및 안전경영, 상생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의 핵심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이행 필요성 (제2장)
▪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발전 과정 ▪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개관 ▪ 기업의 일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필요성 ▪ 건설기업의 특징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필요성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제3장)
▪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조사 ▪ 핵심적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ISO의 ISO 26000 ▪ 지속가능경영 검증 표준 및 검증 요소 검토 : AA1000, ISAE 3000 등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제4장)
▪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들의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의 비교, 분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추진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실태 분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여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 적용 실태, 제3자 기관 검증 실태 등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분석 (제5장)
▪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기업들의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분석 ▪ Skanska,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사례분석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제6장)
▪ 글로벌 규범/가이드라인 조사, 실태조사, 사례분석 기초로 성공적 지속가능경영 추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6단계 가이드라인 제시 ▪ 지속가능경영 전체 추진 체계뿐 아니라 환경경영, 보건 및 안전경영, 상생경영 등 핵심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및 범위

(1)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1)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지속가능경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중요성이 부각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¹⁾ 개념을 기업 경영에 접목한 개념이다. 먼저 1991년에 설립된 지속가능기업협의회(BCSD :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기업 경영에 본격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1992년 리우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확산되자 1993년에는 세계환경보호산업협의회(WICE : World Industry Council for the Environment)가 설립되어 산업계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접목하고자 했다. 1995년에는 두 기관이 통합하여 전 세계 16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로 선언하고,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생태적 균형의 세 가지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를 선정했다.

1997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설립되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시작해 2000년 6월 첫 번째 버전(version)인 G1을 발표했다. GRI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기준 중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으며 이후 많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버전인 G4 이후 현재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GRI Standards로 명명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공식적인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1) 1972년 UN 인류환경회의에서 '지구의 날(The Earth Day)' 선포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브룬트란드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를 발표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존중하면서 지금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표 II-1>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구분	내용
1991년 지속가능기업협의회 (BCSD) 설립	1991년 지속가능기업협의회(BCSD :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설립,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접목 시작
1995년 WBCSD 설립	1995년에 지속가능기업협의회와 세계환경보호산업협의회가 통합해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설립,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 본격화 - 기업이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생태적 균형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
1997년 GRI 설립	1997년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설립 -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기관 및 사용자 네트워크 구성
199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발표	1999년 세계적 금융정보 서비스업체인 다우존스와 스위스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이 세계 최초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발표 -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상위 10%로 구성한 지수
2000년 GR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준 공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중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 발표 시작 2000년 6월 G1 발표, 2002년 8월 G2, 2006년 11월 G3 발표
2006년 WBCSD Eco-Efficiency Learning Module 발표	2006년 WBCSD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Eco-Efficiency Learning Module 발표 - 동 모델을 통해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의 세 가지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세부 과제 제시

한편, 1990년대 말 이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1999년 다우존스와 스위스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이 공동 작업해 세계 최초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가 발표했다.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는데, 전 세계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글로벌 지수의 수익률이 모건스탠리 지수보다 더 높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는 글로벌 지수 외에도 권역별, 나라별 지속가능성지수도 발표하여 각 국가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2) 국내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및 발전 과정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 의지를 천명한 이후 우리나라도 2002년에 바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의 산업계 협의 상대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KBCSD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을 선언하였고, 참여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시작되었다. 2003년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및 보고서 발간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속가능경영원(BISD)을 설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표 II-2> 국내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개념의 등장 과정

구분	내용
2002년 한국 KBCSD 설립	2002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산업계 협의 상대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설립 - 이후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본격화
2006년 산업발전법 개정	2006년 12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장려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산업발전법상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포상, 인센티브 근거 마련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성 평가 등)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민간 기업의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

정부 차원에서도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2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7년 8월에는 별도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 정상회담 등 글로벌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경영 방침과 이행계획의 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이후 동 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등 기업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정의

1995년에 설립되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기업 경영에 본격 접목하기 시작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지속가능경영을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과제와 관련해서 기업의 주주 외에 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속가능경영으로 정의하였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2010년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기대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이 자연환경, 인권, 건강 및 복지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 자발적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한국 협의체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동 정의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속가능경영의 보편적인 세 가지 범위에 대해 최초로 제시한 John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 모델에 입각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 이행 외에 기업의 입장을 강조한 정의를 내렸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몇몇 연구를 수행한 산업정책연구원(2009)은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동 정의 역시 TBL 모델을 참조하되,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강조했고,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의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가치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표 II-3> 지속가능경영의 다양한 정의

구분	내용
WBCSD(2001)	기업이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주주 외에 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ISO(2010)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 자발적 책임을 지는 것
KBCSD(2004)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경영 활동
산업정책연구원(2009)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경영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며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
정부산업발전법(2007)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
환경부(2005)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 활동
지식경제부(2009)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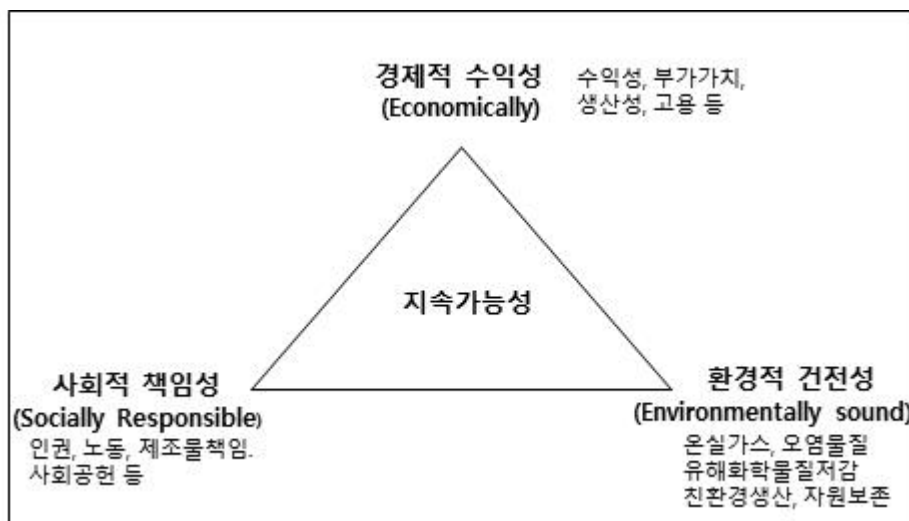
정부와 관련 법에서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2006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시작한 「산업발전법」의 경우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2005년 환경부는 지속가능경영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009년 지식경제부는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정의 역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TBL(Triple Bottom Line) 모델에 기초해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의 정의를 제외하면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의 정의와 달리 지속가능

경영 추진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3) 지속가능경영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지속가능경영의 구체적인 포괄 범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995년 설립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슈를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생태적 균형의 세 가지로 보았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을 학계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한 John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그림 II-1> 지속가능경영 TBL(Triple Bottom Line)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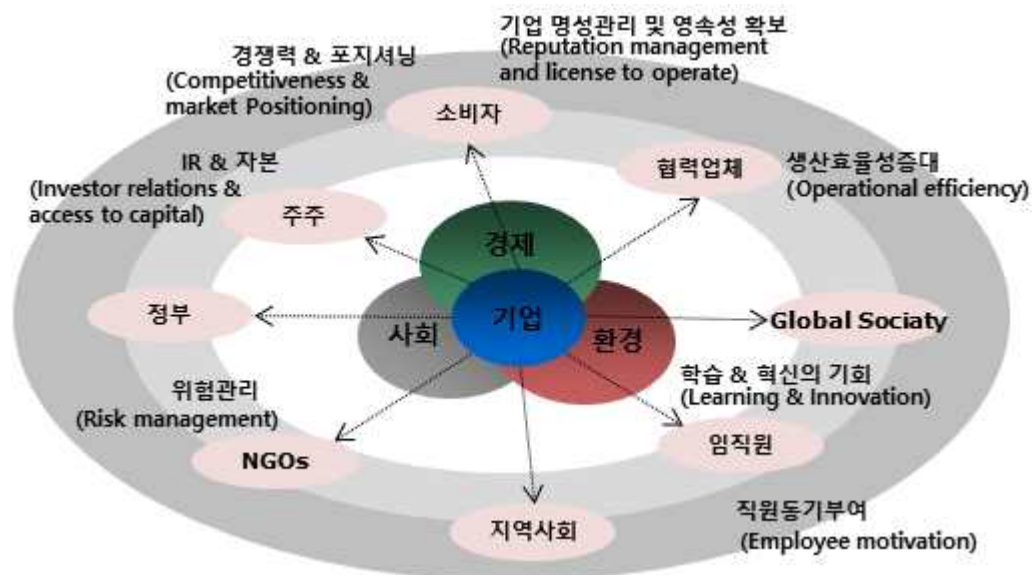
자료 : John Elkington(1997).

TBL 모델은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범위를 경제적 수익성(Economically),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ally Sound), 사회적 책임성(Socially Responsible)의 세 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 경제적 수익성은 기업이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 부가가치, 생산성, 고용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성은 기업이 인권, 노동, 제조물 책임,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 기업의 가

치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적 건전성은 기업이 온실가스,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 저감, 자원보존 등 친환경경영을 통해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과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2006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Eco-Efficiency Learning Module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동 모델에서는 TBL 모델과 유사하게 경제적 성장, 사회적 발전, 생태적 균형이라는 지속가능경영의 세 가지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세 가지 범위와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상세히 나열하고 이해관계자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Eco-Efficiency Learning Module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 이해관계자 관점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지속가능경영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1-2>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지속가능경영 구성 요소



자료 : WBCSD, Eco-Efficiency Learning Module, 2006.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2008) 재인용.

국내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를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

다. KBCSD는 세 가지 지속가능성 범위별로 청정생산, 기후변화 대응, 준법경영, 기업 투명성, 공정경쟁 등과 같은 세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총 14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그림 II-3>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의 지속가능경영 구성



자료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의 범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주요 기관들의 견해는 최초로 지속가능경영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정리한 John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지속가능경영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구성 내용이 변화하고 좀 더 세분화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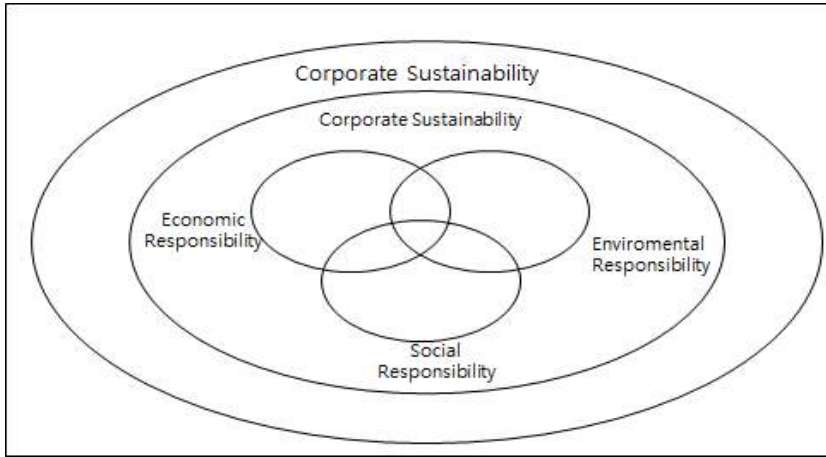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범위에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보건 및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다소 파편적으로 강조해왔던 윤리경영, 환경경영, 인권경영, 소비자권리,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영역의 이슈 관리가 모두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으로 통합되고 체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주요 기업들은 재무적 보고서와 함께 비재무적 보고서인 윤리경영보고서, 환경경영보고서, 사회적 책임(CSR)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을 통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4) 지속가능경영과 유사 개념 비교

한편,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경영 등의 개념이 있다. 지속가능경영과 유사 개념들을 비교해 보면, 주요 이슈들을 포괄하는 범위 관점에서 볼 때 윤리경영, 환경경영이 가장 협의적 개념이고, 사회적 책임경영은 기업의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와 책임들을 모두 포괄하고, 동시에 이 이슈들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균형을 추구하는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 사회적 책임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Linnanen and Panapenaan(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SR)을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기업의 책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이 세 가지 기업의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내에서는 오재인(2010)의 연구가 유사 개념 중에서 윤리경영을 가장 하위 분류의 협의 개념으로 보고,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윤리경영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보았다.

<그림 II-4>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



자료 : Linnanen & Panapannan(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은 유사한 개념인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CSR)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사 개념 중에서는 사회적 책임 개념이 포괄 범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넓고, 지속가능경영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은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며, 사회적 책임 개념에 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 즉 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 환경 보존의 상충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를 통해 기업의 궁극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2.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1) 일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1)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글로벌 규범화 동향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와 더

불어 지속가능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경영의 규범화 경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표준의 준수 여부는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기업과의 거래, 그리고 기업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리우 선언, ILO 선언 등과 같이 환경, 인권, 노동 등 개별 이슈에 대한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다가 지속가능경영 개념이 본격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환경, 사회, 경제 분야를 통합한 글로벌 규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 표준인 ISO 26000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1990년대 후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규범적 성격이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1997년에 미국의 환경시민단체 CERES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였다. GRI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보고서 작성 기관, 그리고 보고서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GRI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가이드라인 중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GRI는 2000년 6월 첫 번째 버전(version)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G1을 발표하였고, 이후 새로운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정해 2002년 8월에 개정판인 G2, 2006년 11월에 제3판인 G3를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네 번째 가이드라인인 G4 발표에 이어 2016년 10월에는 G4를 수정한 GRI 표준(Standards)을 발표하였다. GRI는 2018년 7월 1일부터는 GRI 표준(Standards)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준(Standards)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4가지 개정된 버전들의 가이드라인들이 권고적 형태의 기준이라면, GRI 표준(Standards)부터는 좀 더 규범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어, 회계연도 2018년부터는 종업원 500명 이상 유럽 기업들은 반드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비재무정보를 공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GRI는 기존의 가이드라인

을 표준(Standards)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수준을 평가하는 검증 기관들도 다수 등장하였으며, 결국 GRI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느냐의 여부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UN 총장이었던 코피아난(Kofi Annan)의 제안으로 기업 활동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별로 기업이 준수해야 10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동 원칙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지만, UN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²⁾와도 연계되어 있고, 기존의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등을 종합해 UN 산하기관에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종합적 기준인 동시에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2010년 11월 1일에는 국제표준기구(ISO)에서 기존의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지침들을 모두 종합하여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 국제표준기구(ISO)는 ISO 26000 공표 전 수년에 걸쳐 77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준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모든 개발국의 합의에 의해 ISO 26000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ISO 26000은 가장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동 표준에서는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기업 지배구조,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핵심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37개 평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ISO 26000은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대표적인 글로벌 규범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준들을 살펴보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코오 원탁회의 기업행동지침(Caux Round Table), 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SA(Social Accountability) 8000, ETI 기본규범(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리반의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itC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제시한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발전 목표로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합의된 「세계의 전환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17개의 목표들은 사회, 경제, 환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다양한 글로벌 기준과 지침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ISO 26000, UNGC 10대 원칙, GRI 표준(Standards) 등은 기업의 준수해야만 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기업과의 거래,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기업이나 국내 시장에서도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금융투자 관련 기관들의 평가 기준 및 ESG 투자 동향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화 추세에는 주요 글로벌 기구들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및 표준뿐 아니라, 금융투자 관련 주요 서비스 기관들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도 있다.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FTSE4Good, IVA 등이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들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이다. 동 평가 기준들은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가 필요한 건설기업들은 결국 동 평가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평가 기준은 대체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약자로 ESG로 표기하기도 한다. ESG와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내지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기업을 선별하는 것을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이라고 한다. 사회적 스크리닝에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수준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과 반대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수준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라고 한다. 과거에는 투자 대상 기업 선정시 재무 성과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지만, 사회적 책임투자에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 아니라 ESG와 같은 평가 기준을 추가한 사회적 스크리닝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책임투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사회책임투자펀드라고 한다.

한편, 사회적 스크리닝을 통해 선별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지수를 구성한 것을 사회책임투자지수(SRI Index)라 한다.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FTSE4Good 지수 등이 있다. 국내에는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사회책임투자지수(KRX SRI)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모델의 통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중에서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지수를 산정한다. 이 지수를 기초로 운영되는 펀드인 사회책임투자펀드 역시 국내에 도입되어 있다.

최근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FTSE4Good 지수, 한국 사회책임투자지수(KRX SRI)와 같은 사회책임투자지수(SRI Index) 기반의 투자 외에 연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들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점점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영 원칙에 ESG 등 비재무적 기준을 추가하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세웠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협회(GSIA)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ESG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내지 지속가능투자 자산은 30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역시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3대 공적연기금의 ESG 관련 투자는 27조원에 육박하고, 이중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26조원을 상회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기구들이 주도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범화 추세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와 사회적 책임투자 확대 추세는 건설기업들에게도 지속가능경영의 이행을 점점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실천할 경우 해외 진출과 국내외 자금조달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대표되는 해외 개발형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MDB)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국제금융공사(IFC)의 이행표준 등에 근거해 환경 리스크와 사회 리스크를 철저히 따진다.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는 경우에도 OECD 가이드라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업 추진 절차와 설계 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수출신용기관(ECA)에서는 ESG 기준에 어긋나는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계변경을 요구하

기도 한다.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국내에서도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의 ESG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설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ESG 채권을 발행을 시도하는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의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건설기업의 경우 국내외에서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 등의 평가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해외 진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리스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통한 성과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은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해 고객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결국 해당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는 건설기업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로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경우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제고해 수주 가능성 증가와 자금조달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의 경우 위의 사회적 책임투자 관련 내용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고객 측면의 효과는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경영으로 제고된 평판과 기업 이미지가 인허가 및 수주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시공사 선정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가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경우 상당 기간 입주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만 완성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에는 건설기업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의 구체적 실적이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홍보 활동,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형성된 기업의 이미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평판이나 이미지는 발주자와 고객의 선택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형성된 긍정적 평판과 이미지는 건설기업의 우수 직원 유입과 충성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뿐 아

나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경영, 합리적 노동 관행, 인권경영 등은 직접적으로 직원의 충성도와 사기, 몰입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형성된 긍정적 이미지는 협력회사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거래비용 감소와 시너지 제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상생경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상호 간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신뢰도는 상호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소시키고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

앞 절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필요한 일반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건설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절에서는 건설기업에게만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분야별로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건설기업의 환경경영 필요성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불가피하게 자연을 일정 부분 훼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설자재 생산과 건설 시공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와 폐기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하고 있다. 도시의 고형 폐기물 중 40% 이상이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³⁾, 건설 생산품의 에너지 소비 역시 상당한데,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0%, 온실가스 배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⁴⁾ 그만큼 건설산업은 산업 특성상 환경경영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환경 이슈가 중요한 건설산업의 기본적 특성 외에도 건설기업의 온실가스 목표 이행 필요성, 공사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민원 증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3) 정상규, “순환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리포트, 2020.1, p.6.

4) 김규남, “저탄소 도시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리포트, 2017.10, p.2.

평가 중요성 증가, 환경 관련 법규의 강화, 녹색경영 관련 규범 및 인증 증가 등 건설기업의 환경경영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국책 건설공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에 추가되었고, 건설기업 자체적으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과 저감 목표 설정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고, 이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4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ISO의 14001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2012년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현대건설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목록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14064도 도입되어 건설기업의 체계적 환경경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0년 11월 발효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과 2011년 6월 제정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도 새로운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건설기업의 환경경영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결국 향후 건설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재 사용,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고효율 에너지 빌딩 건축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과 성과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기업의 상생경영 필요성

건설산업은 종합네트워크 산업으로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생산 과정에서 설계자, 엔지니어링회사,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자재제조사, 장비보유자 등 다양한 생산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도급자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의 보유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 건설생산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 원하도급 구조로 인해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보다는 납품단가를 중심으로 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기 쉽다. 가격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모든 생산주체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성과 향상이 저해되기 쉽다. 특히 산업수명주기상 성숙기에 속한 건설산업의 특성상 물량 정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생산주체 간 공

정계약 및 경쟁, 상생협력보다는 제로섬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 장려 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기업의 제재와 더불어 입낙찰 과정에 가점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공동 기술개발 및 해외공동진출 등 우수 모범사례 발굴, 홍보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주체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파트너링 제도,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 공사정보망을 통한 하도급 질서 투명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건설기업의 안전보건경영 필요성

건설산업은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제조업과 달리 옥외생산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제품의 구조나 생산 과정상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특징을 지니고 있어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고정된 입지와 공간 내에서 유사한 작업 과정을 반복해 진행하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산업은 공사 현장이 지속해 변화하고, 완성되지 않은 건축 및 토목 구조물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임시로 설치된 가설재에 의지하여 작업하는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변의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 등에 구조적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소도 지니고 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건설산업 재해자는 산업 전체의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 개정되면서 원도급업자인 종합건설회사의 책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기업, 특히 종합건설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안전보건경영은 건설기업 경영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안전사고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건물 철거현장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형 건설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건설기업도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과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기업의 경우 개별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기업은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과 실천을 통해 기업 내 안전 및 보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건설기업의 윤리 및 준법경영 필요성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 특성상 부패에 취약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 사업계약 및 건설부문이 비즈니스 분야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에 취약한 산업이며,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 진행단계별 각종 인허가와 승인, 지도 및 감독 등의 행정절차가 많아 역시 부패에 취약하다. 수주업체 선정 기준, 인허가 및 승인 기준, 지도 및 감독의 절차와 지침 등 관련 규정이나 기준,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해도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 등의 재량권은 커지고, 이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 담당 공무원,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역시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정경유착, 비자금 축적, 뇌물 공여 등의 부패 이미지도 일정 부분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부패 발생에 취약한 건설산업 특성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건설기업은 반드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한 축인 윤리 및 준법경영의 이행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과 향상과 더불어 사회공헌,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의 다른 부분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윤리 및 준법경영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또한, 부패로 인한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장기간 지속하는 각인효과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뇌물제공 및 수수, 불법 하도급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공공 입찰 과정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제3장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1. 개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에는 지속가능경영의 원칙, 핵심 주제, 실행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범과 각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에 대한 인증 표준, 지속가능경영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구분	명칭	주관기관
가이드라인	▪ Global Compact	UN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UNEP 산하기관)
	▪ ISO 26000	ISO
인증 표준	▪ AA1000	Account Ability
	▪ ISAE 3000	IFAC
평가 기준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 & SAM
	▪ FTSE4Good	Financial Times
	▪ Global 100	WEF

2.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경영과 관련 글로벌 규범 중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관련해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ISO의 ISO 26000 등이 있다.

<표 III-2>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가이드라인

구분	개요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1999년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서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 제시 10대 원칙은 일종의 강령으로서 전 세계 기업과 경제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 원칙과 방향성, 목표 제시
GRI 가이드라인	1997년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인정	- 보고서 작성 원칙 및 표준 제시, 구체적 작성 방법 기술한 이행 매뉴얼 제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전/전략, 성과 등 5개 영역으로 구성 권고 - 보고서의 핵심내용인 성과부문을 경제/환경/사회 분야로 구분해 작성 권고 - 경제/환경/사회 분야별 포함 세부 내용을 상세 제시(예 : 노사관계, 보건/안전 등)
ISO 26000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주요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존의 기준과 지침들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77개 개발국의 합의해 의해 국제표준으로 채택 - 단 기존의 ISO 표준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지침	-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 제시 -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37개 평가 영역 제시

(1)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1) 개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1999년 UN 총장이었던 코피아난(Kofi Annan)의 제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인권, 노동, 환경 분야, 반부패 등 4대 분야별로 기업이 준수해야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원칙들은 지속가능경영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지속가능경영의 범주와 연관된 글로벌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는 전 세계 157개국 1만 4,000여개 회원(1만 1,000여개 기업 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UN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 분야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 세계적인 협약과도 연계되어 있다. 10대 원칙은 일종의 강령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과 경제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 원칙과 방향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동 원칙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표준과 지침들에 가장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제거를 지지해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어린이 노동의 효과적 폐지를 지지해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과 직업 선택의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의 도전에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더 큰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과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료 : www.unglobalcompact.org, 2013.

(2)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1) 개요

1997년 미국의 환경시민단체 CERES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자문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하고 있다. 당초에는 환경시민단체인 CERES의 영향으로 환경 중심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지속가능경영의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GRI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가이드라인 중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실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250대 기업 중 90% 이상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GRI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 및 공공기관 대부분이 GRI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GRI 가이드라인 발전 단계

2000년 6월 첫 번째 버전(version)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G1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 개정되었고, 2013년 5월 네 번째 가이드라인인 G4가 발표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G4를 수정한 GRI 표준(Standards)을 발표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G4는 효력이 없어지고 반드시 GRI 표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Standard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기존의 가이드라인보다 강제적인 규범의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GRI 표준(Standards)에서는 항목별로 ‘보고 의무사항’과 ‘보고 권고사항’을 따로 기입함으로써 G4에 비해 보다 명확해졌고, 동시에 규범적 성격도 강화되었다.

3) GRI 가이드라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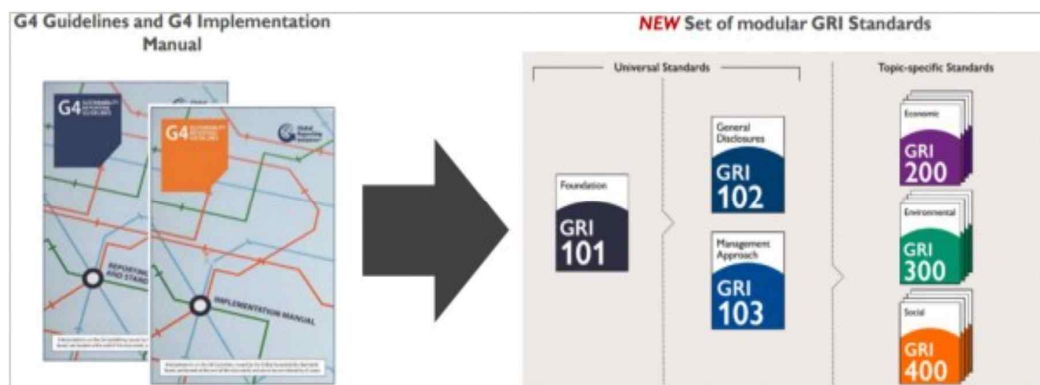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은 G4 버전까지 제1부 가이드라인(보고서 작성 원칙 및 표준공개), 제2부 이행 매뉴얼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GRI 표준(Standards)으로 개정되면서 공통적 표준(universal standards), 주제별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의 새로운 구조

로 바뀌었다. 단, 세부 내용은 GRI 표준(Standards)도 G4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구조가 모듈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은 G4 버전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는 가이드라인(보고서 작성 원칙 및 표준공개), 제2부는 이행 매뉴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보고서 가이드라인(작성 원칙 및 표준공개)에서는 보고서 작성의 원칙 및 표준뿐 아니라 각종 기준 및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다. 제2부 이행 매뉴얼에서는 보고서 작성 원칙과 표준에 근거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보고서 작성 원칙의 적용 방법, 공개 정보의 준비 방법,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다양한 개념에 대한 해석 방법 등을 포함하였다.

G4의 제1부 가이드라인과 제2부 이행 매뉴얼이 GRI 표준(Standards)으로 개정되면서 GRI 101, 102, 103, 200, 300, 400으로 재구성되었다. GRI 101, 102, 103은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인데, GRI 101은 보고서 원칙 등의 내용, GRI 102는 일반적 공시 내용, GRI 103은 경영방식 보고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GRI 200, 300, 400은 주제별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으로 GRI 200은 경제, GRI 300은 환경, GRI 400은 사회와 관련된 주제(topic)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GRI 표준(Standards)은 두 권의 책으로 이뤄진 G4의 구조를 세부 모듈화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각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1> GRI G4와 GRI 표준(Standards)의 구조 변화



자료 : CSV Platform(www.csvplatform.net), “GRI Standards 소개”, 2016.11.28.

4) GRI Standards의 주요 내용

GRI 표준(Standards)은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과 주제별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을 합하여 세부적으로 총 36개의 표준이 모듈화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 GRI 표준(Standards)의 구조 및 주요 내용

구분		개요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GRI 101	▪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원칙 제시 ✓ 보고서 작성 원칙 ✓ GRI 표준 활용법 ✓ GRI 표준 부합을 위한 요구사항
	GRI 102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에 대한 표준 제시 ✓ 조직 프로필 및 전략 ✓ 윤리성 및 청렴성 ✓ 거버넌스 ✓ 이해관계자 참여 ✓ 보고서 프로필
	GRI 103	▪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경영접근 방식의 공시 표준 제시 ✓ 중대 주제 및 경계 설명 ✓ 경영접근 방식 및 내용 ✓ 경영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
주제별 표준 (topic specific standards)	GRI 200	▪ 경제성과, 시장 지위 등 경제 분야 주제의 보고서 작성 표준 제시
	GRI 300	▪ 원자재, 에너지 등 환경 분야 주제의 보고서 작성 표준 제시
	GRI 400	▪ 고용, 노사관계 등 사회 분야 주제의 보고서 작성 표준 제시

(3) ISO 26000

1) 개요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기업을 비롯한 주요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자 2001년 ISO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하기로 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해 개발에 착수했다. 당초 동 표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이 목표였으나, 적용 범위를 확장해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모두 포함한 통합적 사회적 책임 표준으로

개발되었다. 2010년 9월 77개 개발 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93%의 찬성을 얻었고, 2010년 11월 1일 국제표준으로 발표했다.

2) 특징

ISO 26000이 제정되기 전에도 UN Global Impact에 의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 선언, GRI에 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ISO 26000은 UN Global Compact, 기후변화협약,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존의 글로벌 기준과 지침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하여 표준화 작업을 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ISO 26000은 기업을 포함한 7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핵심적 주제와 이슈를 모두 선정하고, 해당 이슈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포괄적 표준이다.

특히 ISO 26000은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정부, 기업, 노동, NGO, 기타 서비스/지원/연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 전문가가 모여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과 관련 핵심 주제, 지침 등을 작성했다. 또한, 2010년 9월 77개 개발 참여국의 투표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합의하였다. ISO 26000이 ISO 9001, ISO 14001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약한 권고에 가까운 지침이지만,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합의하고 국제표준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회적 책임 관련 기준들에 비해서는 보다 강제적 성격이 강한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 장벽’과 같은 규범적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ISO 26000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ISO 26000의 구성은 1장 범위부터 7장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직을 위한 지침과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SO 26000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총 7장의 구성 중 5장에서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강조하는 7개 핵심 주제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37개 평가 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평가 영역별 요구

활동과 기대 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5>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 및 37개 쟁점 사항

7개 핵심 주제	37개 쟁점 사항
조직 거버넌스 (Organizational governance)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
인권 (Human rights)	실사(due diligence), 인권 위험상황, 공모회피, 고충 처리, 차별과 취약그룹,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
노동관행 (Labour practices)	고용과 고용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적개발과 훈련
환경 (The environment)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공정운영 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제고, 재산권 존중
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정보 및 공정 계약관행,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보호, 지속가능소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과 인식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 고용창출과 기능개발, 기술개발과 접근성, 부와 소득 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3. 주요 분야별 글로벌 규범의 세부 내용

(1) 지속가능경영의 운영 절차

1) UN Global Compact의 6단계 모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10대 원칙을 제시한 UN Global Compact에서는 2010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델로이트(Deloitte)와 공동으로 기업이 UNGC 원칙들을 경영 활동에 접목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UNGC Management Model 이라고 하는 6단계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지속가능경영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적 표준 단계로 방침 수립, 평가, 목표/전략 설정, 이행, 성과 측정, 의사소통 등의 총 6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침 수립 단계는 기업의 최고위층에 의해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

는 방침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둘째, 평가 단계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리스크, 기회, 영향도 등을 평가하여 해결해야 할 이슈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단계이다. 셋째, 목표 및 전략 설정 단계는 지속가능경영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넷째, 이행 단계는 3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을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측정 단계는 이행 결과에 따라 3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의사소통 단계는 지속가능경영 목표, 전략과 이행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단계이다.

<그림 III-2> UN Global Compact의 지속가능경영 6단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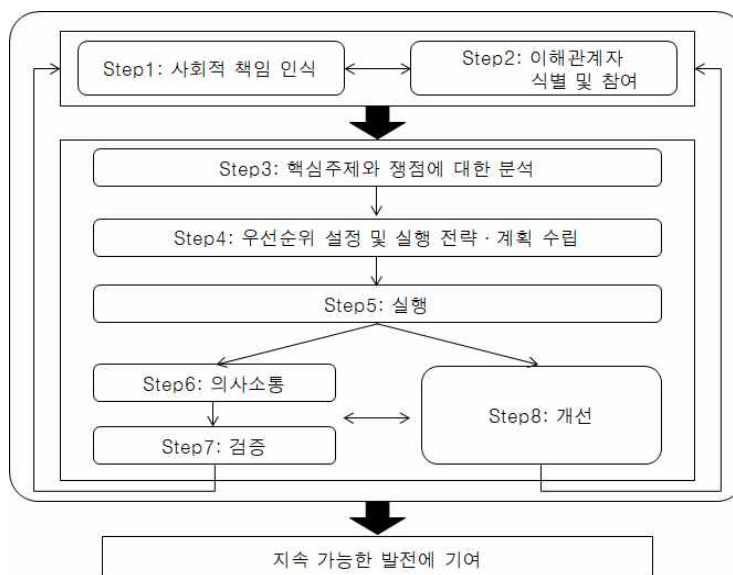
자료 : www.greenbiz.com, “Deloitte Creates Six-Step Plan to Corporate Sustainability” 2010.

2)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실천절차 모형

ISO 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7대 핵심 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동 주제들을 이행할 수 있는 표준적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를 시작으로 마지막 개선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의 실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 중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는 제1단계와 제2단계의 활동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업이 추진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후에는 핵심 주제와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과 실행, 성과에 대한 의사소통과 검증, 추후 개선을 위한 피드백의 단계로 전개된다.

<그림 III-3>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세스



자료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13.3, p.71.

한편, 2010년 11월 1일 ISO 26000이 국제표준으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업들이 ISO 26000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하였다. 동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ISO 26000 이행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 진단 부분과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성과 진단 부분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특히 프로세스 진단 체크리스트는 ISO 26000에서 제시된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세스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진단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인식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추진할 담당 조직의 구성과 이를 통한 비전 및 방침 수립, 그리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을 기초로 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며, 분야별로 보다 세부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 분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III-4> ISO 26000 범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료 : 한국표준협회.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권위 있는 표준이다. GRI 역시 4번째 가이드라인인 G4 이후 가장 최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Standar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앞 절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GRI 표준(Standards)은 공통 표준과 주제별 표준으로 나뉘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은 보고서 원칙 등의 표준을 담은 GRI 101,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의 표준을 담은 GRI 102, GRI 103은 경영방식 보고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GRI 101(Foundation)은 GRI 표준(Standards)을 활용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 GRI 표준 활용방법, GRI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GRI 101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6> GRI 101 기초(Foundation) 공시 표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고서 작성 원칙 (Reporting Principles)	■ 보고서 내용 결정과 관련된 원칙, 보고서 품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 제시 ■ 보고서 내용 결정과 관련된 원칙(Reporting Principles for defining report content) :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연계, 중대성, 완전성의 4가지 ■ 보고서 품질 결정과 관련된 원칙(Reporting Principles for defining report quality) : 정확성, 균형, 명확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적시성의 6가지
GRI 표준 활용법 (Using the GRI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 보고서 작성 원칙의 적용 방법, 조직(기업)의 일반적 공시 내용, 지속가능경영 관련 조직(기업)의 중대한 주제들(topics) 선정 방식, 보고 형식 등 GRI 표준을 사용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GRI 표준 부합을 위한 요구사항 (Making claims related to the use of the GRI Standards)	■ 보고서가 GRI 표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 GRI 표준에 포함된 공시 표준 분야별(GRI 101, 102, 103 및 GRI 200, 300, 400) GRI 표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 표준 항목 제시 ■ 표준 부합을 위한 핵심적 부합 방법(core option), 포괄적 부합 방법(comprehensive option) 제시해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자료 : GRI, GRI Standards 'GRI 101'.

GRI 102(General Disclosures)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시해야 할 내용에 대한 표준(General Disclosures)을 제시하고 있다. G4의 일반표준공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포함해 구성하고 있고, G4의 특정표준공시 내용은 간소화해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성과 청렴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분야별로 총 56개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표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7> GRI 102 일반적 공시 내용(General Disclosures) 표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직 프로필 (Organizational profile)	- 총 13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1~13) - Disclosure 102의 33에서 56 - 조직 명칭, 규모, 법적 형태, 상품 종류 등 13개 항목의 공시 표준	거버넌스 (Governance)	- 총 22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18~39) -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 경제/환경/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등 22개 항목의 공시 표준
전략 (Strategy)	- 총 2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14, 15) - CEO 메시지 및 핵심적 영향/리스크/기회요인에 대한 공시 표준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 총 5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40~44) - 이해관계자 집단 목록, 이해관계자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 5개 항목의 공시 표준
윤리성 및 청렴성 (Ethics and integrity)	- 총 2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16, 17) - 조직 핵심가치, 표준, 행동원칙 관련 표준 - 윤리경영을 위한 내외부 자문, 보고체계 관련 표준	보고서 프로필 (Reporting practice)	- 총 12개 공시 항목에 대한 표준 제시(Disclosure 102의 45~56) - 보고서의 보고 일자, 보고 기간, 보고주기, 보고서의 GRI 표준 부합방법 인덱스, 외부검증 등 12개 항목의 공시 표준

자료 : GRI, GRI Standards 'GRI 102'.

GRI 103(Management Approach)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경영접근 방식의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들을(topics)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접근 방식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 표준, 그리고 경영접근 방식의 평가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RI 103은 GRI G4의 특정표준공개 중 경영접근 방식 공시 내용과 고충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구성하고 있다. GRI 103은 주제 결정, 경영접근 방식 및 내용, 경영접근 방식 평가 등의 3가지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8> GRI 103 경영접근 방식(Management Approach) 공시 표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대 주제 및 경계 설명 (Explanation of the material topic and its Boundary)	■ 보고서 작성 조직(기업)과 관련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들(topics)의 선정 절차, 이유, 경계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Disclosure 103-1) ■ 예를 들어 주제들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조직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정도)을 기초로 한 주제 선정 등의 공시 표준 제시
경영접근 방식 및 내용 (The management approach and its components)	■ 조직(기업)의 중대한 주제들(topics)과 그 영향을 관리하는 경영접근 방식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Disclosure 103-2) ■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관리방식과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
경영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approach)	■ 조직(기업)의 경영접근 방식에 대한 내외부 평가 시스템,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Disclosure 103-3) ■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기업)의 경영관리방식에 대한 내외부 평가, 인증시스템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

자료 : GRI, GRI Standards 'GRI 103'.

2)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

GRI 표준은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다음으로 주제별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RI 200~400까지 주제별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GRI 200은 경제 분야 주제, GRI 300은 환경 분야 주제, GRI 400은 사회 분야의 주제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RI 200은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의 첫 번째 표준으로 경제 분야 주제(topics) 관련 보고서 작성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4의 경제 분야 측면(aspects)에 해당하는 내용과 함께 반부패(Anti-corruption) 및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구성했다. GRI 300은 환경 분야 주제(topics) 관련 보고서 작성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4의 환경 분야 측면(aspects)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였다. GRI 400은 사회 분야 주제(topics) 관련 보고서 작성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G4에서는 사회 분야 내에 다시 노동, 인권, 사회 등의 세분류를 추가했는데, GRI 400에서는 세부 분야 구분을 추가하지 않고, 1차원적으로 주제별 표준을 나열해 참조가 용이하도록 했다. GRI 200~400에 해당하는 주제별 표준은 GRI 200이 7개, GRI 300 8개, GRI 400 19개 표준인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9> GRI 200~400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의 주요 내용

구분	주제별 표준 내용
GRI 200 경제 분야 주제(topics)의 보고서 작성 표준	▪ GRI 201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 GRI 202 : 시장지위(Market Presence) ▪ GRI 203 : 간접적 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 GRI 204 :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 GRI 205 : 반부패(Anti-corruption) ▪ GRI 206 :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 GRI 207 : 세금(Tax)
GRI 300 환경 분야 주제(topics)의 보고서 작성 표준	▪ GRI 301 : 원자재(Materials) ▪ GRI 302 : 에너지(Energy) ▪ GRI 303 : 용수(Water and Effluents) ▪ GRI 304 : 생물다양성(Biodiversity) ▪ GRI 305 : 배출(Emissions) ▪ GRI 306 :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 GRI 307 : 환경 컴플라이언스(Environmental Compliance) ▪ GRI 308 : 공급자 환경영향 평가(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GRI 400 사회 분야 주제(topics)의 보고서 작성 표준	▪ GRI 401 : 고용(Employment) ▪ GRI 402 :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 GRI 403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4 : 교육훈련(Training and Education) ▪ GRI 405 : 다양성 및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 GRI 406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 GRI 407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 GRI 408 : 아동노동(Child Labor) ▪ GRI 409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 GRI 410 : 보안관행(Security Practices) ▪ GRI 411 : 원주민 권리(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GRI 412 : 인권 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 GRI 413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 GRI 414 : 공급업체 사회적 영향 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 GRI 415 : 공공정책(Public Policy) ▪ GRI 416 : 고객 안전 및 보건(Customer Health and Safety) ▪ GRI 417 :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 GRI 418 : 고객정보보호(Customer Privacy) ▪ GRI 419 : 사회경제 컴플라이언스(Socioeconomic Compliance)

자료 : GRI, GRI Standards 'GRI 200~400'.

3) 보고서 작성 원칙

GRI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 결정과 관련된 원칙과 보고서의 품질과 관련된 원칙이다. 첫째로 보고서 내용 결정과 관련된 원칙은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이해관계자 포괄성, 지속가능성 맥락 연계, 중대성, 완전성의 4가지이다. 둘째로

보고서 품질 관련 원칙은 보고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정확성, 균형, 명확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적시성의 6가지이다. 각각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기본적 원칙

보고서 내용 결정과 관련된 원칙(Reporting Principles for defining report content)	
이해관계자 포괄성 (Stakeholder Inclusiveness)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자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기대와 관심 사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고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주주, 근로자, 공급업체뿐 아니라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함.
지속가능성 맥락(Sustainability Context)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맥락과 연계된 조직의 성과를 보고함. 즉 조직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성과를 보고함.
중대성(Materiality)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있는 주제들(topics),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topics)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완전성(Completeness)	보고서는 조직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모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중대한 주제들(topics)과 주제들의 경계(boundaries) ⁵⁾ 를 모두 포함해야 함.
보고서 품질 결정과 관련된 원칙(Reporting Principles for defining report quality)	
정확성(Accuracy)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방식, 지표 등의 제공 정보가 정확하고 상세해야 함.
균형(Balance)	공정하게 조직 성과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보고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생략, 제시방식 결정 등은 지양해야 함.
명확성(Clarity)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함.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직의 성과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 다른 조직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보를 선정, 편집, 보고해야 함.
신뢰성(Reliability)	차후 검사 과정을 거쳐 정보의 품질과 중대성(materiality)을 확립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정보, 프로세스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적시성(Timeliness)	이해관계자들이 적시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개 시기가 중요하며, 적절한 공개 시기는 보고의 정기적 규칙성, 보고서 기술된 내용의 시간적 근접성을 모두 포함함.

자료 : GRI, GRI Standards 'GRI 101'.

5) 주제의 경계(boundaries)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적 주제들(topics)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보고서에 포함되는 주제들의 경계 범위는 보고서를 작성한 조직이 참여한 주제들의 영향 범위를 감안해 결정함.

(3)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성과의 검증

1) 검증의 필요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이 증가하면서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방침, 경영 방식, 성과 등을 담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이 보고서 등의 매체를 통해 공시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의 객관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주제 및 이슈 도출과 해결방안 등이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적정한 범위와 방법론으로 도출되었는지 검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성공적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검증이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성과에 대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KPMG 조사에 의하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 조사에서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의 93%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중 67%가 제3자 기관에 의한 보고서 검증을 획득했다.

2) 주요 검증 표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객관적 검증을 위한 검증 표준 및 방법론이 등장했고, 이를 기초로 제3자 기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들도 점차 등장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검증 표준으로 주로 인정받는 표준은 세계회계사연맹(IFAC)의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Board에서 제공하는 ISAE 3000과 1995년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 보고서 검증 글로벌 비영리조직인 Account Ability사에서 제공하는 AA1000 AS가 있다. 국내 표준으로는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SRV 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이 있다. 이러한 표준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검증 표준

구분	내용
ISAE 3000	▪ 세계회계사연맹(IFAC)의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Board에서 제공하는 기업 보고서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검증 기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ISAE 3000 기준에 의한 검증 실시 ▪ 윤리 행동, 품질 관리 및 ISAE 3000 참여의 성과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 ▪ 보고서 포함 데이터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검증 기준
AA1000 AS(Assurance Standard)	▪ 1995년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 보고서 검증 글로벌 비영리조직인 Account Ability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검증 기준 ▪ ISAE 3000에 비해서는 검증 기준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낮은 편 ▪ 보고서 구성과 프로세스의 완전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 검증
SRV 1000	▪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
GRI Standards	▪ GRI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버전의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표준인 동시에 검증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검증 원칙으로 완전성(Completeness), 중대성(Materiality), 신뢰성(Reliability) 강조

3) 주요 검증 요소

국내외 지속가능경영의 검증 표준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요 원칙과 세부 기준들을 설정해 놓고 이에 기초해 보고서를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검증 요소는 포괄성(Inclusivity), 중대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이다. AA1000의 경우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외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표준인 동시에 검증 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GRI Standards에서는 포괄성과 유사한 개념인 완전성(Completeness), 그리고 중대성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이에 더하여 GRI에서는 보고된 데이터 및 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는 신뢰성(Reliability)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각 검증 표준에 따라 정보의 균형성 및 비교 가능성,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검토한다. 가장 기본적 검증 요소인 포괄성(Inclusivity), 중대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의 개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주요 검증 요소

구분		내용
검증 요소	포괄성 (Inclusivity)	- 포괄성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 원칙 -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및 관리, 보고 과정에서 포괄성 원칙의 준수 여부 검토
	중대성 (Materiality)	- 중대성은 기업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선정하는 원칙 - 보고 이슈 선정을 위한 중요이슈 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그 적합성 검토
	대응성 (Responsiveness)	- 대응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 - 지속가능경영 전략 이행 프로세스와 중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현황 보고의 적합성 검토
검증 범위		- 회사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 - 비재무 정보가 포괄적이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 - 재무 관련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여부 검토 등

제 4 장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여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 제정 기관의 가입 및 규범 적용 실태 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1.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1) Corporate Register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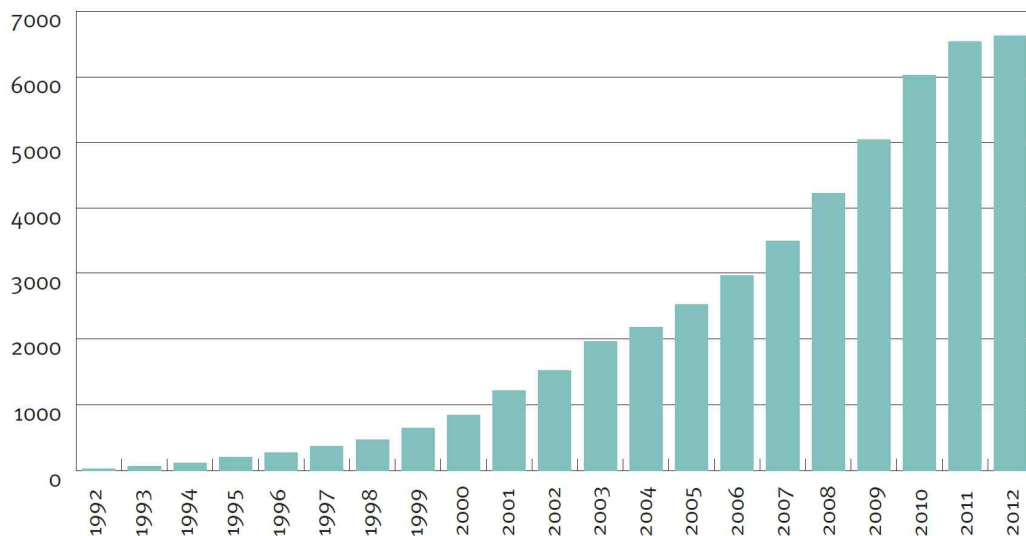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여부는 우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경영방침과 성과를 보고하는 통합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도 지속가능성의 3가지 큰 축인 환경, 경제, 사회 측면을 각각 강조한 보고서, 즉 환경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CSR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도 광의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3가지 큰 축인 환경, 경제, 사회 측면에서의 기업성과, 즉 비재무성과(non-financial performance) 혹은 기업사회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를 보고하는 기업들이 점차 생겨났다. 처음에는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재무성과 외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환경보고서와 같은 별도의 비재무적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차츰 생겨났다. 이후 지속가능경영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 명칭하에 환경, 경제, 사회적 성과를 모두 포함한 통합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코포레이트 레지스터(CorporateRegister)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CSR보고서 등과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보고서를 전 세계적으로 등록, 수집하고 있다. 코포레이트 레지스터(CorporateRegister)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의하면, 1992년 26개였던 보고서 등록 수는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1년에는 1,000개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보고서 등록 수는 빠르게 증가했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보고서 등록 수가 6,000개에 육박했다. 보고서 등록 수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비로소 증가율이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기업들의 비재무적 성과보고서 발간이 약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성숙단계에 점차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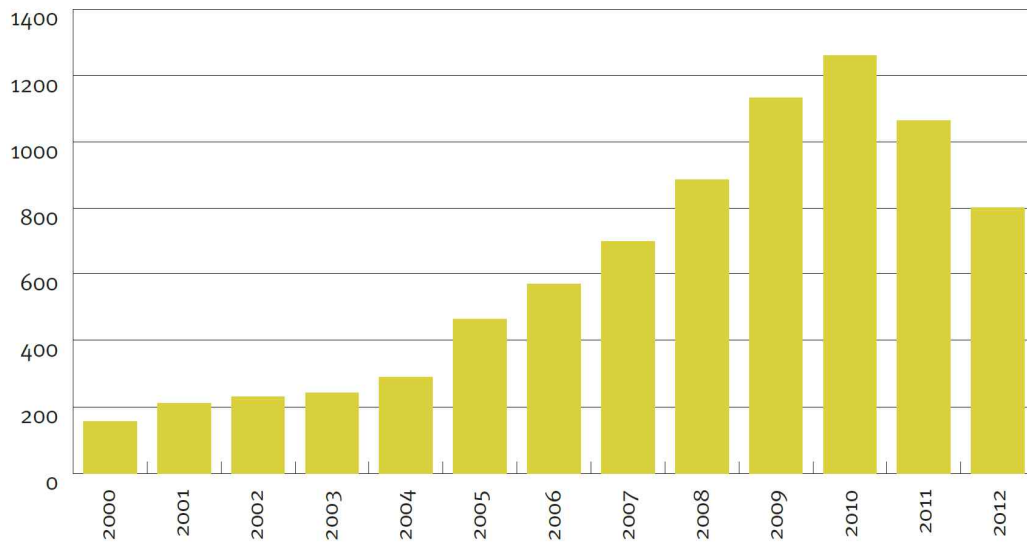
주 : 2013년 이후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환경보고서, CSR 보고서 등을 포함한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 기업 수 추이임.

자료 : CorporateRegister.com.

실제로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음 등록한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0년에 정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처음 보고서를 등록한 기업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보고서의 등록 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2010년대 들어서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이 성숙단계에 점차 접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등록 기업 수 추이



주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외에 환경보고서, CSR보고서 등을 포함한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록 기업 수 추이임.

자료 : CorporateRegister.com.

2) 글로벌 상위 250대 및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한편, 글로벌 회계감사 및 경영컨설팅 기관인 KPMG에서는 1993년 이후 글로벌 상위 250개 기업과 49개 국가의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보고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보고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KPMG는 사회적 책임보고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보고서 등을 포함한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로 볼 수 있다.

코포레이트 레지스터(Corporate Register)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어느 정도 발간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KPMG의 조사 결과는 상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IV-1> KPMG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 대상

구분	조사 대상 기업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G250)	포춘지(Fortune)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 (N100)	- 조사 대상 주요 국가의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 -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 조사에서는 49개국의 총 4,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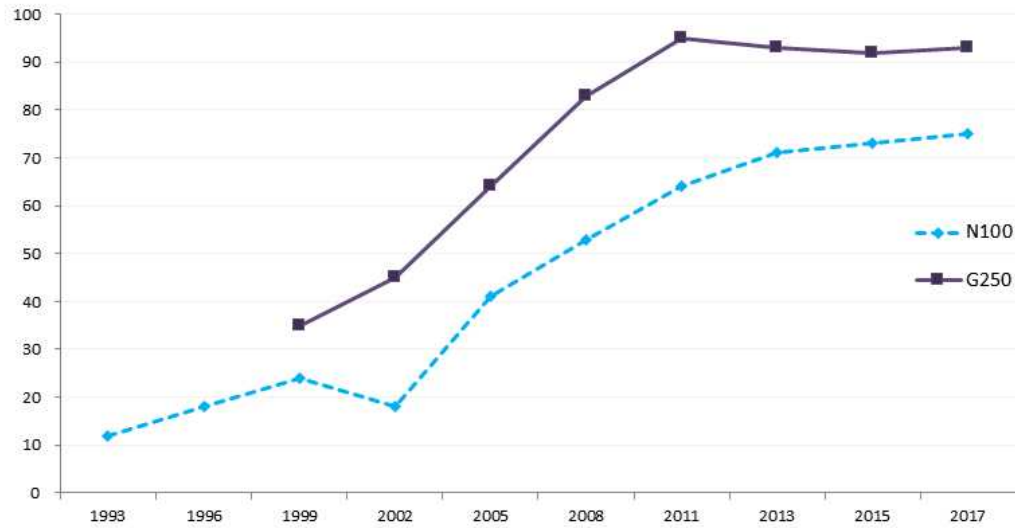
주 : KPMG는 사회적 책임보고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보고서 등을 포함한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로 볼 수 있음.

KPMG가 1993년 이후 그동안 실시한 조사(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IV-3>과 같다. 먼저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포춘지 선정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93%가 사회적 책임보고서, 즉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은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위 250개 기업 중 9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대다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코포레이트 레지스터(Corporate Register) 통계에서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보고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2010년대 들어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과도 비슷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49개 국가에서 각각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 총 4,9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역시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들이 급속히 증가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에는 75%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3> 전 세계 상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추이



주 : 1) N100은 49개 국가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총 4,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2) G250은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3) 2017년 N100 조사 결과는 75%이며, 2017년에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국가를 포함하면 72%임.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2)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1)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① 초기 단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선도 기업

전 세계 기업 중 선도적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본격 발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2003년에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삼성SDI, 현대자동차, 한화석유화학, 한국다우코닝 등 4개의 민간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 포스코, 2005년 SK(주), 대한항공, 2006년 유한킴벌리, LG전자, 2007년 하나은행, 가스공사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보고서를 발간한 주요 기업들의 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한편, 국내 건설기업은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STX건설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고서 발간이 본격화되었다.

<표 IV-2> 초기 단계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 현황

연도	주요 기업
2003년	현대자동차, 삼성SDI, 한화석유화학, 한국다우코닝
2004년	기아자동차, 포스코, BAT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2005년	한국전력, SK(주), 대한항공, 현대해상, 롯데백화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신한은행
2006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대우증권, 아시아나항공, 웅진코웨이, 유한킴벌리, 하나은행,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GS칼텍스, KT, SK텔레콤

주 : 각 연도에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현황임. 건설기업은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STX건설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고서 발간이 본격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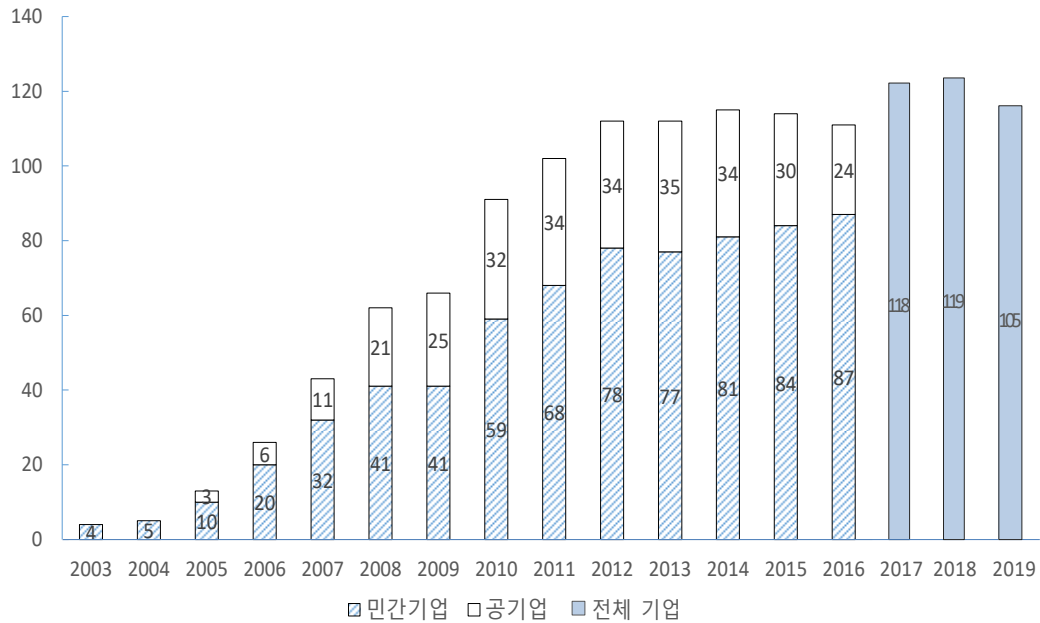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②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의 숫자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가 급속히 증가한 2000년대에 국내 기업들도 보고서 발간이 급속히 증가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국내 기업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4개 기업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2004년에 5개 기업, 2005년에 13개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6년 이후 보고서 발간 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후 2010년대 초반 100여개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보고서 발간 추이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림 IV-4>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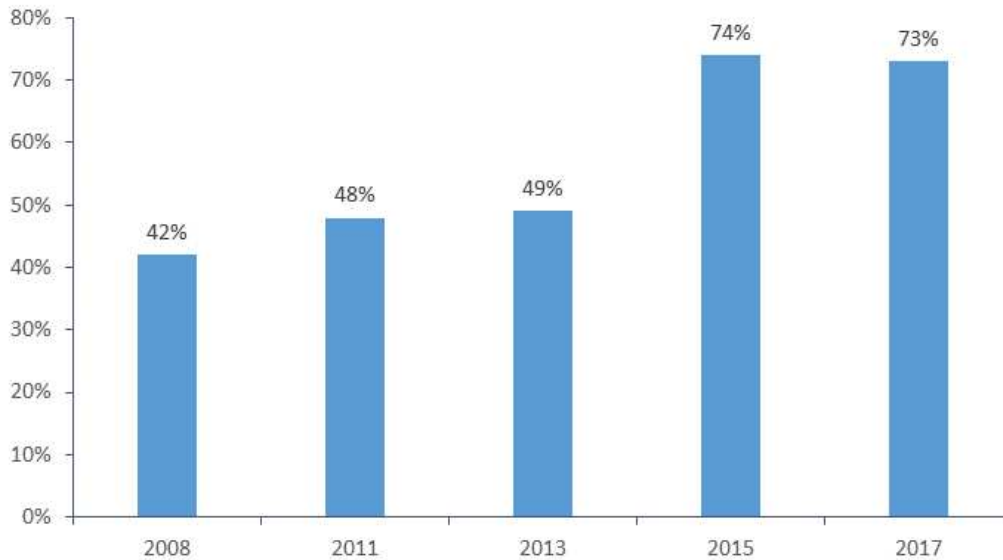
주 : 2017~2019년 자료는 공기업이 별도 구분되지 않음. 2019년 자료는 잠정치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2016년까지 지속가능경영원 자료, 2017년 이후는 한국표준협회 자료).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2011년 이후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대기업 중 다수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중 민간기업들은 2011년에 68개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4년 이후에는 80개 이상의 민간기업들이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상위 100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글로벌 회계감사 및 컨설팅 기관인 KPMG에서는 세계 40여개 주요국의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의 KPMG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비중은 2013년 조사까지는 50%를 하회하였으나, 2015년 조사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 비중이 70%를 상회하였다.

<그림 IV-5>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추이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각 연도.

KPMG의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5년과 2017년 2개 연도 조사 결과를 주요 국가 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74%, 2017년에 73%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49개 국가의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2015년, 2017년 모두 1%p씩 높은 수치이다. 즉 KPMG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PMG는 2015년과 2017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중하 그룹으로 49개 국가를 분류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평균에 해당하는 그룹(발간 비중 72~89%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이 높은 상위 그룹(발간 비중 90% 이상 그룹)에 속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영국, 일본, 프랑스, 인도, 덴마크,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있다.

<표 IV-3> 주요 국가별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비교

구분	해당 국가 및 보고서 발간 비중
상위 그룹	영국(98%, 99%), 일본(97%, 99%), 인도(100%, 99%), 말레이시아(99%, 97%), 프랑스(97%, 94%), 덴마크(94%, 94%), 남아프리카(95%, 92%), 미국(87%, 92%), 멕시코(58%, 90%)
중위 그룹	노르웨이(90%, 89%), 대만(77%, 88%), 스웨덴(87%, 88%), 나이지리아(85%, 88%), 스페인(84%, 87%), 브라질(85%, 85%), 싱가포르(84%, 84%), 캐나다(81%, 84%), 칠레(80%, 83%), 콜롬비아(78%, 83%), 네덜란드(80%, 82%), 스위스(75%, 82%), 핀란드(74%, 82%), 포르투갈(81%, 80%), 이탈리아(79%, 80%), 아일랜드(70%, 78%), 헝가리(84%, 77%), 호주(81%, 77%), 루마니아(68%, 74%), 한국(74%, 73%), 러시아(66%, 73%), 독일(69%, 73%)
하위 그룹	뉴질랜드(52%, 69%), 태국(67%), 페루(69%, 66%), 벨기에(59%, 62%), 오스트리아(62%), 폴란드(54%, 59%), 룩셈부르크(59%), 슬로바키아(48%, 55%), 그리스(46%, 54%), 체코(43%, 51%), 터키(50%), UAE(36%, 44%), 앙골라(34%, 32%), 오만(37%, 30%), 이스라엘(28%, 26%), 카자흐스탄(23%, 25%), 키프로스(13%)

주 : ()안의 수치는 각 국가의 2015년, 2017년 조사 결과, 상위 100대 기업 중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임. 수치가 하나만 있는 경우 2017년 조사 결과임.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5~2017.

(3) 해외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가치사슬의 전방단계인 자재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특징을 갖고 있으며, 건설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산과정과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큰 산업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 중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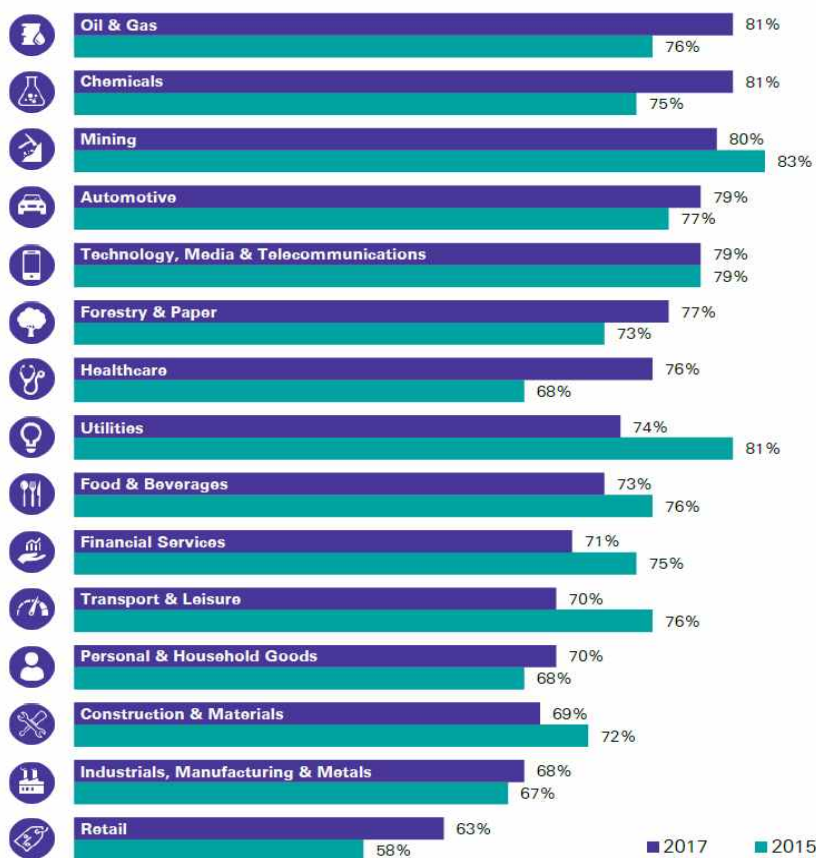
KPMG는 전 세계 49개 국가의 상위 100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 건설 및 자재업종은 통합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건설 및 자재 업종은 2017년에 69%, 2015년에는 7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49개 국가 상위 100대 기업 전체 4만 9,000개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중(2015년 73%, 2017년 72%)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이다.

또한, 타 업종과 비교해 보면 건설 및 자재업종은 소매업종, 산업/제조/금속 업종에 이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의 비중이 3번째로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오일 및 가스업종, 화학업종 등은 상위 100대 기업 중 80% 내외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해 가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KPMG의 최근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건설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실태는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경우 제2장에서 살펴본 대로 환경 측면을 비롯해 지속가능경영이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결국, 건설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성과 보고가 중요한 도전적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6>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 중 업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주 :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총 4,900개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임.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5~2017.

2) 선진국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구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스웨덴 건설기업인 Skanska사가 해외 건설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했다. Skanska는 1996년부터 별도의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를 보고서에 사용하여 해외 주요 건설기업 중 가장 먼저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적극 시도하였다. 이후에는 프랑스의 Vinci사가 2003년부터 연차 보고서상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일부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역시 프랑스의 Technip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별도 발간하기 시작했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7년 들어서는 미국의 Bechtel사, 프랑스의 Bouygues사, 오스트리아의 Strabag사 등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독일의 Hochtief사, 이탈리아의 Saipem사가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2011년 호주의 Bovis lend Lease 사도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구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보고방식을 살펴보면, 별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지 않고, 기업 연차보고서에 포함하거나 2~3년 주기로 성과를 보고하는 정도의 기업도 있었다. Vinci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Bechtel사는 매년 연차보고서인 Bectel Report에 사회적 책임 성과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포함하는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Bouygues사도 별도의 보고서 발간 없이 지속가능경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를 공개하였다.

한편, 독일의 Bilfinger Berger사는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비해서는 훨씬 간략한 사회적 책임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가 요구하는 진도보고(COP: Communication on Progress)만을 작성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행 주기 역시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Skanska사, Saipem사, Technip사 정도였다.

<표 IV-4> 선진국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회사	국적	최초 보고	비 고
Hochtief	독일	2008년	2008년 이후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Vinci	프랑스	2003년	2003년 이후 연차보고서와 통합 보고
Skanska	스웨덴	1996년	환경보고서로 시작, 2002년부터 지속가능성 용어 사용
Strabag	오스트리아	2007년	2007년 이후 3년 주기로 보고
Bouygues	프랑스	2007년	성과지표 중심으로 웹사이트에 간략히 보고
Bechtel	미국	2007년	연차보고서(Bechtel Report)에 지속가능성 포함
Saipem	이탈리아	2008년	2008년 이후 매년 보고서 발행
Technip	프랑스	2004년	2004년 이후 매년 보고서 발행
Bilfinger Berger	독일	-	별도 보고서 없이 UNGC COP 독어판만 발행
Bovis lend Lease	호주	2011년	2011년 이후 온라인 보고서 발간

자료 : 각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노한균, “건설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17(1), 2013.2, p.4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kanska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미 주요 건설기업들이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거나,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해외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에 기초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수가 급증한 2000년대와 일치하는 시기이다. 결국, 스웨덴의 Skanska사를 제외하면 구미 주요 건설기업 중에는 지속가능경영 도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0년에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한 선도적 기업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보고방식을 볼 때도 별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고,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는 기업도 있어서 글로벌 선진기업들에 비해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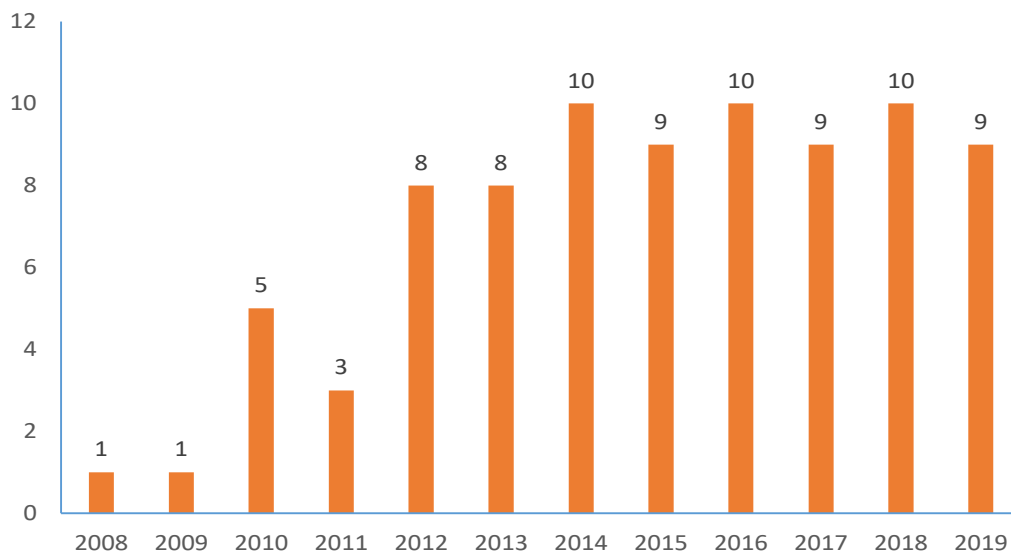
(4)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1)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①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국내 건설기업은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보고 기간 2017년 1~12월)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시작되었다. 특히 2010년에는 5개의 건설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증가했는데, 삼성물산이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STX건설 등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에는 GS건설이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고,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본격화된 2012년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2~3번째 보고서를 발간했고,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등이 최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에는 롯데건설, 2014년에는 두산건설이 최초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중견기업인 대보건설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3~4개 정도의 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기업들이 최근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IV-7>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주 :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DB(구 지속가능경영원 DB)에 등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이며, 보고 기간이 아닌 보고서 발간 연도 기준임. 건설업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며, 건설업을 겸업하는 기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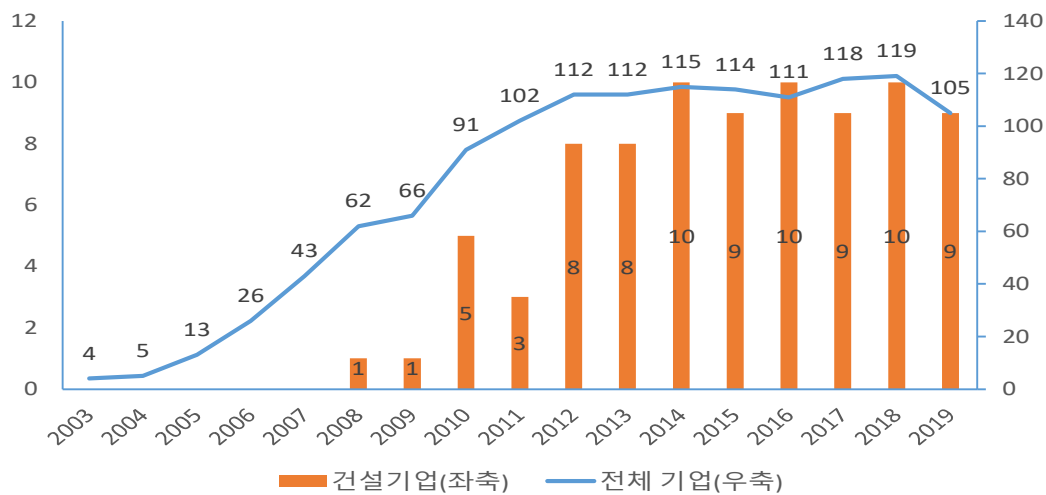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

② 전체 국내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비교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를 전체 국내 전체 기업의 보고서 발간 추이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에 시작된 국내 전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 단계를 거쳐 2010년대에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는 이보다는 다소 늦은 2010년을 전후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결국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가 전체 기업의 보고서 발간 추이보다는 다소 지연된 가운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를 지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 대비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과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추이가 모두 성숙 단계에 접어든 최근 4, 5년 동안 약 8~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생산액이 전체 산업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약 6% 정도임을 감안할 때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8> 전체 국내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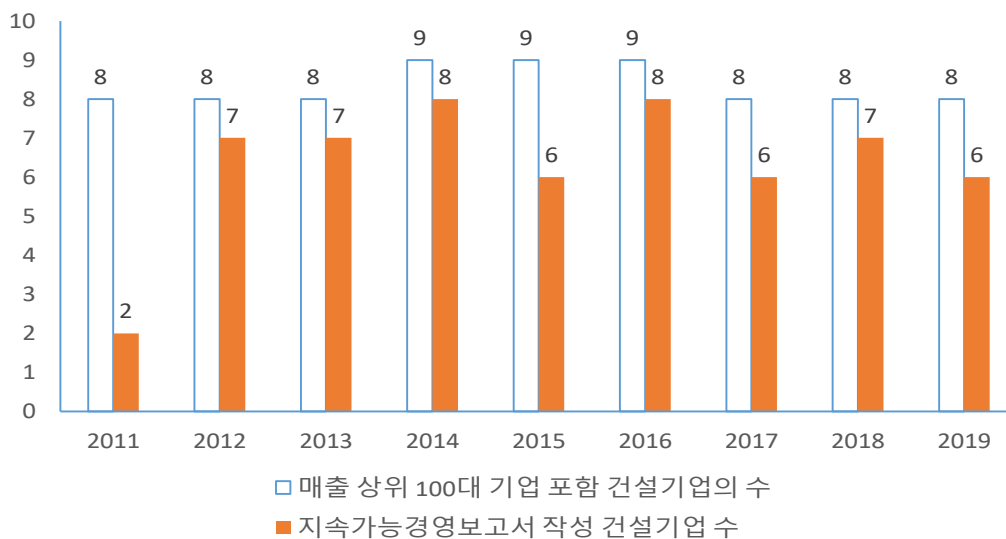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

2) 국내 상위 100대 기업 중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최근 들어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은 어떠한가?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를 살펴본 결과, 8~9개 기업이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이 중 7개 건설기업은 2011~2019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⁶⁾ 2011년 이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건설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2개사만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2012년에 7개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6~8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림 IV-9>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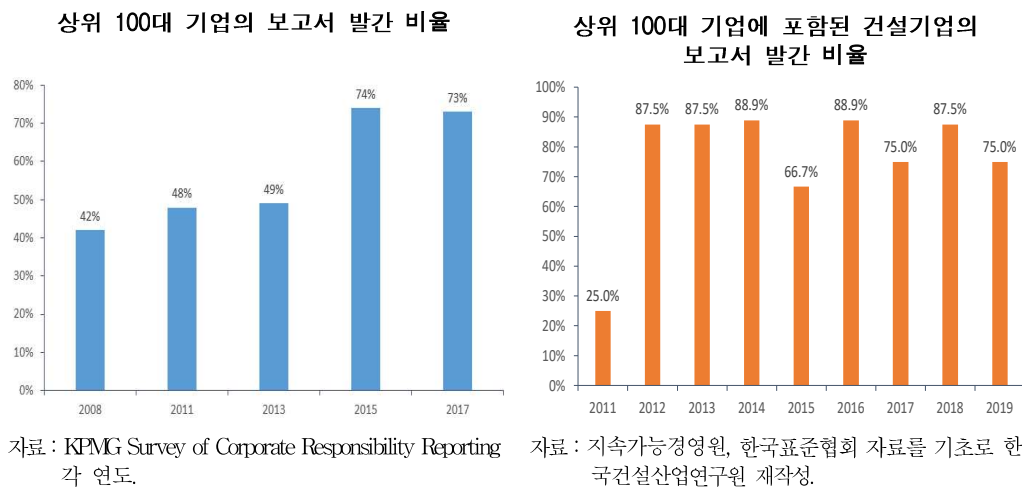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한국표준협회.

6) 2011~2019년 동안 매출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건설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임.

다음으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과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이 좀 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은 2013년까지 50%를 하회하다가 2015년에 74%, 2017년에 73%를 기록해 70%를 상회했다. 반면,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은 2011년 2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 87.5%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2015년 66.7%, 2017년과 2019년의 75%를 제외하면 모두 85%를 상회했다.

<그림 IV-10> 우리나라 상위 100대 전체 기업 및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



3) 국내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한편,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상위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위 안에 속하는 대형 건설기업은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11위 이하의 건설기업의 경우 소수 기업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위 이하 건설기업 중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하지 않지만,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사의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방침과 내용을 밝힌 건설기업은 다수 존재하였다.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주요 건설기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내 건설기업 현황

구분	최초 발간 시기	발간 주기	구분	최초 발간 시기	발간 주기
삼성물산	2009년	매년	현대엔지니어링	2010년	매년 (2017년 이전 격년)
현대건설	2010년	매년	롯데건설	2013년	매년
GS건설	2011년	매년	SK건설	2016년 (환경보고서는 2010년 첫 발간)	매년
대우건설	2012년	매년	두산건설	2014년	매년
포스코건설	2012년	매년	삼성엔지니어링	2012년	매년

주 : 과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최근 2년 동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제외함.

① 상위 10대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1~10위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위권에 진입한 1개 기업과 과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했으나, 최근 3년 내 발간 실적이 없는 2개 기업을 제외한 7개 대형 건설기업은 최근 모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9년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2011년 GS건설, 2012년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대형 건설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롯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보고서를 지속 발간하고 있다.

② 11위 이하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이내에 있는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의 대부분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과 달리 11위 이하 건설기업들의 경우는 일부 소수 기업들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10위 이하 건설기업 중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SK건설, 두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CJ대한통운, 두산중공업 등과 같이 대그룹 계열사이거나,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다. 이외의 건설기업들은

주로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지속가능경영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윤리경영, 환경경영, 상생경영, 안전경영, 사회공헌 등의 지속가능경영에 해당하는 기업의 방침과 성과들을 수록하고 있다. 기업 순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30위 건설기업들은 3개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설기업들은 1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30위를 넘어가면 건설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도 30위 이내 건설기업에 비해 비교적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50위를 넘어가면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대보건설의 경우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1위이었는데, 홈페이지에 비교적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상세히 내용을 수록하고 동시에 회사의 소개 책자에 지속가능경영을 요약하여 내용을 수록하여 타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중견 이하 건설기업의 경우 대보건설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과 동시에 회사 브로슈어 등에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요약해 수록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경영방침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국내외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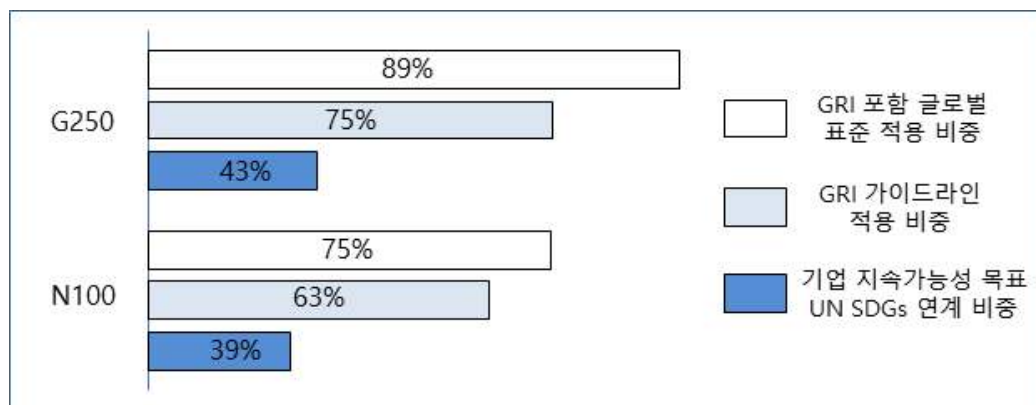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추세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단순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뿐 아니라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증을 공식적으로 획득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 기준은 제3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의 기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는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업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PMG가 실시한 글로벌 상위 250개 기업과 전 세계 49개 국가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2017년 조사의 경우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93% 기업이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중에서 89%의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9개 국가의 각 상위 100대 기업, 즉 4,900개 기업 중에서는 2017년에 72%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중에서 74%의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표준을 적용했다.

글로벌 표준 중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의 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2017년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간한 233개 기업 중 75%가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그리고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간한 3,543개 기업 중 63%의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기업들 중 구체적으로 가장 최신 버전인 GRI Standards를 적용한 기업은 10%였고, GRI G4 적용 기업이 88%, G3 적용 기업이 2%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단순히 보고서만을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1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실태



주 : N100은 2017년 조사 대상인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3,543개 기업 중에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기업의 비중이며, G250은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간한 233개 기업 중에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기업의 비중임.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표준 중 UN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를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목표와 연계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KPMG의 2017년 조사에서는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보고서를 작성한 233개 기업 중 4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UN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하였다.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간한 3,543개 기업 중에서도 3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UN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연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 주요 선진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용된 글로벌 표준을 살펴 보면, 역시 GRI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고,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10대 원칙을 적용하는 기업도 많은 편이었다.

<표 IV-6> 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적용 글로벌 표준

국제기준		GRI	UNGC	ISO 26000
회사				
해외	Hochtief	●	●	
	Vinci	●	●	●
	Skanska		●	
	Strabag	●		
	Bouygues	●	●	
	Bechtel			
	Saipem	●		
	Technip	●	●	
	Bilfinger Berger		●	
	Bovis lend Lease	●	●	

자료 : 각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노한균, 건설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17(1), 2013.2, p.49.

2)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총 10개사인데, 이들 기업의 보고서 작성 기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기업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KPMG 조사 결과, 글로벌 250대 기업의 89%, 49개국의 상위 100대 기업(총 4,900개 기업)의 75%가 보고서 작성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건설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장 보편적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GRI 가이드라인을 모든 기업이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앞서 KPMG 조사 결과 글로벌 250대 기업의 75%, 49개국의 상위 100대 기업(총 4,900개 기업)의 63%만이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건설기업이 가장 최근의 GRI 기준인 GRI 표준(Standards)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GRI 표준의 두 가지 대안(option) 중 핵심적 부합 방법(Core Option)을 많이 적용하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GRI 표준(Standards)의 포괄적 부합 기준(Comprehensive option)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는 특징을 보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건설산업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GRI Standard 외에 UN Global Compact, SDGs 등의 기준을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 표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지속가능경영에 선도적인 일반 및 건설기업의 경우 GRI 가이드라인 외에 UN Global Impact의 10대 원칙, UN SDGs의 기업 목표와의 연계 등도 적극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좀 더 다수 기업이 GRI 가이드라인 외의 글로벌 표준에 대한 적용도 적극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7>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글로벌 표준 적용 실태

구분	보고서 작성 기준	구분	보고서 작성 기준
삼성물산	▪ GRI Standards Core Option ▪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부분 적용	현대엔지니어링	▪ GRI Standards Core Option ▪ UNGC 10대 원칙 ▪ ISO 26000 ▪ UN SDGs
현대건설	▪ GRI Standards Comprehensive option ▪ UNGC 10대 원칙 ▪ ISO 26000	롯데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 UN SDGs
GS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SK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대우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두산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 ISO 26000
포스코건설	▪ GRI Standards Core Option	삼성엔지니어링	▪ GRI Standards Core Option

주 :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10개 건설기업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기업이 위 기준 외에 국제회계기준(K-IFRS)도 기본적으로 적용함.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1)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표준 적용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PMG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이 지속 증가함과 동시에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다소 횡보세를 보이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는데,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증 비중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7년 기준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93%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중에서 67%의 기업이 제3자 검증을 받았다. 49개 국가의 각 상위 100대 기업, 즉 4,900개 기업 중에서는 2017년에 72%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고, 그중에서 45%의 기업이 제3자 검증을 획득했다.

<그림 IV-12>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기관 검증 추이



주 : N100은 2017년 조사 대상인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3,543개 기업 중에서 제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며, G250은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간한 233개 기업 중에서 제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의 비중임.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05~2017.

2)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국제적 표준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GRI 등 국제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18~2019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건설기업 10개사 중에서 1개 기업을 제외한 9개 기업이 제3자 기관에 의한 공식적 검증을 획득하고, 보고서에 검증서를 포함하였다.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건설기업의 90%가 제3자 기관에 의한 공식적 검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앞서 KPMG에서 2017년 조사한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및 49개 국가의 상위 100개 기업들의 제3자 기관 검증 비중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결과이다. 2017년 KPMG 조사에서 글로벌 250대 기업 중 233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중에서 67%만이 제3자 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총 4,900개 기업) 중에서는 3,543개 기업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중에서 45%의 기업만이 제3자 기관의 검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도 국내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기관 검증 현황

구분	검증 기관	검증 기준	구분	검증 기관	검증 기준
삼성 물산	한국경영인증원	- AA1000 AS (2008) - KMR 글로벌경영위원회 SRV1000	현대 엔지니어링	로이드인증원 (LRQA)	AA1000 AS (2008)
현대 건설	엔스테인 (Nstein Co., Ltd.)	- AA1000 AS (2008) - GRI Standards	롯데 건설	한국경영인증원	- AA1000 AS (2008) - KMR 글로벌경영위원회 SRV1000
GS 건설	THE CSR	- AA1000 AS (2008) - GRI Standards -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IRC)통합보고서 체계 (IR Framework)	두산 건설	(주)RBN	- GRI Standards - ISO 26000
대우 건설	(주)DNV GL코리아	- ISAE3000 - DNV GL의 VeriSustain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생산성본부	AA1000 AP (2018)
포스코 건설	(주)DNV GL코리아	- ISAE3000 - DNV GL의 VeriSustain			

자료 : 해당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동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는 해외에서는 다우존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이 있다. 다우존스는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편입을 위해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ESG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는 1999년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업인 스위스 로베코 샘(RobecoSAM)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기준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DJSI는 현재 전 세계 2,500개(유동 자산 시가총액 기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10%를 편입시키는 글로벌 지수인 DJSI World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20%를 편입시키는 지역 지수인 DJSI Asia Pacific,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30%를 편입시키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인 DJSI Korea로 구성되어 있다.

DJSI 중 가장 대표적인 DJSI World 지수에 국내 기업은 최근 6년 동안 20개 내외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가장 최근 평가인 2019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DJSI World 지수에 글로벌 2,526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6%인 318개 기업이 편입되었는데, 이중 국내 기업은 19개 기업이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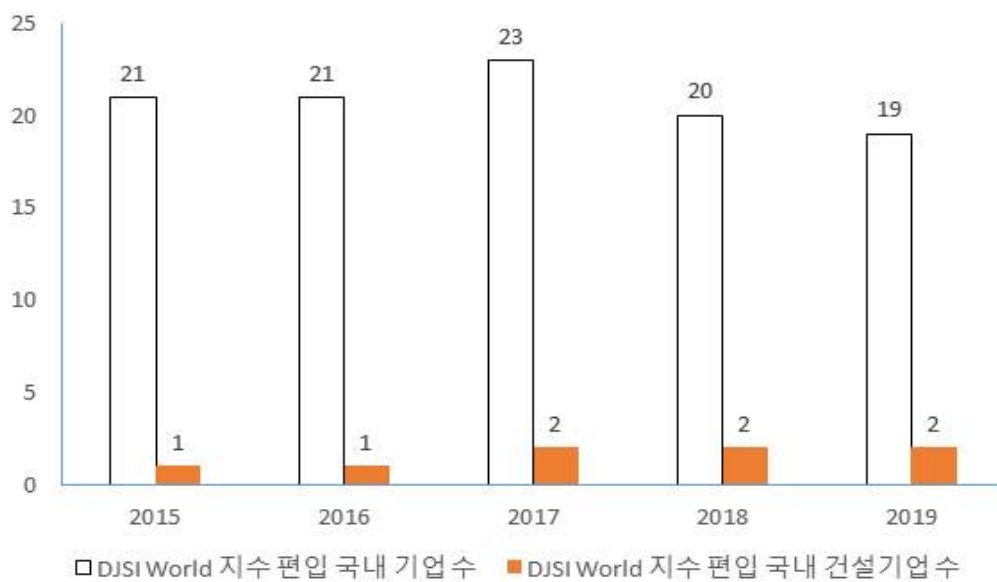
<표 IV-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편입 국내 기업 수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DJSI World 지수 편입 국내 기업	22	21	21	23	20	19
DJSI Asia Pacific 지수 편입 국내 기업	41	41	38	39	35	30
DJSI Korea 지수 편입 국내 기업	54	52	45	45	39	40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각 연도.

한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국내 건설기업은 2010년에 현대건설, GS건설이 편입되었고, 이후 현대건설은 최근까지 10년 연속 편입되었다. GS건설은 2010년 이후 4년 연속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었고, 삼성물산이 최근 3년 연속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DJSI World 지수에 주로 편입되었다. 즉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수준 상위 10%에 포함되는 국내 건설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2~3개 기업이 꾸준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건설기업은 스페인의 Ferroial, ACS, 독일의 HOCHTIEF 등이 있다.

<그림 IV-13> DJSI World 지수 편입 국내 기업 및 건설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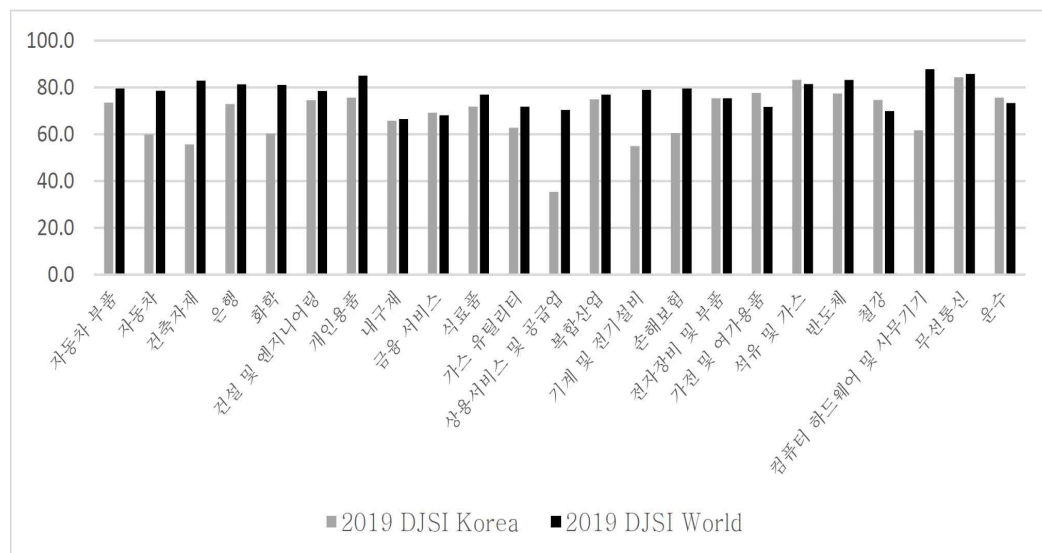


주 : 2015~2016년 DJSI World 지수 편입 국내 건설기업은 현대건설, 2017~2019년 DJSI World 지수 편입 국내 건설기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각 연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편입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점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76.1점이었으며, DJSI 3개 지수에 편입된 전체 국내 기업(총 43개)의 평균 점수는 이보다 7.4점(9.7%) 낮은 68.7점을 기록하였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점수는 산업별로도 비교해 제공되는데, 산업별로 2019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의 평균 점수 대비 국내 편입 기업의 평균 점수가 높은 산업은 석유 및 가스, 가전 및 여가용품 산업, 운수산업, 철강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건설기업이 포함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글로벌 편입 기업의 평균 점수 대비 약 3점 정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글로벌 주요 건설기업에 비해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일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DJSI에 편입된 전체 국내 기업의 평균 점수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점수 대비 7.4점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격차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건설기업과 글로벌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격차가 전체 국내 기업의 격차에 비해서는 양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편입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 평가라는 점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국내 타 산업에 속한 기업보다 양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림 IV-14> 2019 DJSI World 지수 편입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산업별 점수 비교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9.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E), 사회 책임경영(S), 지배구조(G) 수준을 평가하여 개별 기업의 ESG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ESG 평가 결과는 KRX 사회책임투자지수(SRI) 종목구성에 활용되고 있다. ESG는 2006년 유엔에서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을 정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인정받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시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9년에 상장사 875개사(코스피 746개사, 코스닥 129개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평가 결과, ESG 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A+등급이 8개사, A등급이 50개사, B+등급이 135개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25.9%에 해당하고, 전년인 2018년 평가 시에는 B+등급 이상의 기업 비중이 21.0%이었으므로 ESG 수준이 양호한 기업의 비중이 약 5%p 향상된 결과이다.

<표 IV-10> 코스피 상장사 대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고
	2019	2018	
S	-	-	
A+	8사 (1.1%)	11사 (1.5%)	▽ 0.4%p
A	50사 (6.7%)	41사 (5.6%)	▲ 1.1%p
B+	135사 (18.1%)	101사 (13.9%)	▲ 4.2%p
B	259사 (34.7%)	261사 (35.9%)	▽ 1.2%p
C	266사 (35.7%)	278사 (38.2%)	▽ 2.5%p
D	28사 (3.8%)	35사 (4.8%)	▽ 1.0%p
계	746	727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편, 국내 유가증권 상장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9년 ESG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ESG 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 B+등급 이상의 건설 기업 비중이 25.8%를 기록했다. 위에서 살펴본 전체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 결과에서 B+등급 이상의 기업 비중은 25.9%인데, 건설기업도 이 비중과 거의 동일한 25.8%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A 등급 이상의 기업 비중을 오히려 건설기업이 소폭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등급 미만인 B 등급과 C 등급 이하의 기업 비중을 보면, 건설기업이 B 등급 비중이 조금 더 높고, C 등급 이하 비중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로만 보면,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 한 평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IV-11>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대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전체 기업	건설기업	
		기업 수	기업명
S 등급	-	-	-
A+ 등급	8개사(1.1%)	1개사(3.2%)	삼성물산
A 등급	50개사(6.7%)	3개사(9.7%)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B+ 등급	135개사(18.1%)	4개사(12.9%)	대우건설,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삼호
B 등급	259개사(34.7%)	12개사(38.7%)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신세계건설, 신성이엔지, 남광토건, 고려개발, 화성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 한라
C 이하 등급	294개사(39.4%)	11개사(35.5%)	일성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범양건영, 삼호개발, 카뮈이앤씨, 에쓰씨엔지니어링, 동아지질, 신한, 한진중공업, 삼부토건
합계	746개사	31개사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를 기초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작성.

3. 소결 :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

① 국내외 기업들과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의 비교

첫째,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은 선도적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편이었으나, 이후 보고서 발간 기업이 단기간에 증가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여부는 우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1990년대 초반 환경보고서 등의 단편적 형태로 발간되기 시작해 1990년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증가세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2010년 광의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수는 6,000건을 상회했다. KPMG에서 전 세계 주요국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002년 18%에 불과했던 보고서 발간 비율이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7년 조사에서는 72%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시작은 글로벌 선도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급속히 증가하던 시기에 보고서 발간이 시작되었다.

한편,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이보다도 다소 더 늦은 편이었는데,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의 Skanska사가 1996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Technip, Strabag 등이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비해서도 다소 늦은 편이었다. 다만, Vinci, Bechtel 등 일부 선진 건설기업들이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포함한 것에 비해서는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0년에는 삼성물산과 더불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STX건설 등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8개사, 2014년에는 10개사의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비교적 단기간에 보고서 발간기업이 증가했다.

둘째,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속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총 10개사인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이내 대형 건설기업들을 위주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2017년 KPMG 조사에서 전 세계 49개국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72%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73%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국내 건설기업은 최근 10년 동안 8~9개사 정도인데, 이 중 2011년에는 25%의 건설기업만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동 비율이 급격히 상승해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80% 내외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66.7%, 2017년과 2019년의 75%를 제외하면 모두 2012~2019년 동안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 중 85% 이상이 모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은 KPMG 조사에서 2013년까지는 50%를 하회했다. 이를 감안할 때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PMG 조사 결과, 산업별 보고서 발간 비율을 보면, 2017년 기준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에 속한 건설 및 자재 관련 기업의 72%만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감안할 때도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KPMG 조사에서 우수 국가 그룹에 속한 영국을 비롯한 9개국의 경우 100대 기업 중 보고서 발간 기업의 비율이 90~99%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 대형 기업과 비교할 때는 아직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중견 건설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미흡하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방침과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기업이 다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위 이하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대그룹 계열사 3~4개사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30위 이내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반면, 50위 이하 건설기업의 경우는 일부 기업이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의 범주에 포함될 일부 방침을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고, 통합적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건설기업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율이 국내외 대형 기업의 보고서

발간 비율에 비해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중견 건설기업 이하로도 지속가능경영 추진이 확산되어 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을 설정하고, 관련 실적을 보고하는 노력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② 국내외 기업들과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비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표준 적용 수준, 제3자 기관 검증 수준,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가능경영 수준 평가 결과에 기초해 국내외 기업들과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모두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해외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GRI 가이드라인 외의 글로벌 표준 적용은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총 10개사인데, 이들 기업은 모두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KPMG 조사에서 글로벌 250대 기업의 89%, 49개국의 상위 100대 기업의 75%가 보고서 작성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장 보편적 글로벌 표준인 GRI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 표준인 GRI Standards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었다. 다만, 해외 선도적 일반 및 건설기업과 달리 GRI 가이드라인 외에 UN Global Impact의 10대 원칙, UN SDGs의 기업 목표와의 연계 등은 일부 기업만이 적용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었다.

둘째,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제3자 기관 검증도 해외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건설기업 10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9개사가 제3자 기관에 의한 보고서 검증을 받고 있다. 이는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의 67%만이 제3자 기관 검증을 받고 있고,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중 45%만이 제3자 기관 검증을 받는 것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치이다.

셋째, 글로벌 건설기업과 국내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동 평가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건설기업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국내 건설기업 간의 점수 차이는 약 3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글로벌 기업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국내 기업의 점수 차이가 약 7점 정도인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이다.

한편, 국내 상장사 대부분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결과, ESG 수준이 양호한 B+ 등급 이상의 기업 비중이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다우존스의 평가에 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는 거의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란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평가 결과로 판단된다.

③ 종합 소결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국내 건설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이 해외와 국내 타 산업에 속한 기업, 해외 선진 건설기업에 비해 다소 늦었으나, 최근 들어 보고서 발간 실태와 보고서의 글로벌 표준 적용 및 제3자 기관 검증 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 역시 해외 및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매출 상위 100대 대기업 중 90% 이상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상위 9개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보고서 발간 비율이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글로벌 표준 적용 및 제3자 기관 검증은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보다도 훨씬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이었다.

단, 10대 대형 건설기업 이외의 중대형 건설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이 대그룹 계열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다수 중대형 건설기업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연차보고서 등에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성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1위 이하 기업들의 경우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의 일부 단편적 부분만을 추진하고, 종합적 지속가능경영 추진 역시 미흡

하여 향후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적용 표준을 GRI 가이드라인에 국한하지 않고, UN Global Impact 10대 원칙, UN SDGs 등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계량적 목표치와 실적치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대형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수준의 발전적 개선을 통해 현재 DJSI World 지수에 2개 건설기업만이 편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편입되는 국내 대형 건설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선진 건설기업 중에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했고, 지속가능경영 최고 선진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Skanska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 선도적인 기업 중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세 기업을 사례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⁷⁾

1. Skanska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분석

Skanska는 1887년 스웨덴에서 시멘트 회사로 시작한 건설기업으로 1990년대 들어 M&A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ENR Top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Skanska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997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에 서명 기업으로 참여하였고, 2004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의 반부패연대의 창립자 중 하나로 참여하였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 지속가능경영 반영 기업의 미션 및 핵심 가치 설정

7)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최소 7회 이상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그리고 보고서가 GRI 표준(Standards)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제3자 기관의 검증을 실시한 기업, 마지막으로 최근 2019년 이후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기업을 선별하였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외에도 GRI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최소 7회 이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2019년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있으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5위 사이 2개 기업, 6~10위 사이 1개 기업을 선별한 결과, 세 기업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Skanska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We build for a better society’로 정하고, 4대 핵심 가치(Core Values)를 지속가능경영의 주제와 생명, 윤리, 투명성, 협력 등을 강조하는 가치들로 선정했다. 즉 선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한 기업답게 기업의 기본 존재 목적과 운영 철학에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상당 부분 투영시키고 있다.

<그림 V-1> Skanska의 존재 목적 및 핵심 가치

존재목적 (Purpose)	‘We build for a better society’
핵심 가치 (Core Values)	✓ Care of Life ✓ Act Ethically & Transparently ✓ Be Better-Together ✓ Commit to Customers

2)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및 목표 설정

Skanska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를 안전보건, 윤리, 녹색환경, 지역사회공헌, 다양성 포용의 5가지로 선정하고 있다. Skanska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5가지 주요 지속가능경영 분야별로 UN의 지속가능 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3) 지속가능경영 주제(Topics) 선정

Skanska는 GRI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방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경영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1가지 이슈를 Skanska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경영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의 주제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 Skanska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및 주제(Topics)

핵심 분야	주제(Topics)
윤리(Ethics)	- 뇌물 및 부패(Bribery and corruption) -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안전보건(Health and Safety)	작업환경의 보건안전(Safe and healthy work environment)
녹색환경(Green)	- 기후변화 영향(Impact on climate change) - 에너지 절감(Energy efficiency) -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 자재의 지속가능성 확보(Sustainable materials) -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
지역사회공헌(Community Investment)	-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Responsible supply chain) - 공정한 인력 채용 및 인사(Fair and decent employment)
다양성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 포용성 및 차별금지(Diversity, inclusiveness and non-discrimination)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 환경경영

1997년에 첫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2000년에 전 세계 모든 사업부를 대상으로 환경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고 있다.

①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Skanska는 에너지, 탄소, 자재, 용수의 4가지 영역과 관련한 배출량, 사용량 등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친환경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45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Skanska 내부 가치사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의 가치사슬, 그리고 프로젝트 준공 이후 사용 단계에서의 가치사슬도 포함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다. 또한,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의 짙은 녹색(Deep Green) 영역에 모든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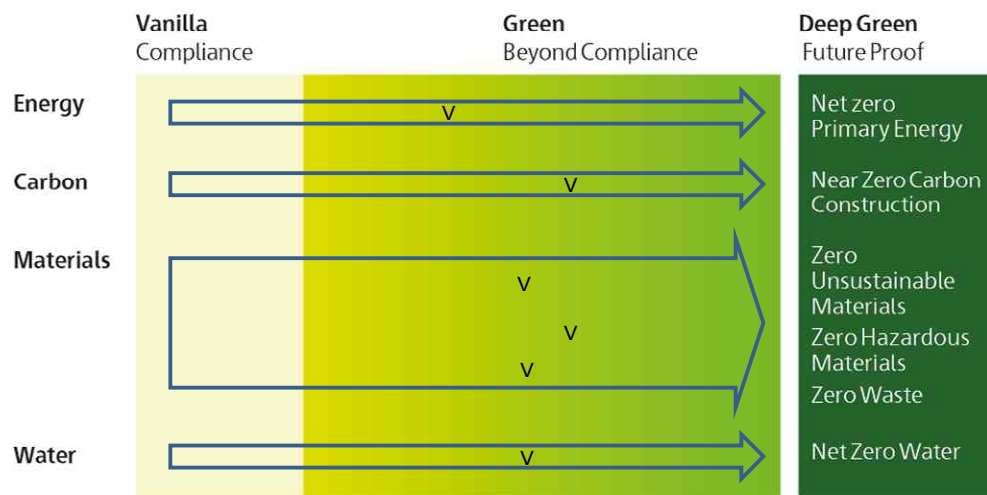
② 친환경경영 관리시스템(EMS)과 Color Palette 활용

Skanska는 친환경경영을 위해 환경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친환경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를 활용해 환경경영 목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경경영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경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인 녹색전략지표(GSI : Green Strategic Indicators)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별로 성과를 측정한다. 특히 분기별로 녹색전략지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이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과 이행을 지속한다.

2009년 도입된 Color Palette라는 도구를 활용해 모든 프로젝트의 친환경 수준을 바닐라(Vanilla), 녹색(Green), 짙은 녹색(Deep Green)의 3단계로 구분한다. 바닐라 단계는 건설 프로세스와 건설상품이 환경 관련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는 영역으로 친환경 경영의 출발점이다. 녹색 단계는 법규 및 표준을 초과 달성하는 영역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단계이다.

짙은 녹색 단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a near-zero impact level)의 단계이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Color Palette를 활용해 평가하는데, 2018년에는 녹색 및 짙은 녹색 단계에서 그룹 전체 건설 매출의 46%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43.4%에서 3%p 가까이 향상된 성과이다.

<그림 V-2> Skanska의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



주 : v 표시는 현재 기업의 수준에 대한 예시적 표시임.

자료 : Skanska 홈페이지.

③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

Skanska는 자사의 환경경영 경쟁력을 자본조달에도 활용하고 있다. 자사의 금융사업부(Financial Services)를 통해 2014년 처음으로 그린 채권(green bond)을 발행했다. 2018년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사업을 위해 10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해당하는 제2차 그린 채권을 발행했으며, 나스닥의 지속가능한 채권시장(Nasdaq Sustainable Bond Market)에 상장되었다. 그린 채권(green bond)은 해당 채권 발생으로 조달된 자금을 LEED, BREEAM, DGNB 또는 Nordic Swan Ecolabel과 같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 유통되는 채권이다. 현재 Skanska가 그린 채권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LEED의 플래티넘(Platinum) 혹은 골드(Gold) 수준의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채권 외에도 Skanska 금융사업부는 2017년 4개 은행과 협력해 20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달하는 그린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금융사업부가 관리하는 부채는 총 43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달하는데, 이 중 85%는 그린 채권, 그린 대출 등 녹색 금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안전보건경영

Skanska는 안전보건영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부가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 표준인 ISO 45001의 인증 완료를 추진하였다.

① 안전정책선언문

Skanska는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로 보고 4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Care for Life를 채택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6년 2가지 안전정책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We work safely, or not at all)”, 그리고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멈춘다(We never walk by if we notice unsafe actions)”이다.

② 안전보건매뉴얼

Skanska는 국제표준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표준인 ISO 45001 등을 참조하여 자체적인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표준은 16개 모듈로 구성되며,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표 V-2> Skanska의 안전보건매뉴얼 내용

구분	내용
근로자 기초 교육	▪ 새로운 작업장 배치 근로자의 기초 안전 교육
사고 관리	▪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조치 등을 수집, 전달 절차
위험 평가	▪ 안전 위험 식별 및 평가, 직원 브리핑 절차
개인보호 장비	▪ 개인보호 장비 유형 및 착용 규칙
현장 차량관리	▪ 작업장에서 차량 이동 및 제어에 관한 규칙
기반시설 관리	▪ 현장의 가스, 수도, 연료, 구조물 및 기타 위험시설 등의 관리 규칙
전기안전	▪ 현장의 전기시설 관리 규칙
고소작업	▪ 고소작업 위험 관리 규칙
임시구조물	▪ 임시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
굴착	▪ 굴착, 참호작업 등의 절차 및 관리 규칙
리프팅	▪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의 장비 관련 안전 규칙
밀폐공간	▪ 환기, 화재 위험 등이 있는 밀폐공간 관리 규칙
화재예방	▪ 화재 통제 및 비상대응 규칙
고정시설	▪ 모든 유형의 고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
물품관리	▪ 차량의 안전 적재/하역 포함해 반입, 반출 물품의 관리 규칙
안전감사	▪ 내부 안전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규칙

③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Skanska는 기본적으로 그룹 리더십팀(GLT) 이하 라인관리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는 가운데,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표 V-3> Skanska의 안전보건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조직	역할 및 책임
위계 조직	그룹 리더십팀(GLT)
	▪ Skansk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보건 관련 궁극적 책임
	국가 안전보건 리더십팀(National Safety Leadership)
전문가 네트워크	▪ 각 국가별 사업부의 안전보건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업부 기반의 다기능 팀
	사업부 관리팀
	▪ 사업부 내 여러 성과관리와 동시에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 구체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자원과 조직 확보, 보건 및 안전 절차 관리 및 보고의 책임
안전성과 네트워크(SPN)	안전성과 네트워크(SPN)
	▪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으로 GLT의 전문가 자문 역할을 수행 ▪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일상적으로 지역 클러스터 그룹, 주제별 그룹, 학습 그룹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
글로벌 안전 리더십팀(Global Safety Leadership Team)	글로벌 안전 리더십팀(Global Safety Leadership Team)
	▪ Skanska 전역의 Safety Peer Review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한 사업부에서 다른 사업부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

④ 안전보건로드맵 및 매트릭스

2011년 Skanska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 관련 활동 및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안전보건로드맵을 개발하였다. 로드맵은 6가지 영역을 포괄하는데, 건강과 안전 문화,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역량 향상, 건강안전 문제 커뮤니케이션, 통제방안, 통제방안의 구현 및 모니터링, 계약자와 계약 및 감독, 직원의 건강과 웰빙 참여 등의 영역이다. 2018년에는 건강복지매트릭스를 개발해 로드맵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⑤ 안전주간(Skanska Safety Week) 활동

2005년부터 매년 안전주간을 지정해 전 건설 현장 및 사무실에서 안전보건 관련 수천 가지의 활동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2019년에는 안전주간 동안 건강진단,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 및 복지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신체 건강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시현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안전주간의 활동들을 직원뿐 아니라 하청업체, 설계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⑥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전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성과를 측정, 모니터링하여 관련 통계를 본사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는 LTAR(Lost Time Accident Rate)이 있다. 이는 100만 근무시간당 하루 이상의 작업 손실을 초래한 작업장 사고의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그만큼 사소한 안전사고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06년 이후 LTAR을 기초로 전 사업장의 안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2005~2010년 동안 LTAR 50%가 감소했다. 한편, 지표 모니터링을 위해 2008년 이후 ESSV(Executive Site Safety Visits) 제도를 도입했는데, 2019년에 총 4,034회의 ESSV가 이뤄졌다.

3) 인권경영 :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

Skanska사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과 자국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인권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① 비전 및 전략

Skanska는 인재 채용 및 육성,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성별, 인종, 연령, 배경 등과 관련한 차별을 배제하고, 다양성과 포용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있다. 다양성과 포용이 추구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설정했는데,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조직의 리더를 다양성을 포용하는 리더로 육성하고, 그 결과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 관련 리더로 인정받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림 V-3>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 비전

- ✓ 첫째,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Mirrors the diversity in society at all levels of our organization)
- ✓ 둘째, 포용적인 조직문화 육성에 뛰어난 리더를 보유한다
(Has leaders that are excellent at fostering an inclusive culture)
- ✓ 셋째, 시장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리더로 인정받는다
(Is recognized as a leader in diversity and inclusion in all home markets)

다양성과 포용의 비전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4가지 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4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인재의 채용과 육성, 조직문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과 업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4>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and Inclusion)을 위한 4가지 전략

- ✓ 첫째, 많고 다양한 인재 후보군에서 직원 채용
(Attract and recruit from a large and diverse pool of talent)
- ✓ 둘째, 다양한 인재 개발(Develop a diverse pool of talent)
- ✓ 셋째, 포용하는 조직문화 보존(Secure an inclusive work culture)
- ✓ 넷째,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장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 활용
(Leverage D&I in the marketplace in partnership with customers, suppliers and communities)

② 주요 활동 및 성과

여성 공학자 육성을 위해 매년 ‘세계여성공학인의 날’을 지정하여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 중 중급 이상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리더십 과정을 거쳐 관리자 역할로 채용한다. 여성 인력을 비롯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을 위한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재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12주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 본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선호하지 않았던 인재 후보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매년 다양성과 포용 관련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 3~6%p 좋은 결과가 항상 도출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위 임원 7명 중 3명이 여성 임원이며, 다양성과 포용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한 2014년 이후 여성 직원의 비율이 14%에서 17%로 증가했고, 고위직(Level 3~6)의 경우 17%에서 22%로 증가했다.

4) 윤리경영

Skanska사는 윤리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자사 및 협력회사의 윤리규범 구축, 윤리 프로그램 이행, 윤리문화 형성 등의 방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①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본사와 사업부 차원의 윤리위원회, 그리고 윤리 및 준법감시 책임자를 두고 있다. 윤리 관련 이슈나 제보가 있을 경우 본사와 사업부 차원에서 모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윤리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② 윤리규범(Code of Conduct)

윤리규범은 반부패, 내부자 거래 및 제재, 개인정보 등의 분야별로 주요 지침과 사례들을 담고 있다. 자사의 윤리규범뿐 아니라 협력회사에 적용할 핵심적 윤리규범도 작성하여 모든 협력회사가 동 윤리규범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사의 경우는 자사의 윤리규범에 이 윤리규범을 적용해야만 계약관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윤리 및 준법경영 실행을 위한 문화 형성

전 직원은 입사 후 1달 이내에 윤리규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이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리 딜레마에 대한 직원의 정기적 토론을 장려해 조직 내 윤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윤리규범으로 규정할 수 없는 윤리 분야의 ‘회색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윤리적 딜레마가 포함된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관리자와 상담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익명으로 제보나 문의가 가능한 핫라인(hot line)을 운영하되 외부인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5) 지역사회공헌(Community Investment)

Skanska는 지역사회공헌을 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고,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영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고용, 교육, 사회적 영향을 감안한 설계(Design for social impact)이다.

<그림 V-5> Skanska의 지역사회공헌(Community Investment) 3가지 핵심영역



고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공헌 분야로 판단하고, 자사뿐 아니라 협력회사, 고객 그룹과 더불어 고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

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문 및 견습과정을 제공하고 일부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주위 교육기관의 엔지니어링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후변화 등 건축 및 프로젝트 개발 분야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1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Skanska에서 견습과정을 거쳐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제적 경험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본사의 일부를 개방해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을 감안한 설계 분야에서는 우선 프로젝트 추진시 지역주민 및 단체, 지자체 등과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대화,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코자 하고 있다. 스웨덴 중부 뢰브로(Örebro)의 Vivalla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감독업무 경험까지 제공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 낙후된 지역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공공 카페 및 문화공간을 건립해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에게 식사와 더불어 독서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미국 보스턴에서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청년 쉼터인 Y2Y Harvard Squa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분석

현대건설은 2010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2013년 이후 6년 연속 건설산업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 지속가능경영 목표, 전략 및 실행 방안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터전(Sustainable Habitat for Human)’을 제공하는 것을 지속가능경영 관련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다. 이 미션하에 3대 지속가능경영 목표, 5대 지속가능성 영역, 7대 추진 전략을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대 목표의 달성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별 기한이 명시된 정량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핵심성과평가지표(KPIs)도 연계해 목표 달성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림 V-6>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7대 추진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동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7대 추진 전략별 실행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4>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7대 추진 전략별 실행 방안

7대 추진 전략	실행 방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가치 창출 -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 확대	- 토털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역량 확보	-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연구개발 네트워크 확대 - 기술개발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후변화 대응	-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강화 - 환경에너지경영 효율성 제고	-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 탄소경영 추진 강화
안전환경 인프라 강화	- 안전경영 체계 강화 - 안전경영 활동 확대	- 친환경 설계 및 구매 - 친환경 시공 및 철거
혁신 인재 육성	- 차별 없는 인재 확보 - 혁신 역량 강화	- 소통과 신뢰의 기업문화 - 일과 삶의 균형
밸류체인 역량 강화	-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 - 협력사 소통 강화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 사회공헌활동 강화 - 글로벌 사회공헌 확대	- 핵심 사회공헌활동 전개 -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2)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GRI 표준(Standards)을 기준으로 매년 현대건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3단계에 걸쳐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슈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검증 기준인 AA1000이 요구하는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의 3대 원칙을 반영해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이슈 도출 과정에는 인터뷰, 설문조사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V-7>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절차

STEP 01. 이슈 식별	STEP 02. 중요이슈 도출	STEP 03. 타당성 검증
내·외부 환경 분석 및 등종기업 이슈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이슈 도출 - 미디어 자료분석 - 동종업계분석 - 중요 이슈 검토 - 대내외 경영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및 영향 평가를 통한 중요 이슈 도출 -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신뢰성 검토	중요 이슈 타당성 검증 - 범위,경제,기간 적합성 확인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대건설은 지속가능성 이슈의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해 식별된 이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 20대 중대 이슈, 30대 핵심 이슈 및 일반 이슈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후 중요도가 높은 20대 중대 이슈를 가장 중점 관리하고, 핵심 이슈와 일반 이슈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표 V-5>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및 중대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 영역	GRI Standards Topic	지속가능성 이슈
STRATEGY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 및 보고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지배구조, 윤리 및 청렴성	▪ 준법·투명경영강화 ▪ 지속가능경영 선도 ▪ 선제적 리스크 관리 ▪ 공정경영 및 공정거래 정착 ▪ 지배구조 건정성 확보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AGENDA 01 전략경영	전략과 분석, 조직 프로파일, 경제적 성과, 간접 경제효과	▪ 경영성과 및 경제적 가치 창출 ▪ 핵심전문역량 기반 신사업 추진 ▪ 사업진출 국가법규준수 ▪ 경쟁력 우위 공중 중심의 시장확대 ▪ 원가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
AGENDA 02 환경경영	원료, 에너지, 수자원, 생활 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 원료, 에너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확대 ▪ 에너지 관리 및 사용 저감 ▪ 온실가스 관리 및 배출 저감 ▪ 자재 및 자원사용 저감 ▪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 용수관리 및 사용 저감 ▪ 사업 추진시 생물 다양성 보호
AGENDA 03 기술경영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및 라벨링, 고객정보 보호	▪ 핵심기술 역량 강화 ▪ 고객만족 및 고객가치 창출 ▪ 친환경 연구개발 및 설계 경쟁력 제고 ▪ 제품/서비스/품질 혁신 ▪ 브랜드 관리 및 시장선도
AGENDA 04 인재경영	고용, 노사관계 작업장 보건안전 훈련 및 교육, 다양성 및 기회균등, 평등한 보상	▪ 국내외 안전보건 관리 및 재해율 저감 ▪ 임직원 경쟁력 제고 및 실행력 강화 ▪ 선진기업문화 조성 및 정착 ▪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평등기회 보장 ▪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 ▪ 노사 공동이익추구
AGENDA 05 상생경영	공급망, 지역사회	▪ 공급 지속가능성 강화 ▪ 협력사 평가 고도화 및 역량 강화 ▪ 동반성장 추진 및 협력사 지원 ▪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 지역사회 기여 및 투자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본 절에서는 공통적 지속가능경영 분야인 환경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현대건설의 구체적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경영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7대 추진 전략 중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안전환경 인프라 강화 전략의 2가지 전략을 통해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V-6> 현대건설의 환경경영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추진 전략	실행 방안	추진 전략	실행 방안
기후변화 대응	-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강화 - 환경에너지경영 효율성 제고 - 환경에너지경영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 탄소경영 추진 강화	안전환경 인프라 강화	- 친환경 설계 및 구매 - 친환경 시공 및 철거

① 실행 방안 1 :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강화

‘Global Green One Pioneer’ 비전하에 203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환경에너지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로드맵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 구매, 운송, 시공, 철거 및 운영에 이르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환경에너지경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사 및 현장별 환경에너지 방침 및 목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 관리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환경 정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6대 추진분과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환경경영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V-8> 현대건설의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조직체계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실행 방안 2 : 환경에너지경영 효율성 제고

2013년부터 친환경 통합 환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ISO 14001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에너지경영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1개 환경에너지경영 매뉴얼, 15개 사내 규정, 4개 프로세스 및 4개 기술표준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구축한 'H-PMS(Hyundai-Projec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배출 허용량(BOD, COD, SS, 비산먼지 등) 초과 여부 등의 환경성적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③ 실행 방안 3 : 환경에너지경영 모니터링·대응

매년 국내외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점검과 계절요인을 감안한 '환경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평가점검 결과는 현장 소장, 팀장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며, 현장별 관리현황 또한 준공 평가점수에 포함되어 우수 현장에는 별도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환경 리스크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점검을 실시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해 환경에너지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현장은 동 체계를 준수해 연 2회 이상 환경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사고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④ 실행 방안 4 : 탄소경영 추진 강화

'2030 Global Green One Pioneer' 비전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국내외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52.5% 감축(2015년 대비)'을 목표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목표는 현대건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범위(scope 1, 2) 이외에도 협력회사 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 3)를 포함하여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최적화, 그린 캠페인(Green Campaign), 임직원 온실가스 대응 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과 본사에서 온실가스 저감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사업부문별 대표 현장을 선정해 현장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전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 현장의 온실가스 발생 추이 예측/경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를 출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⑤ 실행 방안 5 : 친환경 설계 및 구매

에너지 저감·용수 절감·생태환경 배려·쾌적한 주거환경을 4대 친환경 설계요소로 정립하고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100% 에너지 저감 주택의 구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내 공기 질 개선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 친환경 구매 기준 HEGS(Hyundai Environmental Goods Standard)를 구축하여, 친환경 제품·자재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자재는 인증 기준에 따라 총 8개 코드(HEGS 1~8)로 분류되며, 각 현장에서는 코드별 자료를 현장 및 구매담당자의 개별 실적으로 관리해 친환경 구매를 독려한다.

⑥ 실행 방안 6 : 친환경 시공 및 철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해 자재의 정확한 수량과 원가를 산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에서 빗물저장설비, 지하수 활용을 위한 지하수 디워터링(de-watering) 설비 등을 활용하고, 비산먼지 방지용 용수탱크차 대신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용수 소비량을 절감하고 있다.

친환경 시공 점검·관리와 관련해 매년 국내외 전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 및 내부 심사를 실시해 현장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환경 영향을 파악, 관리하고 있다. 비산먼지 관리, 폐기물 관리, 소음 관리 등 세부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오폐수 발생 현장에 대해 정화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속적인 수질 검사 등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관리한다.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응 가이드’를 작성하여 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도 나고야 의정서를 기초로 현장 주변의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공계획 수립 시점부터 생태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며, 지형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와 공법을 최대한 적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 전 현장에 환경부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과 환경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인 H-PMS(Hyundai-Project Management System)를 연동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사업 부문별·업체별·종류별 폐기물 총량과 비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지침, 대기 환경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2) 안전경영

① 안전경영 추진 전략 및 성과 관리

매년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재해율 50% 저감을 안전경영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제 안전보건 규격인 OHSAS 18001 및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HDEC 12 Safety Golden Rules)’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KPI를 현장에서 본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후적 재해율 평가에서 나아가 사전적 안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 단위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연계하고 있다.

<그림 V-9> 현대건설의 안전경영 추진 전략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안전경영 추진 조직체계

안전경영 전담 조직인 안전팀을 사업본부별로 설치하고, 2012년부터 안전경영 및 보건경영 시스템을 통합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2017년에는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술안전 업무의 컨트롤 타워인 기술안전 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③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전 임직원과 현장별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한다. 2018년 이후에는 근로자 눈높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대 위험작업에 대한 가상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 10종의 특별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개발해 9개 국어로 번역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현장소장 전파교육 제도 도입을 통해 매월 우수/실패 사례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교육과 더불어 매월 국내외 전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층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는 현장 안전 진단과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며, 2018년에 최고경영층이 주도하는 경영층 안전점검을 국내외 현장에서 총 1,689회 실시하였다.

3) 윤리 및 준법경영

① 윤리·준법경영 규정 및 추진 조직체계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뿐 아니라 계열사 및 협력사에도 적용하고 있고, 정기적 검토, 개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해설서 제공으로 윤리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조직체계는 국내법무실이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총괄하고, 매월 준법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본부별로 준법담당자, 팀/현장/지사별 준법 실천 리더를 임명하여 윤리·준법 자율점검 등 조직단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V-7> 현대건설의 윤리·준법경영 추진 체계

구분	역할 및 책임
국내법무실 준법지원팀	- 전사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 및 수행 - 준법협의체 운영
각 본부 준법 담당자(정/부)	- 본부별 컴플라이언스 총괄 및 준법지원팀 협조 - 본부 윤리/준법문화 조성 - 윤리/준법 점검 현황 모니터링 - 실천 리더 현황 관리
팀/현장/지사별 준법 실천 리더	- 조직단위 컴플라이언스 활동 수행 - 윤리/준법 자율점검 - 기타 윤리/준법 요구사항 수행

② 윤리·준법경영 주요 활동

□ 윤리·준법경영 교육 및 상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총 168회 윤리·준법경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룹웨어 온라인 윤리·준법상담 센터 내 윤리경영 실천 Q&A를 운영하여 실제 업무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 사이버 감사실 윤리·준법경영 제보 및 조치

사이버 감사실 운영을 통해 부정비리 제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제보받으며, 해외 사업장 관련 영문 사이버 감사실과 해외 국가별 핫라인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익명 제보 독려 및 제보 내용 비공개 처리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고, 유효제보 확대를 위해 협업시스템에 사이버 감사실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국내외 당사 구매·외주 협력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 협력회사 포함 가치사슬상의 윤리·준법경영 확대

협력회사의 윤리 실천강령을 수립하고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매년 협력회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 총 872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현대건설 윤리실천 강령을 공유하고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였다. 특히 합작회사나 해외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필수적으로 윤리규범의 준수 및 윤리경영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4) 사회공헌

① 사회공헌 추진 전략 및 조직체계

현대건설은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 그룹의 사회책임 비전과 철학을 반영한 6대 무브(Move)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기부금 집행과 전문성 있는 사회공헌 운영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 외부 사회공헌 전문 협의체와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V-10> 현대건설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 및 조직체계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사회공헌 성과관리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도와 체계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사회공헌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사회공헌활동 성과를 본부별 KPI에 반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사회공헌 지속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③ 글로벌 건설업 공유가치창출사업(CSV) 추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공유가치창출사업(CSV)을 발굴해 진출 지역사회와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CSV 사업인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설립을 통해 현대건설의 안전 전문가와 배관·용접 기술 전문가의 교육 제공 등 건설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2016년 베트남 하노이공업전문대학에 완공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4호’는 ‘건설 안전학교’와 ‘자동차 정비기술학교’를 설립,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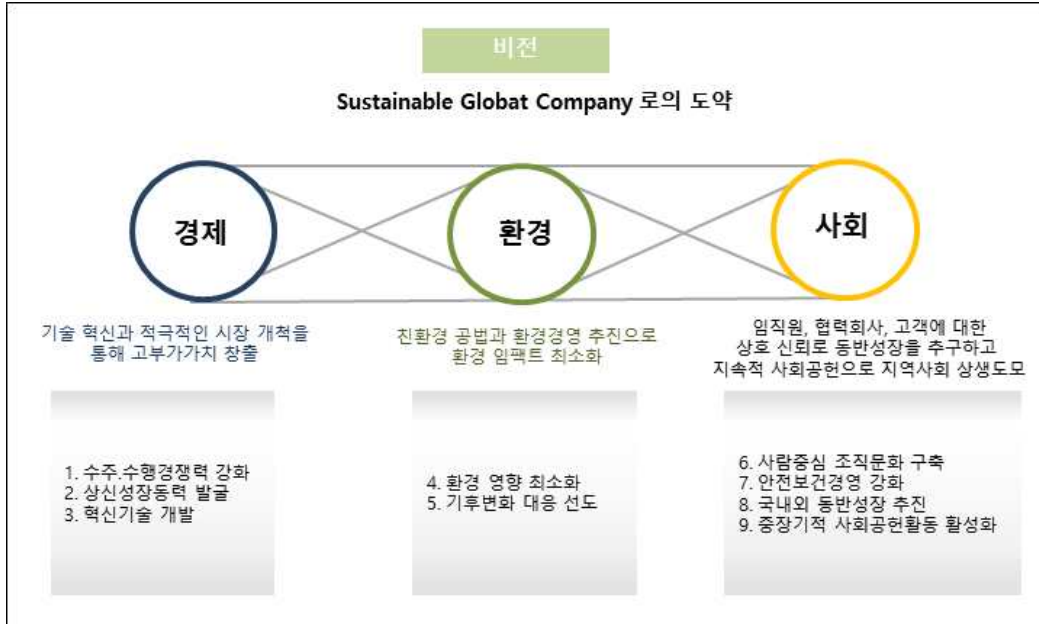
GS건설은 2011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2010년 9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첫 편입되면서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 평가되었다.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표준(Standards)을 준수함과 동시에 GS건설이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에 보고한 데이터와 평가결과를 연계해 정보공개 책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GS건설은 ‘Sustainable Global Company’로의 도약을 지속가능경영 비전으로 제정하고, TBL 모델에 의거해 경제, 환경, 사회 분야별 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V-11>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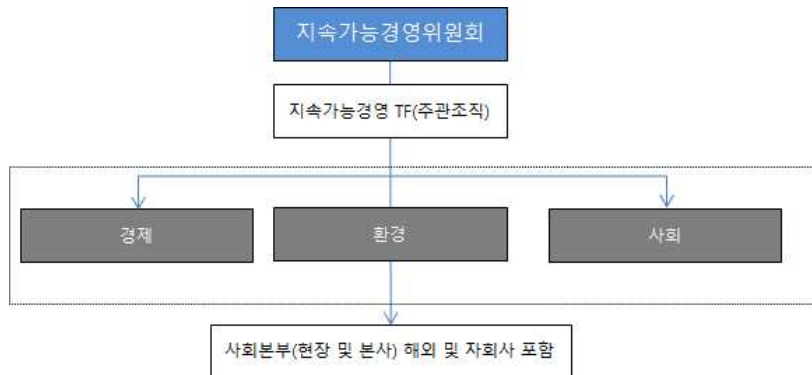
2)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GS건설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경영 방침 설정, 활동 및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다양한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실행 주체는 본사와 국내외 법인 및 지사, 현장, 자회사 모두가 포함된다.

3)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GS건설은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분석 등의 관련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 절차를 거쳐 24개의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12개의 이슈가 회사의 중대 이슈로 선정되었다. 중대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20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매년 7대 이해관계자 그룹의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GS건설의 경영에 중요한 이슈 및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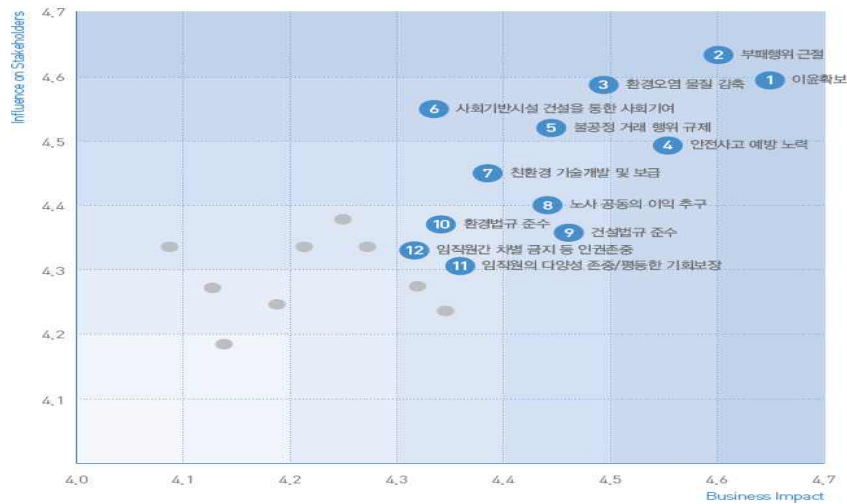
<그림 V-12>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성	활동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 4명	지속가능경영 연간 활동 내용 점검
지속가능경영TF	경제,환경,사회 부분 30여개 관련부서	통합보고서 발간 및 CSR 관련 외부평가(DJSI,ESG,CDP등) 대응

자료 : GS건설 홈페이지.

<그림 V-1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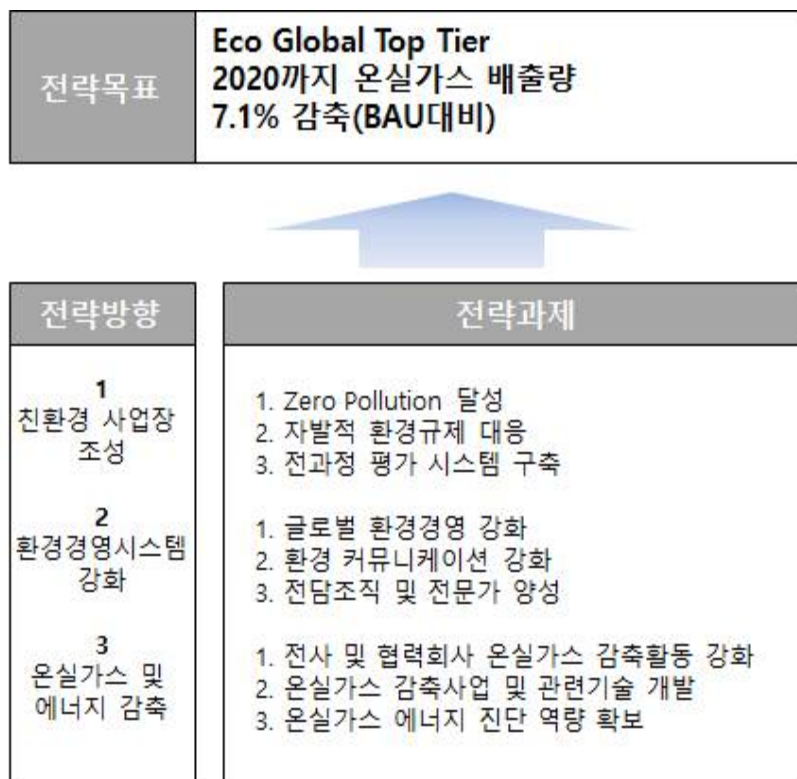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 환경경영

① 환경경영 전략 및 추진 조직체계

GS건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 사업장 조성,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의 3대 전략 방향과 9가지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립된 전략 및 과제는 환경경영 전담조직인 녹색환경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림 V-14> GS건설의 환경경영 전략 체계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환경경영 수칙 개발 및 이행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환경 위반사항을 ‘필수환경수칙’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말 ‘모바일 필수환경수칙 자체 점검 앱’을 개발, 현장에서 쉽게 환경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장 자체 점검 데이터를 취합,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현장별, 공종별, 환경 위반 사항들을 분석해 현장에 알맞은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시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전 현장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 정보를 관리하고 녹색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규 기업 등록시 친환경 자재 품목 및 인증정보별로 정리하고, 이를 가산점으로 관리하여 협력회사의 녹색인증을 유도하고 있다.

③ 주요 활동 1 : 자원 및 에너지 절감

□ 그린콘크리트 개발 및 현장 사용

부산물 활용을 통해 시멘트 사용량을 저감시킨 그린콘크리트를 개발하였으며, Pre Mix 설비를 구축하여 고강도와 품질의 우수성도 확보하고 있다. 2018년 홍덕파크자이 외 4개 현장에 적용하여 12.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빗물 및 하수 재활용 체계 구축

GS건설은 유류 및 LNG 저장탱크 충수 시험시 사용되는 용수를 중수로 사용하고 있다. 안양열병합발전소의 경우 2018년 1만 1,000m³에 달하는 여과수 탱크 1대와 2,000m³ 용량 순수 탱크 2대의 충수 시험시 중수를 재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수비용 73% 절감과 함께 한국 인구 27일 에너지 사용 가능량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고, 3.1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역삼투막을 이용한 최첨단 하수 재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9만m³(톤)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고효율 에너지 빌딩 건축

그린빌딩 및 그린홈 등 효율적 에너지 절감 설계 방안을 수립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

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 최적설계 기술을 개발, 적용하였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 기술은 주한미군이전(YRP) 통신센터, 진천선수촌 등에 적용되었고, 2018년에는 DGB혁신센터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아 준공되었다.

□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운영

ICT, IoT,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솔루션(최적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상수도 설계운영을 실시간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브라질 상수도 건설 및 운영사업에 적용해 물 공급량을 평균 25%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④ 주요 활동 2 : 온실가스, 폐기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활동

친환경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린 콘크리트 사용, 화상회의 활용, LED 조명 전력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이런 친환경 활동을 통해 총 9,014 tCO₂-e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표 V-8> 온실가스 감축 실적

(단위 : tCO₂-e,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총배출량	286,412	285,234	291,233
감축 실적	50,517	37,586	9,014
절감 추정액	9,685	8,487	2,392

주 : 감축 실적 및 절감 추정액에는 가설 LED, 그린콘크리트, 화상회의, KVER 실적이 포함됨.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실시간 폐기물 관리

폐기물에 대해 분리수거, 처리, 보관 및 재활용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 법적 처리 시스템과 기업 내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연결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은 6개의 주요 건설폐기물로 구분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 폐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매립, 소각 비율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인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재활용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지침을 작성하였다. 2018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공구, 새만금동서2축도로 건설공사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세륜슬러지인 건설오니 폐기물을 총 107.2톤을 재활용했다. 폐기물 관리 활동을 통해 2018년에는 재활용처리 폐기물량이 2017년 대비 168% 상승하였다.

□ 미세먼지 저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광학적 불투명도 관리 기준 전면 도입에 앞서, 비상 저감 조치 발령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 시간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건설현장 소음 관리

현장 소음, 진동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및 실시간 소음 외부 공개, 에어방음벽·이동식 방음벽, 이동식 방음 패널 설치, 알루미늄 거푸집 해체시 드롭다운 시스템 적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현장 소음측정 및 차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소음관리 앱을 개발해 소음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장비 부착형 소음센서, 무소음 드론, 3D 소음지도 등 최첨단기술 개발과 동시에 ‘Noise Barrier’를 개발하였다. 우수한 차음성, 경량화 및 친환경적인 Noise Barrier를 활용하여 현장 발생 소음을 최대 50% 저감하였다.

2) 안전보건경영 분야

‘계획하고 알려주고 행동하자’라는 방침하에 ‘중대재해 ZERO(추락·장비 사고 근절)’ 달성을 위해 선진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QHSE 운영위원회 등 안전보건 추진 조직체계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혁신학교’를 통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① QHSE 운영위원회 운영

QHSE(안전·보건·환경·품질) 운영위원회를 활용해 안전보건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QHSE 운영위원회는 최고 안전책임자(CSO)가 주관하고 각 사업 본부장이 참석하는 전사 위원회로 사내 안전보건 및 환경, 품질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2019년에는 각 사업 부문(본부) 본부장, 주요임원 및 직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회 위원회를 개최해 안전보건 관련 경향, 이슈 분석을 실시하고 재해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② 안전신호등 제도

안전신호등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결과를 ‘녹색, 노랑, 적색’의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호등 평가결과 안전 수준이 미흡한 현장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개선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작업의 경우, 집중 점검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한다. 안전신호등 평가에서 3회 연속 ‘녹색’ 등급을 받은 모범 현장은 1년간 자율적 안전 활동을 부여하고 모범 인증패와 상금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③ 안전혁신학교 설립 및 운영

2006년 국내 건설업 최초로 안전보건 체험형 교육 기관인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했고, 2018년 국제표준기구(ISO)의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ISO29990) 인증을 취득했다. 7,270m² 부지에 2개의 강의장과 6곳의 체험시설을 갖추었으며, 건설공사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직접 경험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의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기별 특별 안전교육 등 체험과 기능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법정 교육인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교육을 안전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회사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VR(가상현실)체험 안전보건교육 8종을 자체 개발하고 업무 협약을 통한 교

육 콘텐츠 8종을 확보해 총 16종의 ‘VR 체험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현장교육 지원 실적이 2017년 대비 96%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세계 최대 차량기지 건설공사인 싱가포르 T301 현장에 안전혁신학교 분교(약 200평)를 설립하여, 국내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상생경영

① 상생경영 추진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GS건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협력 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TCP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V-15> GS건설의 상생경영 추진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금융지원

경영지원금, 상생예금, 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지원금 제도는 선급금 형태의 지원금 제도이며,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누적지원금이 총 930억원에 달한다. 상생예금은 은행과의 협약으로 직접 예금을 출연해 추천

협력회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협력회사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시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결제 비율을 지속 개선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현금 지급 비율이 2010년 50%대에서 2018년 90%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을 10일 이내로 지정하고,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최단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다.

□ 교육지원

자이 경영자 교육과정을 통해 협력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재무 및 리더십 교육, 건설시장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회사의 입찰·사업 수행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장소장 등 협력회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품질, 환경, 노무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비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공동연구를 실시해 공동 개발한 기술을 수주단계부터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지적재산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개발 기술의 공동 특허출원 및 디자인 등록을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경영지원 및 소통 활성화

마지막으로 협력회사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매년 자이 CEO포럼에서 GS건설 임원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상생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우수협력회사를 시상,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협력회사 서브콘 보드(Subcon Board) 등 다양한 오프라인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창구 ‘GS Partner’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업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②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

GS건설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유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 걸쳐 9대 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 평가 시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협력회사와의 일회적 사업 성공뿐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표 V-9> GS건설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분야	9대 요소	세부 활동
경제	1. 제품책임	▪ 품질교육 및 기술지원 ▪ 정기적 내·외부 감사 실시
	2. 정도경영	▪ 청탁·뇌물·금품 항응 수수 및 접대금지 ▪ 반독점 준수 ▪ 내부고발제도 구축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이해관계자 정보보호 및 기업 기밀정보 보호
	3. 공급망관리	▪ 친환경 자재 선정 및 공급 ▪ 정기적 공급망 감사 및 평가 ▪ 공급망 내 계약상 무리한 요구금지
환경	4. 환경정책	▪ 협력회사 환경기준 제시 ▪ 공사 수행시 환경평가 실시
	5. 친환경 활동	▪ 설계, 시공 등 전 단계 친환경 경영 실천
	6.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지원
사회	7. 노동관행	▪ 최저임금 준수 ▪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 (채용, 승진, 해고, 성과보상 등)
	8. 인권보호	▪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차별금지 ▪ 국내외 기준에 따른 노동인권 원칙 준수 ▪ 강제·아동노동 금지
	9. 안전·보건	▪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법률 준수 ▪ 현장별 안전 관리 ▪ 안전교육 통한 안전의식 제고

4) 윤리경영

1994년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하여 윤리경영을 본격 추진했으며, 윤리제도 구축, 윤리 교육·홍보, 윤리감독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있다.

①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 방향

윤리경영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제도, 감도, 교육, 문화의 4가지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림 V-16> GS건설의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 방향

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

윤리경영 추진방향

1. 제도 : 지속적인 윤리 경영 정책 및 제도 개선
2. 교육·홍보 :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3. 감독 : 임직원의 건전한 직무 윤리 관리 감독
4. 문화 :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문화 정착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로 윤리위원회와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실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정책과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윤리경영 활동과 결과를 점검한다. 위원장은 CFO가 수행하고 운영위원은 각 사업본부 기획 담당 임원과 지원부서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플라이언스실은 CEO 직할 조직으로 윤리경영 제도 정비, 윤리교육 및 홍보, 비윤리 행위 모니터링 및 감사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③ 윤리경영 추진 활동

□ 전 직원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 실시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현장방문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전 임직원 대상 연 1회 필수로 실시하고 있고, 집합교육은 입자자, 주요 직군 및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방문 교육은 현장을 방문해 자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윤리경영에 대한 자율적인 실천을 장려하고자 전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서약을 받고 있다.

□ 수행 프로젝트 Patrol 점검 및 이슈 진단

윤리경영 위반 및 위협 요소에 대해 'Patrol 점검'과 'Issue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Patrol 점검'은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미준수 사항, 현장의 현안 파악 등을 통해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다. 'Issue 진단'은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등 이슈가 되는 사항을 집중 진단 후 필요한 시정·개선 조치를 수행한다. 2018년 22건의 'Patrol 점검'과 11건의 'Issue 진단'을 실시했다.

□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운영

비윤리 행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 전화·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실이 즉시 조사하고, 제보자 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있다.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2018년에는 55건의 제보 조사를 실시했다. 비윤리 행위 관련 임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협력회사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협력회사 윤리경영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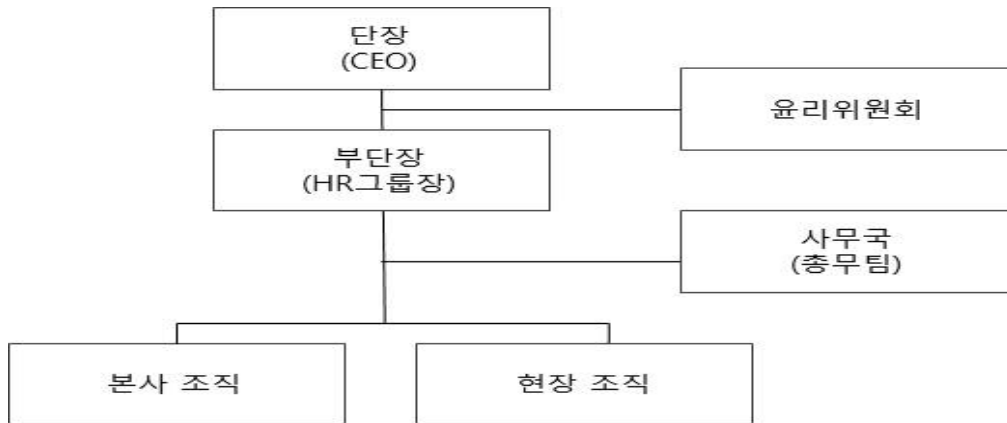
GS건설은 윤리현장과 규범에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 포함되어 있고, 협력회사와 거래 계약시 청렴이행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한, GS건설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 부정비리에 대해 사이버 신문고 등을 통해 협력회사 관계자의 제보 접수를 받고 있고, 포상금 지급과 더불어 해당 협력사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5) 사회공헌

① 사회공헌 추진 체계

'Great Partnership. 존중하고 소통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사회공헌의 핵심 가치하에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환경 및 안전 분야로 구분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조직 체계는 사내 봉사단인 '자이사랑나눔 봉사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하되, 현장 인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을 7개 단위로 묶어 현장 인근 지역의 노후 복지시설 보수, 물품지원, 수해복구 및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V-17> GS건설의 사회공헌 추진 조직(봉사단) 체계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관리체계

전사적으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투입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즉 투입비용 대비 사회공헌활동 성과와 영향력을 분석해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 평가 틀인 LBG(London Benchmarking Group) 모델에 의거해 현금기부, 시간기부, 현물기부, 경영비용 4가지 범주로 성과 기준을 분류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③ 사회공헌활동 다양화 및 주요 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환경 및 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균형 잡힌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꿈과 희망의 공부방과 놀이터’ 설치 활동이 있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은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GS건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데, 임직원이 직접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수혜 아동의 공부방을 쾌적한 환경으로 꾸미고, 학습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수도권역 저소득 세대 30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공부방을 시공하여, 누적 260호점까지 완공하였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프로그램은 기존 놀이터의 틀에서 벗어나 텃밭 가꾸기가 가능한 생태놀이 공간 등 친환경적이며 교육적인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를 설치, 기증하고 있다.

<표 V-10> GS건설의 사회공헌활동 분야 및 주요 활동

분야	주요 활동
사회복지	▪ 연말 저소득층 김장김치 ▪ 연말 불우이웃돕기 ▪ 노경공동 홀몸어르신 지원 ▪ 1사 1병영 군부대 지원 ▪ 사랑의 연탄배달 ▪ 부산청년 셰어하우스
교육 · 문화	▪ 꿈과 희망의 공부방 ▪ 즐거운 방과후 교실 ▪ 장학금/학습 지원비 지원 ▪ 저소득층 교복 지원
환경 · 안전	▪ 꿈과 희망의 놀이터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자료 : GS건설 홈페이지.

이외에도 ‘셰어하우스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개보수’, ‘1사 1병영’,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신규 활동을 도입하였다. 셰어하우스 지원은 나홀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 셰어하우스 5호점까지 완공하였으며, 총 25명의 청년들이 입주하였다. 해외 현장에서도 인근 지역사회 요구 및 기대사항에 부응해 현장별 기부금 전달, 필요 물품 지원 등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

롯데건설은 2013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RI 표준(Standards)에 기초한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및 보고를 매년하고 있을 뿐 아니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초한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도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및 체계

1)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시민’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목표하에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Value Chain 전 단계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한 경제적 성과 확대, Compliance 강화/공정거래와 사회공헌 실천을 통한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효율적 자원 사용과 친환경 건설현장 구현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등이다. 이는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의 기본적 개념과도 일치하는 추진 방향이다.

롯데건설은 세부적으로 7개 영역별 지속가능경영 전략 목표와 전략 방향도 설정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7가지 영역별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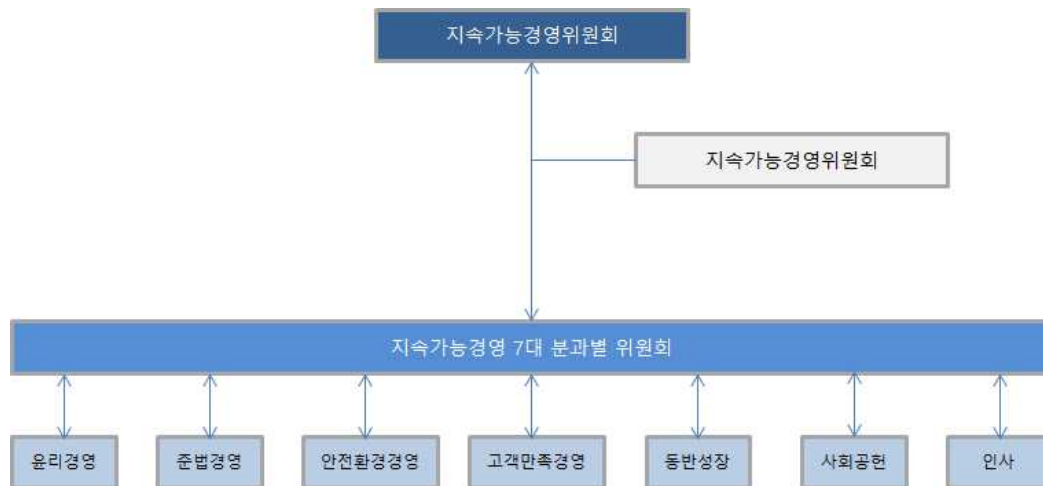
<표 V-11>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방향

구분	전략 목표	전략 방향
윤리경영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기업 달성	1 윤리경영 추진 체계 고도화 2 임직원 윤리인식 내재화 3 윤리경영 소통 제도 활성화
준법경영	Compliance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1 효과적 Compliance Program 운영 2 임직원 준법의식 고양 및 체질화 3 사전적 리스크 관리
안전환경 경영	사고사망자 ZERO 원년 달성	1 기술안전 강화 2 장비안전 강화 3 안전문화 강화
	환경처분율 ZERO	1 친환경 의식 확대 2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 3 환경규제 선대응 체제 구축
고객만족 경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감동과 더 나은 가치 제공	1 고객 Needs 기반 상품 개발 2 정밀시공 및 품질혁신 3 고객 서비스 강화
동반성장	공정거래와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 선도기업	1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2 파트너사 지원체계 강화 3 파트너사와의 신뢰 구축
사회공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랑나눔 기업	1 대표 사회공헌 사업 확대 2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전개 3 자발적 임직원 참여문화 정착
인사	미래가치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기업	1 다양성이 기본이 되는 문화 조성 2 기업문화 실행력 강화 3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2)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CEO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7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실행 조직인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분과별 세부 전략 방향 및 실행, 성과관리, 외부 정책 및 규제 대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준법경영 분과위’를 신설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가 참여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진단, 관리하고 있다.

<그림 V-18>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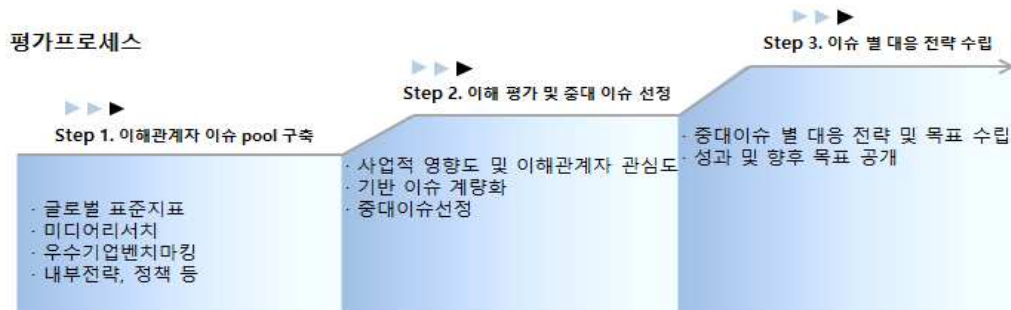


자료 :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GRI 가이드라인, ISO 26000, UN SDGs 등 글로벌 표준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이슈 후보를 구성 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성 평가는 미디어 리서치, 우수기업 벤치마킹, 내부 전략 및 정책 이슈 분석과 내·외부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실시하는데, 2018년에는 총 45개의 이슈 중 16개를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다. 한편,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을 확인하고자 이해관계자 그룹별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집된 의견들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V-19>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 절차



자료 :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주요 분야별 지속가능경영 추진 내용

1) 환경경영

① 환경관리 추진 체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안전환경경영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는 전사 환경경영 전략 수립·실행, 환경 분야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1996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래 환경경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개정된 ISO14001 인증 기준에 따라 규격 전환을 실시하여 2019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② 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 친환경 설계 및 구매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건물의 자재 및 기타 자원, 설계, 구조 및 기능적 측면에서 녹색 건축 인증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건축 전문가 자격(LEED AP) 취득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상품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 구매와 관련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지난 2009년 체결한 이래로, 친환경 자재 구매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친환경 인증 제품 공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 건설현장 환경관리 강화 및 사이버 모니터링

건설현장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착공 시 환경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환경영향 요인을 파악하며, 환경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초 계절별·월별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정기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KPI에 반영하고, 우수한 현장에 대한 포상과 미흡한 현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점검시 현장과 파트너사의 감독자를 대상으로 강평과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환경관리에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태, 대관 신고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현장 감독자는 환경관리 온라인 시스템에 점검 현황을 매월 등록하고, 본사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장과 본사의 교차 점검을 통해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 현장 중심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현장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와 방안을 설정하고 현장 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전등 자동소등기 설치, 고효율 LED 램프로의 교체 등 온실가스·에너지 저감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환경관리 캠페인 및 교육 강화

매월 1회 환경의 날을 개최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관리 의식 제고, 환경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비산먼지 관리, 온실가스 저감, 불법소각 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포스터를 현장에 게시하고 있다.

캠페인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각 현장의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환경관리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법규와 실무지침을 담은 환경관리 수첩을 자체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고 있고, 사내 인트라넷에 현장별 환경관리 우수 사례와 부적합 사례, 언론 보도사례 등 현장 환경관리 교육자료를 게시해 현장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안전보건경영

① 안전보건경영 추진 체계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 및 실무 총괄 전담부서 운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안전환경경영 분과위에서 안전보건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실무담당 부서로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안전보건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부문은 안전보건 전략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과 건설업계 동향을 파악해 전략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점검·평가하며, 관련 분야의 임직원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부문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안전환경경영 분과위에도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본사 직영 안전지원단 제도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 18001과 ISO 45001을 취득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본사 안전지원단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체계를 확립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매월 간부사원 이상 임직원으로 구성된 ‘고위험 안전 공유회의’를 통해, 고위험 작업의 안전 점검 프로세스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 현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장에서는 매 분기별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하고, 안전 및 보건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현장 안전관리 상황 및 성과 관리, 사고예방 활동, 개선방안 논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②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활동

□ 위험성 평가시스템 강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위험등급별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 정성적인 평가뿐

아니라 사고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등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위험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해빙기, 작업활성기 등 안전 취약시기별 집중적인 현장 안전 관리와, 고위험 현장에 대한 본사 주관 점검·위탁 점검을 통해 대형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 타워 크레인, 리프트 등 고위험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년 대비 강화하였으며, 기술연구원과 각 사업본부 공사부문 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안전신호등 제도 운영

안전신호등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여, 현장의 안전 수준 평가 결과를 등급별 색상으로 표현해 임직원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시스템·행정·실행의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의 위험요인을 적시에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누구나 제안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장 안전관리자 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현장 근로자 보건 관리

현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액이 일정 기준(800억원) 이상인 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경력 3년 미만의 신입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기시설 설치·작업 환경 관리·유해가스 검출 유무 관리 등을 통해 보건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에폭시 등 78종의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를 통일화해 배포했고, 동절기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개정해 작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 안전교육 강화

임직원의 안전 의식과 안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 마련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내 강사를 활용한 현업 위주의 교육으로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에게 고위험 안전 사고 예방 능력 함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비 안전관리 등 5가지 주제를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기술직 및 안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③ 안전문화 정착

□ 안전 생활화 문화 선포

2015년부터 매년 전사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안전 생활화 문화 확산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I Respect U’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여 바른 호칭 사용 및 Clean-Zone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존중의 안전문화 확산과 청결한 현장 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있다.

□ 안전보건경영회의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경영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전사의 안전보건경영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보완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 안전소통의 날 시행

2016년부터 ‘안전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 임원과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안전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 52건을 처리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활동을 지원하였다.

3)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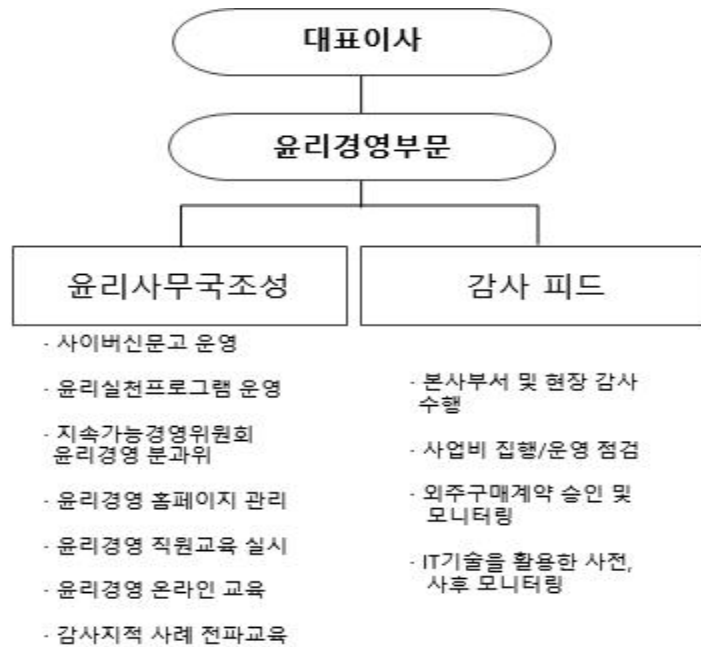
① 윤리강령 및 지침

롯데그룹 차원의 윤리규범 체계를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는데, 2000년 ‘롯데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2014년에 이를 보완한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기초로 롯데건설의 윤리규범인 ‘롯데건설 행동규범·행동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실질적 실천 지침인 ‘윤리경영 Q&A BOOK’을 배포했다.

② 윤리경영 조직

윤리경영 담당 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윤리사무국과 감사 파트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윤리사무국은 윤리경영 방침 전파,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감사 파트는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 파트에 현장 경험을 한 다양한 직군의 간부사원을 포함해 실질적 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V-20> 롯데건설의 윤리경영 조직 및 주요 수행업무



자료 :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③ 윤리경영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롯데건설 행동규범·행동준칙’을 교육하고 있고, 직무, 직군 및 직급별 특성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해외 거점의 현지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도 해외 법인·지사장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실천 점검

롯데인의 행동강령 4대 테마별 실천 현황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하는데, 매월 ‘윤리경영 실천의 날’을 시행하면서도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여 임직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점검하게 하고,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가 우수한 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포상하고 있다.

⑤ 비윤리 제보 Hot-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비윤리 제보 Hot-Line을 운영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자를 보장하고, 평균 10일 이내 제보에 대해 대응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제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음해성 제보를 방지하고 있다. 비윤리 행위 예방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의 명함에 사이버 신문고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⑥ 협력회사 윤리경영 강화 : 윤리서약/교육 및 정기 평가 실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파트너사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롯데건설의 윤리경영 정책을 설명하고 윤리적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전파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협력회사 평가 체계에 윤리경영 지표를 신설하여 협력회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있다.

4) 사회공헌활동

① 사회공헌 추진 전략

롯데건설은 대표 사회공헌사업 확대,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전개, 자발적 임직원 참여문화 정착의 3대 사회공헌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 실행과제를 도출해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즉 건설회사로서 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사회공헌을 추진하되, 수혜자가 필요로 하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사회공헌 추진 조직체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에 사회공헌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에서는 사회공헌 전략 수립, 대표 사회공헌활동 발굴,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사회공헌 기금 운영, 사내 봉사단인 ‘샤롯데 봉사단’ 운영 등을 총괄 기획, 관리하고 있다.

③ 대표 사회공헌활동

□ 매칭그랜트 사회공헌 기금 운영

2011년부터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도입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월 급여액 중 일정액 또는 끝전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후원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의 3배를 회사가 기부하는 ‘1:3 매칭 그랜트 제도’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전 임직원의 77%가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샤롯데 봉사단

사내 봉사단인 ‘샤롯데 봉사단’을 본사 각 부서와 국내외 현장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총 202개 팀이 누계 등록되어 있고, 그중 94개 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복지시설 방문, 급식지원 및 환경미화, 저소득층 대상 문화체험 지원,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이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임직원 다수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활동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건설업 특성을 적극 활용해 2012년부터 소외계층의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보호센터, 저소득층 세대 등이 노후화된 건물의 내·외부를 수리하고, 전자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시설개선 활동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현충원 묘역 현화 및 정화 활동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국립서울현충

원 묘역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참여 임직원과 가족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자매결연 묘역의 현화 및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5. 국내외 건설기업 사례 분석의 시사점

(1)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선 광범위하게는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모든 사례분석 대상 기업들이 다 포괄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추진 분야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공정거래 및 상생, 윤리 및 준법, 사회공헌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anska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고 자국 내 외국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5가지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중 5번째로 다양성과 포용 분야를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양성과 포용 분야는 국내 건설기업이 상대적으로 아직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나 다국적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와 관행을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해외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의 경영방식을 참조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과 전담 조직체계 운영

국내외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업은 자사 지속가능경영의 방침과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들도 도출해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경영 목표의 경우 정성적 목표뿐 아니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기후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 등과 연계해 정량적 목표를 단기, 중장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또한, 현대건설과 같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성과관리를 위해 목표와 연계된 정량적 핵심성과지표(KPIs)를 도출하고, 이를 기간별로 평

가하는 기업도 존재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 체계뿐 아니라 조직체계도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례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사회, 임원회의 등 최고 의결단계에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논의하고 의사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환경, 안전보건 등 핵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보좌할 지속가능경영 사무국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존재했으며, 별도 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기획부서 등에서 전담자를 배치해 지속가능경영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는 본사 단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전담 부서뿐 아니라 사업본부, 현장 단위별로 핵심 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본부와 실무팀을 연계해 핵심 분야별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본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담부서와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Skanska를 비롯해 몇몇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3)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분석 대상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글로벌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규정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징도 보였다. 대표적으로 UNGC의 10대 원칙,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ISO 2600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가장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GRI 가이드라인과 ISO 26000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해 세부적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는 국내 타 업종에 속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GRI의 최근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를 준수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GRI 가이드라인은 당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초점을 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 세부 핵심 분야별로도 ISO 14001, ISO 45001, OHSAS 18001, KOSHA 18001 등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적극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지속가능경영이 환경, 안전보건, 공정거래, 윤리 및 준법경영 등과 같은 세부 핵심 분야별 추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글로벌 표준의 적용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단, 이러한 세부 글로벌 표준의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추진 체계 마련 및 주요 활동 추진

사례분석 대상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방침과 목표, 전략 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뿐 아니라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별로도 목표와 전략 실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Skanska의 경우는 지속가능경영의 4대 핵심 가치를 환경, 안전보건, 윤리 등과 같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도출하였고, 각 핵심 분야별 목표와 전략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환경, 안전보건, 상생, 윤리, 사회공헌 등과 같은 핵심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 체계를 별도로 상세하게 갖추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사례분석 대상 기업들도 다수가 핵심 분야별 목표와 전략 체계를 갖추고, 전략과 연계된 주요 활동을 도출해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핵심 분야별 추진 조직체계와 관련해서는 본사 단위의 환경경영팀, 안전보건경영팀, 상생협력팀, 윤리경영팀, 감사팀, 사회공헌팀 등과 같은 기존의 부서를 활용하거나 부서를 신설해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본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담부서와 협조하에 핵심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고, 본사의 전담부서는 지속가능경영 모든 핵심 분야의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자사 및 협력회사 포함 확장된 가치사슬상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다수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자사의 가치사슬뿐 아니라 협력회사의 가치사슬까지 확장해 추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Skanska는 탄소 제로 목표와 같은 지속가

능경영 목표를 자사뿐 아니라 협력회사 가치사슬까지 포함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달성코자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별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협력회사를 평가해 협력회사 등록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국내의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환경경영, 안전보건경영 등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Skanska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협력회사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하도급업체 윤리규범에 반영해야만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협력회사뿐 아니라 합작회사나 해외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윤리규범의 준수 및 윤리경영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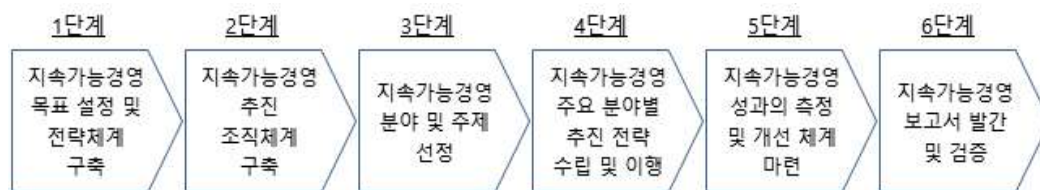
(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제3자 기관 검증

사례분석 대상 국내의 건설기업은 모두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목표와 활동, 성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글로벌 표준에 기초해 작성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보고서 발간의 의미를 넘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전략과 조직체계, 프로세스, 활동, 성과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사례분석 대상의 국내 기업들은 모두 GRI의 최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의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발간된 보고서에 대해 공인된 제3자 기관에 의해 보고서의 내용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관적 검증을 획득하였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보고서를 검증한 제3자 기관은 다양했는데, 이들 기관이 적용한 검증 표준은 AA1000, ISAE 3000 등 대부분 객관적으로 공인된 글로벌 검증 표준을 적용하였다.

1. 개요

본 장에서는 향후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적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 Global Compact의 지속가능경영 6단계 모델과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실천절차 모델이 있다. 이 두 모델과 함께 GRI Standards,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6단계 모델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VI-1>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6단계 모델



2.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 및 전략 체계 구축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해당 기업의 특성과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는 우선 전사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략별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 전사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전략과 전략별 실행 방안을 도

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환경, 보건 및 안전 등과 같은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분야를 자사에 적합하게 결정한 이후 분야별 전략과 전략별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S건설의 경우 전사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VI-1>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체계

3대 목표	정량적 목표치	7대 추진 전략	실행 방안
지속가능 제품 비율 확대 · 미래 핵심기술 역량 확보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20년까지 지속가능제품 매출비율 45% 달성 · 2022년까지 핵심 기술 역량 확보 연간 200억원 이상 투자 · 2015년 대비 2022년 온실가스 매년 2.1% 감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가치 창출 ▪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 확대 ▪ 토털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사업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역량 확보	▪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연구개발 네트워크 확대 ▪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후변화 대응	▪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강화 ▪ 환경에너지경영 효율성 제고 ▪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 탄소경영 추진 강화
		안전환경 인프라 강화	▪ 안전경영 체계 강화 ▪ 안전경영 활동 확대 ▪ 친환경 설계 및 구매 ▪ 친환경 시공 및 철거
		혁신 인재 육성	▪ 차별 없는 인재 확보 ▪ 혁신 역량 강화 ▪ 소통과 신뢰의 기업문화 ▪ 일과 삶의 균형
		밸류체인 역량 강화	▪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 ▪ 협력사 소통 강화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	▪ 사회공헌활동 강화 ▪ 글로벌 사회공헌 확대 ▪ 핵심 사회공헌활동 전개 ▪ UN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는 목표 달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 평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건설은 3대 목표별로 이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와 정량적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 평가시스템을 통해 목표 달성 평가 결과를 다시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설정에 연계해 수정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는 일반적으로 본사 단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사무국, 그리고 각 사업부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무조직 등이 필요하다.

<표 VI-2>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의 역할 및 구성

구분	역할 및 구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전략 체계의 승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의 점검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최고 의사결정 기능 수행 - 전원 사외이사 혹은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세부적 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 점검 등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분야별 사내 지속가능경영 총괄 책임자
지속가능경영사무국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원, 지속가능경영 총괄 기획 및 조정,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 점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총괄, 외부 평가기관 대응 등 - 본사 단위에 상설 부서 혹은 TF 형태의 부서로 운영(TF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본사 및 사업부 단위에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
지속가능경영 실무 추진 조직	-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내지 TF와 협업하여 실제 업무 수행 - 우선 본사 단위에 분야별 담당 부서 혹은 담당자 지정(예 : HSE팀, 고객만족경영팀, 윤리경영팀 등) - 각 사업부(본부) 단위에 분야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부서 혹은 담당자 지정 - 건설현장 단위에 분야별 업무 수행 담당자 지정

(1)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전략 체계의 승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의 점검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은 가급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건설의 경우 전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에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와 더불어 사내 임원 및 실무책임자가 포함되어 운영할 수도 있다.

(2)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다음으로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성과 점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내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사내 지속가능경영 업무 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본사 단위와 사업부 단위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진행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DJSI, ESG 등 외부 평가 대응 업무도 수행한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본사의 기획부서 등 적합한 부서 내에 별도의 상설 부서로 구성하거나, 지속가능경영TF와 같이 사내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들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임시 TF부서 형태로 운영도 가능하다. 다만, TF 형태로 운영된다하더라도 본사 기획부서 등에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총괄 수행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기업 규모가 큰 경우 지속가능경영업무만을 전임하는 전임담당자 배치도 필요하다.

(3) 사업부 단위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무조직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사무국 내지 TF와 협업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할 조직으로 우선 본사 단위에 분야별 담당 부서 혹은 담당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안전/환경업무를 수행할 HSE팀, 협력회사 관리 및 상생업무를 추진할 부서, 고객만족경영 업무 추진 부서, 윤리경영업무를 수행할 윤리경영 부서(혹은 담당자), 사회공헌 담당부서(혹은 담당자) 등의 단위 부서 혹은 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다. 본사 단위의 조직과 더불어 각 사업부(본부) 단위에도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부서 혹은 담당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단위별로 지속가능경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4) 성공요인

지속가능경영 추진 조직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내지 TF 총괄 담당자의 전문성과 기획조정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기초로 본사 및 사업부 단위의 관련 업무 담당자 간 원활한 협업 및 의사소통이 사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핵심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객관성과 더불어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의사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사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중대한 이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 선정

(1)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선정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⁸⁾와 분야별 주제(topic)⁹⁾를 선정하고, 핵심 분야별 주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 구축과 실행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

핵심 분야 선정은 지속가능경영의 범위인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범위 내에서 환경경영, 보건 및 안전경영, 윤리 및 준법경영 등 자사에 적합한 핵심적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1)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관련 글로벌 표준 및 선행연구

핵심 분야 선정과 관련해서 건설기업은 글로벌 표준과 국내외 건설기업의 사례 등을 참조해 자사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면 된다. 먼저, 글로벌 표준과 관련해서는 GRI 가이드라인과 ISO 26000 등에서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분야를 지배구조, 윤리 및 준법경영, 인권, 노동 관행, 보건 및 안전, 환경경영,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GRI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범위(scope)의 하위 개념인 분야를 측면(aspect)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는 보다 세부적인 지속가능경영 주제(topic) 내지 이슈의 상위 그룹을 의미한다.

9) 주제(topic)는 GRI 가이드라인상의 용어로 기업이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인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추진 경과와 성과를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주제를 말한다.

다음으로,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분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Petrovic(2009)은 17개 글로벌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건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경영, 보건 및 안전경영, 상생경영, 지역사회공헌이 건설업 특성상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12년 Zhao 외 3인의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건설기업에게 적합한 사회적 책임 지표(CSR indicators)를 개발하였는데, Petrovic(2009)보다 훨씬 폭넓게 대부분의 이슈를 사회적 책임 지표에 포함하였다. 최근 이명식(2019)의 연구는 건설기업 임직원,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ISO 26000의 39개 이슈 중에서 건설기업에게 중요한 이슈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경영 투명성,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부패방지, 공정경쟁, 환경오염 예방 등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가하였다.

<표 VI-3> 건설기업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

핵심 분야	Global Compact	ISO 26000	GRI	Zhao 외 (2012)	Petrovic (2009)	이명식 (2019)
윤리 및 준법경영	√	√	√	√		√
친환경경영	√	√	√	√	√	√
보건 및 안전경영	√	√	√	√	√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	√	√	√	√
인권, 노동관행 및 직원만족경영	√	√	√	√		√
소비자 보호 및 고객만족경영		√	√	√		
지역사회 사회공헌		√	√	√	√	

주 : Global Compact, ISO 26000, GRI 기준은 건설업에 국한하지 않은 일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이며, 그 외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임.

이상의 몇몇 연구자들이 주장한 건설기업에게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내지 사회적 책임 이슈는 모두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즉 단순한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을 넘어서 환경문제, 직원의 보건 및 안전, 협력업체와 상생 등의 이슈가 모두 건설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슈라고 보았다. 다만, Petrovic(2009), 이명식(2019)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속가능경영 분

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각각 4가지 분야만을 핵심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감안하면, 건설기업에게 가장 우선적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는 환경경영과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윤리 및 준법경영, 보건 및 안전경영, 인권 및 노동관행, 지역사회공헌 등이다.

2)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다음으로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통해서도 건설기업에게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역시 7개 분야가 대체적으로 건설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로 파악되었다.

<표 VI-4>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핵심 분야

핵심 분야	세부 주제 및 이슈
윤리 및 준법경영	▪ 준법 및 부패방지 ▪ 윤리경영 규정체계 및 매뉴얼 구축 ▪ 윤리경영 교육 및 Q&A시스템 구축 ▪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 및 평가/보상 반영
친환경경영	▪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 에너지 및 자원 절감 : 전력, 용수 등 ▪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비산먼지, 소음 등 ▪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자재사용
보건 및 안전경영	▪ 보건 및 안전 관련 법규 대응 ▪ 작업장 안전관리 ▪ 직원 교육훈련 ▪ 협력회사 교육훈련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 공정거래관행 확립 ▪ 우수 협력회사 공급망 구축 및 관리 ▪ 협력회사 역량 강화 지원 ▪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윤리/환경/안전경영 등) 유도 및 지원
인권, 노동관행 및 직원만족경영	▪ 직원만족도 제고 ▪ 일하기 좋은 직장 구현
소비자 보호 및 고객만족경영	▪ 고객만족도 제고 ▪ 품질향상 ▪ 고객서비스 및 민원대응
지역사회 사회공헌	▪ 기부, 자선 및 메세나 활동 : 건설업 및 자사의 특성과 부합한 활동 전개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 대상 활동 전개 ▪ 사내 봉사단 운영 ▪ 외부 자선 및 복지단체 등 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전개

주 :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함.

이 7개 분야를 기초로 각 건설기업은 분야별 주제와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소결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주제, 이슈 선정에 앞서 먼저 자사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결정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와 주요 건설기업 사례를 참조할 때 건설기업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윤리 및 준법경영, 환경경영,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 안전보건경영, 직원 및 고객만족경영, 지역사회공헌 등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기업의 경우 Skanska의 5가지 지속가능경영 핵심 영역 중 5번째인 다양성과 포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 중점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나 다국적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와 관행을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과 향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Skanska의 다양성과 포용의 경영방식을 참조할 필요성이 크다.

(2) 지속가능경영 주제(topic)¹⁰⁾ 선정

건설기업이 자사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결정한 이후에는 분야별로 향후 자사에서 관리하고,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세부적 주제(topic)를 선정해야만 한다. 주제 선정 절차는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보고서 작성시 가장 많이 기준으로 활용하는 GRI에서 권고하는 4단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제 선정시 GRI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인 AA1000 등이 요구하는 포괄성, 지속가능성, 중대성, 완전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주제(topic)는 GRI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주제 대신에 이슈(issue)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실제로 다수 국내 건설사들이 이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VI-2>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의 결정 단계와 적용 원칙



자료 :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G4 '이행 매뉴얼' 편, p. 38.

1) 1단계 절차 및 원칙

1단계인 파악 단계에서는 GRI Standards, ISO 26000 등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경영 주제, 혹은 이슈 중에서 자사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모든 주제를 파악한다. 동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은 자사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모든 주제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의 원칙, 자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포괄성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 자사의 모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자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건설의 경우 포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 벤치마킹, 국내외 동종업종 분석, 미디어 리서치 및 대내외 경영자료 분석을 통해 건설업종 이슈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주제 풀(pool)을 작성하고, 이 중 자사의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주제를 최종 선별하였다.

<표 VI-5>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주제 식별 방법

글로벌 스탠다드 벤치마킹	국내외 동종업종 분석
GRI Standards, ISO 26000, DJSI, UN SDGs, CDP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주요 트렌드 벤치마킹	국내 및 해외동종업종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이슈를 분석하여 관련 산업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파악
미디어 리서치	내부 경영자료 검토 및 인터뷰
현대건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국내 언론사에 보도된 관련 기사 분석	현대건설 경영환경을 둘러싼 내부 중요 이슈 반영을 위해 내부 경영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진행

주 : 4가지 방법을 통해 2019년 현대건설은 총 342개 건설업종 이슈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주제(topics) 풀(pool)을 작성하고, 이 중 자사의 경영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총 36개 지속가능성 주제를 선별함. 한편, 현대건설은 주제라는 용어 대신에 이슈라는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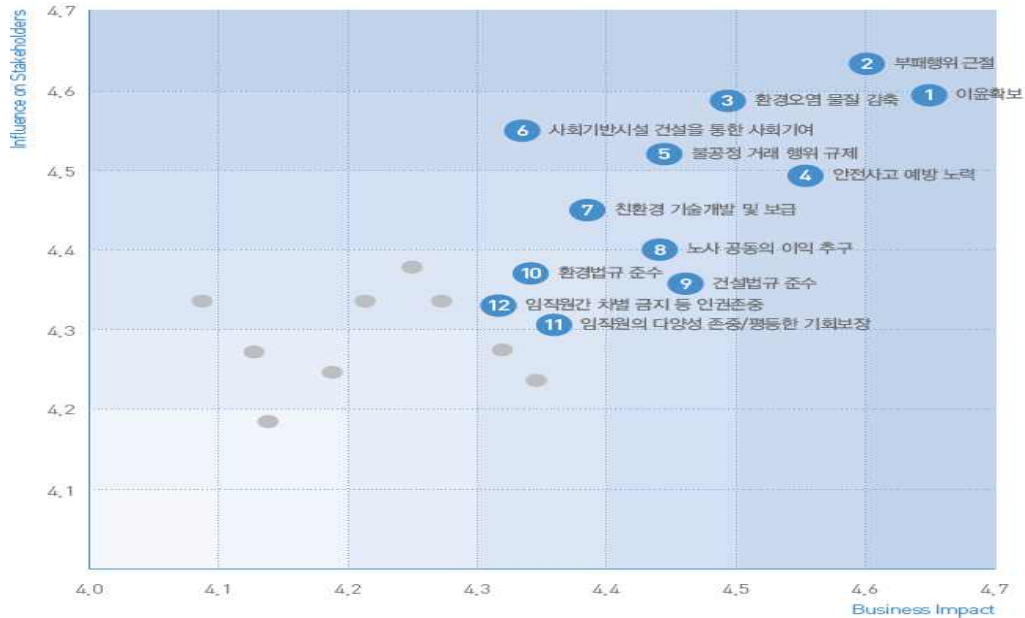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2단계 절차 및 원칙

2단계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주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동 단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과 더불어 중대성(materiality) 원칙이 적용된다. 중대성의 원칙이란 각 주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대성의 원칙에 기초해 건설기업은 1단계에서 파악된 주제들을 대상으로 각 주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측면의 중요성을 동시에 평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트릭스(matrix) 방법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측면의 중요성이 모두 높은 주제들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주요 건설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GS건설 등 다수 건설기업들이 중대성 매트릭스(materiality matrix) 방법을 통해 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그림 VI-3>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주제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편, 중대성 매트릭스에서 두 가지 측면의 중요성은 기업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해관계자 그룹과 외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약 10일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3단계 절차 및 원칙

3단계 유효성 검증 단계에서는 2단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선정된 주제들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하는 단계이다. 동 단계에서는 선정된 주제들이 자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중요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포괄성 원칙’과, 자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빠진 중요 주제는 없는지와 관련된 ‘완전성 원칙’에 의거해 주제들을 최종 검증한다. 검증 방법은 검증 원칙에 기초해 지속가능경영 업무담당 부서에서 1차 진행한 이후 경영진 보고와 의사결정을 통해 확정한다.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주제들을 검증한 이후에는 동 주제들을 기초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작성해 관련 성과를 보고한다.

4) 4단계 절차 및 원칙

4단계 검토 단계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초안 작성 이후 제3자 기관에 의한 검토 등을 통해 자사에서 최종 선정한 주제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다. 동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포괄성이다. 특히 제3자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과정과 보고서를 검토받을 경우 주제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건설기업들은 정기적으로(대부분은 매년) 이상의 4단계를 거쳐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주제(topic)를 파악, 결정하여 자사의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포괄성 측면에서 중대한 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속가능경영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1) 환경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 환경경영 추진 체계

① 주제(topics)와 목표 설정

환경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가장 핵심적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의 주제(topics)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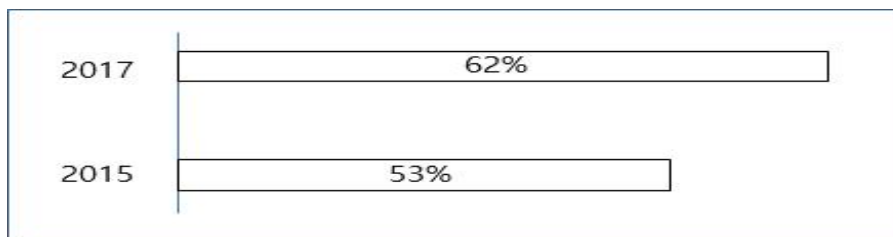
글로벌 표준과 주요 건설기업 사례들을 참조할 때 건설기업의 일반적 환경경영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최소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폐기물관리, 지속가능한 자재 사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I-6> 건설기업의 일반적 환경경영 주제(topics)와 목표 설정 예시

구분	내용
주제 (topics)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최소화 ▪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폐기물 관리 ▪ 지속가능한 자재 사용 등
목표	▪ 에너지, 온실가스, 자재, 용수 등의 환경경영 추진 영역 대상과 관련한 배출량, 사용량, 비용 등의 최소화 달성 목표 설정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절감 목표, 오염물질(건설폐기물/비산먼지/소음 등) 저감 목표,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자재 사용 목표 등

환경경영의 목표는 에너지, 온실가스, 자재, 용수 등의 환경경영 추진 영역을 대상으로 이 영역들과 관련한 배출량, 사용량, 비용 등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성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PMG의 2017년 조사에서 글로벌 상위 250대 기업 중 62%인 156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53%의 기업만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 기업 중에서는 23%의 기업들은 파리협약에 의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와 연계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49개국 상위 100대 기업, 즉 4,900개 기업 중에서는 2017년 기준 36%에 해당하는 1,765개 업체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VI-4> 글로벌 25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제시 기업 비중



주 :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 상위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KPMG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탄소배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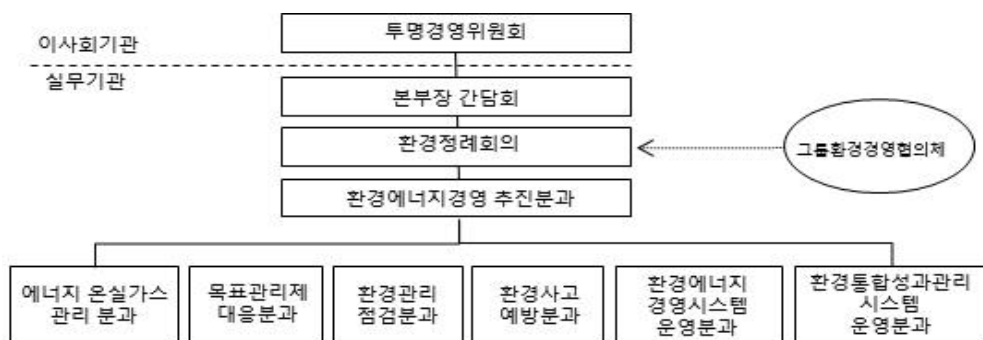
자료 :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국내 건설기업 역시 사례분석에서 GS건설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7.1%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다수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장기 목표를 설정한 기업도 있는데, 현대건설은 ‘2050년까지 국내외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52.5% 감축(2015년 대비)’을 장기목표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목표는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범위(scope 1, 2) 이외에도 협력업체 장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 3)를 포함하여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Skanska는 204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수준을 달성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② 환경경영 추진 조직체계

국내 건설기업이 환경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사 단위에 환경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 단위의 환경경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GS건설의 녹색환경팀 등과 같이 대부분의 국내 대형 건설기업은 본사 단위에 환경경영 전담부서 혹은 환경경영과 안전 및 보건경영을 함께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롯데건설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안전환경경영분과와 같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환경 관련 이슈를 논의, 결정할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이사회 산하 환경정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6대 추진 분과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환경경영 관련 주요 이슈를 전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림 VI-5> 현대건설의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조직체계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환경경영 주요 활동

환경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경영 목표와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표준인 ISO 14001 규격을 적용해 이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 건설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환경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롯데건설의 경우 친환경 설계를 위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건축 전문가(LEED AP)를 통해 설계, 구조, 기능, 자재 등의 측면에서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검토하고, 친환경 구매와 관련해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2009년 체결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 공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 환경점검 강화 및 사이버 모니터링, 환경관리 캠페인 및 교육, 현장별 온실가스를 비롯한 환경영향 관리 등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환경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 구매, 운송, 시공, 철거 및 운영에 이르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환경에너지경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매년 전사 및 현장별 환경에너지 방침 및 목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그림 VI-6> 현대건설의 친환경 건설 프로세스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국내 대형 건설기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에 연동된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내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인 H-PMS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한편, 환경관리시스템과 관련해 Skanska는 자사의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을 포함한 환경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고,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인 녹색전략지표(GSI : Green Strategic Indicators)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별로 성과를 측정, 관리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로 녹색전략지표(GSI : Green Strategic Indicators)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 이행하고 있다.

(2) 보건 및 안전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 보건 및 안전경영 추진 체계

① 목표 및 방침 설정

보건 및 안전경영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분야 중 하나인데, 국내 건설기업들은 대다수 기업들이 ‘중대재해 ZERO(추락·장비 사고 근절)’ 달성을 위해 선진 보건 및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Skanska는 현장 진도 달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강력한 안전정책선언문¹¹⁾을 채택하고 현장관리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기업도 이러한 강력한 안전제일주의 방침의 채택과 적용이 필요하다.

② 보건 및 안전경영 추진 조직체계

국내 건설기업은 보건 및 안전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사 단위와 사업본부별로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GS건설의 경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주관하고 각 사업 본부장 및 주요 보직자가 참석하는 전사 위원회인 QHSE 운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롯데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부문을 운영하며 전사 안전보건 활동을 총괄

11) Skanska는 2016년 2가지 안전정책선언문을 작성하였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결코 일하지 않는다(We work safely, or not at all)”, 그리고 “안전 위협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멈춘다(We never walk by if we notice unsafe actions)”이다.

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안전환경경영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사업본부별 전담부서도 필요한데, 현대건설의 사업본부별 안전팀을 비롯해 다수 건설기업들이 사업본부별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2017년부터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술안전 업무의 컨트롤 타워인 기술안전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본사 직영 안전지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고, 매월 간부사원(책임급) 이상 임직원으로 구성된 ‘고위험 안전 공유회의’를 통해, 고위험 작업의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Skanska의 경우는 본사 단위의 지원뿐 아니라 사업부문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현장의 보건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표 VI-7> Skanska의 보건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조직		역할 및 책임
위계 조직	그룹 리더십팀(GLT)	Skansk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궁극적 책임
	국가 보건 및 안전 리더십팀(National Safety Leadership)	각 국가별 사업부의 보건 및 안전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업부 기반의 다기능 팀
	사업부 관리팀	- 사업부 내 여러 성과관리와 동시에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 구체적으로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자원과 조직 확보, 보건 및 안전 절차 관리 및 보고의 책임
전문가 네트워크	안전성과 네트워크(SPN)	- 모든 사업부의 보건 및 안전 전문가 그룹으로 GLT의 전문가 자문 역할을 수행 - 매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일상적으로 지역 클러스터 그룹, 주제별 그룹, 학습 그룹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
	글로벌 안전 리더십팀(Global Safety Leadership Team)	Skanska 전역의 Safety Peer Review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한 사업부에서 다른 사업부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

2) 보건 및 안전경영 주요 관리시스템 및 활동

① 보건 및 안전경영 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보건 및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목표와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사업

장의 작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 개선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 매뉴얼은 국제표준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표준인 ISO 45001 등을 참조해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작성하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뉴얼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자 교육 및 개인보호 장비, 전기안전, 화재예방, 고소작업/리프팅/굴착, 차량/기기/물품관리, 임시구조물, 사고관리절차, 위험평가 및 감사 등이다.

Skanska는 보건 및 안전경영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회사의 모든 사업부가 2020년에 국제표준기구의 산업안전보건 표준인 ISO 45001의 인증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Skanska는 ISO 45001 등을 참조하여 자체적인 보건 및 안전 표준을 확립하고 있는데, 동 표준은 16개 모듈로 구분되며,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편, ISO45001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다수가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위험등급별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위험평가시스템을 다수 대형 건설기업들이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평가 결과를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마일리지 사례처럼 개인 단위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연계하고 있다.

② 보건 및 안전관리 활동

이상의 보건 및 안전경영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활동, 보건 및 안전주간 활동, 현장별 보건 및 안전경영 성과 모니터링 및 보상과 연계, 보건 및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하고 있고, Skanska는 2005년부터 매년 보건안전주간을 지정해 전 건설 현장 및 사무실에서 보건 및 안전 관련 교육, 워크숍, 전문가 세미나, 회의 등 수천 가지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anska는 동 활동들을 자사 직원뿐 아니라 하청업체, 설계업체, 발주자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Skanska는 보건 및 안전 지표의 모니터링을 위해 2008년 이후 ESSV(Executive Site Safety Visits) 제도를 도입했는데, 2019년에 총 4,034회의 ESSV가 이뤄졌다. GS건설, 롯데건설 등은 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결과를 신호등과 같이 ‘녹색, 노랑, 적색’의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전신호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GS건설은 7,270m² 부지에 2개의 강의장과 6곳의 체험시설을 갖춘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며 교육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3) 상생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1) 상생경영 추진 체계

① 상생경영 주제(topics)와 목표 설정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적 분야 중 하나이며, 상생경영의 목표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동반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주제(topics)는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협력회사 역량 및 지속가능성 지원 등이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협력회사와의 소통 강화, 협력회사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상생경영 추진 조직체계

상생경영 역시 업무를 전담할 부서 혹은 전담자가 필요한데,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은 주로 외주·공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주·공무부서가 과거와 같이 협력사 선정 및 계약 등의 업무 외에 상생경영과 관련된 하도급법 준수, 공정거래협약, 동반성장지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의 명칭도 상생협력, 동반성장 부서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상생경영 관련 방침과 의사결정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도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동반성장분과를 운영하는 롯데건설의 사례와 같이 전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상생경영의 주요 활동

① 협력회사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협력회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의 경우 경영 및 기술지원, 교육지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GS건설의 경우 협력회사와 상생 협력 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경영 및 기술지원, 금융지원, 교육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4년 7월 협력사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도입한 포스코건설과 같이 상생경영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의 동기를 제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VI-7> GS건설의 상생경영 추진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자료 : GS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②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력회사가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도록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구내 건설사 최초로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협력사와 ‘지속가능경영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유도를 통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 왔다. GS건설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인 친환경활동, 보건 및 안전, 제품책임, 정도경영 등 9대 요소를 중심으로 협력회사에서 추구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협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 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해 협력회사와의 협력관계 지속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표 VI-8> GS건설의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분야	9대 요소	세부 활동
경제	1. 제품책임	▪ 품질교육 및 기술지원 ▪ 정기적 내·외부 감사 실시
	2. 정도경영	▪ 청탁·뇌물·금품 항응 수수 및 접대금지 ▪ 반독점 준수 ▪ 내부고발제도 구축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이해관계자 정보보호 및 기업 기밀정보보호
	3. 공급망관리	▪ 친환경 자재 선정 및 공급 ▪ 정기적 공급망 감사 및 평가 ▪ 공급망 내 계약상 무리한 요구금지
환경	4. 환경정책	▪ 협력회사 환경기준 제시 ▪ 공사 수행시 환경평가 실시
	5. 친환경 활동	▪ 설계, 시공 등 전 단계 친환경 경영 실천
	6.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
사회	7. 노동관행	▪ 최저임금 준수 ▪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 (채용, 승진, 해고, 성과보상 등)
	8. 인권보호	▪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차별금지 ▪ 국내외 기준에 기준에 따른 노동인권 원칙 준수 ▪ 강제·아동노동 금지
	9. 안전·보건	▪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법률 준수 ▪ 현장별 안전 관리 ▪ 안전교육 통한 안전의식 제고

(4) 윤리경영 분야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윤리경영의 경우 중견, 중소 건설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수 건설기업들이 이미 추진 중이 분야이다. 다만, 윤리현장과 규범 외에 세부적 행동지침과 내부 고발자 제도를 갖추고, 실제 평가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과 교육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윤리경영이 형식적인 윤리현장 제정에 머무르거나 1회성 이벤트로 끝날 경우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충분한 윤리경영 실천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건설기업이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리더십하에 우선 윤리현장/윤리규범/행동지침 등의 윤리경영 가치·규정 체계, 윤리경영 전담자 혹은 전담부서 등의 윤리경영 인프라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윤리경영 가치 체계 및 제규정 개발

윤리경영을 도입한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일반적인 기업들의 윤리경영 가치 및 규정 체계는 크게 윤리헌장, 윤리규범(또는 강령), 행동지침(또는 실천지침) 등의 형태를 띤다.

① 윤리헌장 및 윤리규범

윤리헌장은 윤리경영과 관련한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객, 직원, 주주, 지역사회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별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형태를 지닌다. 윤리규범은 윤리헌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제 윤리경영 도입 및 추진을 위해서 보다 중요하다. 윤리규범은 윤리강령, 윤리규정(규칙) 등으로도 불리며, 기본책무, 고객에 대한 책임,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임직원의 행동윤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윤리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행동지침(실천지침)

윤리경영 행동지침은 윤리규범을 보다 구체화하여 임직원들의 세부 행동지침을 규정화한 것이다. 즉 윤리규범의 원칙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나열한 것으로 접대, 향응, 금품수수 등과 관련해 세부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업의 경우 행동지침 중 금품·선물·향응 제공 및 수수와 관련된 행동지침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가피하게 수수하게 된 금품·선물·향응 등에 대한 자율신고제도와 반송이 불가능한 선물, 화폐 등에 대한 처리절차 지침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윤리경영 전담부서·전담자 배치

윤리경영의 성공적 도입 및 추진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를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리경영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윤리경영 가치 체계 및 제 규정 개발과 보완, 교육활동 기획 및 이행, 내부자 고발 운영제도 구축 및 운영, 비윤리 행위 감사 등이다.

<표 VI-9> 윤리경영 전담부서 및 전담자 정의와 배치 요건

구분	내용
전담부서 정의	감사·인사·총무 담당부서와는 별도로 윤리경영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를 의미함.
전담부서 설치시 주의사항	CEO나 윤리경영 전담부서 부서장은 윤리 전담부서 업무가 여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업무분장 및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전담자 정의	감사·인사·총무 담당자와는 별도로 소속기업의 윤리경영 기본 추진계획과 방향 등을 기초적으로 입안하고 운영하는 윤리경영 업무 전담 임직원을 의미함.
전담자 경력요건	대체로 과장급 이상, 법·상경 계통 분야를 전공했거나 마인드가 형성돼 있는 직원이 선정됨. 전담자는 업무 성격상 적어도 3년 이상 소속기업의 윤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연속성 보장과 전문화를 기할 수 있어 윤리경영 추진에 효과적임.

3) 윤리경영 운영시스템

윤리경영 가치 및 규정개발, 조직체계 구성 이후에는 윤리경영이 실제 운영되기 위한 금품·선물 자율신고제도, 내부감사 및 고발제도, 교육 활동, 상담실 등의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금품·선물 자율신고제도는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선물 등에 대한 자율신고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제도이다. 내부감사 및 고발제도는 임직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모니터링,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로서 윤리경영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직원의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활동, 상담실 등의 운영도 중요하다.

한편,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평가/보상제도,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협력회사로의 윤리경영 확산 노력도 필요하다. 윤리경영 평가/보상제도는 부서 단위 및 개인 단위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평가해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하다.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 조직체계는 윤리경영 전담자 혹은 전담 부서를 넘어서 사업부 혹은 부서 단위별로 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여 윤리경영 교육, 질의응답, 이슈 진단, 과제발굴 등에 활용함으로써 회사 전체에 윤리경영 확산을 촉진한다. 협력회사로의 윤리경영 확산은 자사의 윤리경영 제도와 시스템을 협력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종합 네트워크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협력회사로 윤리경영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윤리경영 실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5) 사회공헌활동 분야 가이드라인

1) 사회공헌활동 추진 조직체계

건설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배치와 사내 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공헌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는 사내 사회공헌활동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봉사단 조직, 대외 협력기관과 협력, 사회공헌백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배치와 더불어 사회공헌 사내 추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고,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사회공헌위원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 사회공헌활동 전개뿐 아니라 건설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도 설치가 필요하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2) 사회공헌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이행

사회공헌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가 배치된 이후에는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터 플랜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사회공헌 비전 및 방침, 사회공헌활동 핵심 분야와 수혜자, 핵심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예산편성, 매칭 그랜트 등 사회공헌 지원제도 기획, 사내봉사단 조직 및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 계획 등이다.

① 사회공헌 비전 및 방침의 명문화

사회공헌활동 비전 및 방침은 기업의 경영이념과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방침과 연계해 명문화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 핵심 분야와 수혜자,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

램 등과 연계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공헌 분야 및 수혜자 선정과 핵심 프로그램 개발

과거 기업들은 자사의 업 특성이나 경영이념,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방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부금 지출 위주의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건설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과 수혜자 측면 모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핵심 분야와 수혜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특성과 지역사회 등 자사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되, 투자 대비 효과 극대화의 원칙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핵심 분야와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사의 주력 사업과 고객, 프로젝트 현장의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연관성이 높은 사회공헌활동과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 기업이 아직 수행하지 않고 있고, 차별적인 사회공헌 분야와 수혜대상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공헌 핵심 프로그램 역시 핵심 분야 및 수혜대상 선정 원칙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타 건설기업의 지원이 부족한 수혜대상을 찾아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해비타트 운동, 복지 및 문화시설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공사, 공사 현장 인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내 봉사단 활동 등이 건설기업으로서의 장점을 살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③ 사내 봉사단 구성 및 임직원 사회공헌 지원제도 운영

건설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본격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내 봉사단 등 추진 조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경우 사내 봉사단과 더불어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비타트 운동, 독거노인 쪽방촌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내 봉사단 구성과 함께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기획과 운영도 필요하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외에 직원의 기부금에 회사의 기부금을 매칭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 자원봉사 근무시간 인정제도, 포상제도 등의 제도가 있으며, 자사의 상황과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을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발하면 된다. 이

러한 임직원 사회공헌 지원제도는 직원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 몰입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효과와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제고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사회공헌활동 평가 및 피드백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이 이상에서 기획한 사회공헌 마스터 플랜을 이행한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차기 년도 사회공헌 마스터 플랜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공헌활동별 투입 비용에 대해 비교 평가하고, 동시에 활동별 수혜대상의 수혜 효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회사 임직원의 봉사 및 기부 참여율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내 봉사단이나 외부 기관 파트너십을 활용한 활동별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사의 임직원 사회공헌 지원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타사의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차기 년도 제도 운영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측정 및 개선 체계 마련

(1)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KPIs) 도출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체계가 필요하다. 성과 측정 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경영 목표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의 3대 목표에 연계된 구체적인 정량 목표와 달성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성과평가지표(KPIs)도 제시하고 있다.

<표 VI-10> 현대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KPIs)

추진 영역	장기 지속가능경영 목표	지속가능경영 KPI
 지속가능 제품 비율 확대	2022년까지 지속가능 제품 매출비율을 총 매출액의 45% 이상으로 확대	총 지속가능 제품 비율(%) 토목부문 지속가능 제품 비율(%) 건축/주택부문 지속가능 제품 비율(%) 플랜트부문 지속가능 제품 비율(%)
 미래 핵심기술 역량 확보	2022년까지 미래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연간 200억 원 이상 투자 강화	연구개발 투자비(억 원) R&D 인력 운영 투자액(억 원) 기술개발비(억 원) 연구개발 자산 취득(억 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22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년도 2015년 대비 연간 2.1% 지속 감축	총 온실가스 절감량(CO ₂ -e) 에너지 효율화에 의한 절감량(CO ₂ -e)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의한 절감량(CO ₂ -e) 친환경 차량 운용에 의한 절감량 (CO ₂ -e)

자료 :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 핵심성과지표(KPIs)의 실적치 분석 및 목표 설정

다음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별로 최근 실적치에 대한 분석과 단기 및 중기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에 기초하 되 그동안의 실적치 분석을 기초로 향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경영방식의 개선 전략과 연계해 합리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성과 측정을 기초로 한 피드백, 즉 개선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설정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기후변화협약상의 탄소배출 목표와 연계성을 감안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 과정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성과지표의 과거 3년 동안의 실적치와 보고서 작성 기간의 목표치와 실적 추정치, 그리고 향후 3년 후의 중기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롯데건설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7대 분야별로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목표는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와 연계성을 고려해 설정하였다.

(3) 공유가치 창출(CSV) 모델 활용

한편, 지속가능경영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은 2011년 Porter와 Kramer가 제시한 모델로서 사회적 요구 수렴과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말한다.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의 경우 공유가치 창출(CSV) 모델을 적용해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경우도 2014년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을 정립하고 이후 동 모델에 입각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5년에 전략·환경·기술·인재·상생경영의 5대 가치창출 영역을 제시하고, 이후 5대 가치창출 영역별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VI-11> 현대건설의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모델

5대 가치창출 영역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
전략경영	- 글로벌 가치 창출 - 측정 지표 : 매출액	- 지속가능 미래 구현 - 측정 지표 : 부채비율
환경경영	- 환경 효율성 극대화 - 측정 지표 : 용수사용량	- 환경영향 최소화 - 측정 지표 : 환경보호투자액
기술경영	- 차별적 기술역량 확보 - 측정 지표 : 연구개발 인력 수	- 고객만족 추구 - 측정 지표 : 고객만족도
인재경영	- 혁신인재 육성 - 측정 지표 : 임직원 인당 매출액	- 임직원 가치 실현 - 측정 지표 : 임직원 만족도
상생경영	- 가치사슬 역량 강화 - 측정 지표 : 협력사 만족도	- 사회적 동반성장 달성 - 측정 지표 : 지역사회 투자액

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

이상의 1~5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중견 건설기업을 포함한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투입 가능한 인력,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의 건설기업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하의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중견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는 기업 연차보고서나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방침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포함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면 될 것이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의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에 기초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대부분의 국내 건설기업은 GRI Standards를 참조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구성은 보고서 프로파일, 기업 및 주요 사업 소개,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전략 체계, 핵심 분야 및 분야별 이슈 선정, 핵심 분야별 전략 체계 및 세부 경영 방식과 활동, 지속가능경영 성과, 제3자 기관의 보고서 검증 결과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보고서 프로파일과 기업 및 주요 사업 소개는 GRI Standards의 GRI 102 일반적 공시 내용(General Disclosures)에 수록된 표준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고,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 및 주요 이슈 선정은 GRI 103 경영접근 방식(Management Approach)의 절차와 표준을 참조하면 된다. 지속가능경영 핵심 분야별 전략 체계 및 세부 경영방식과 활동은 GRI 200~400 주제별 표준(Topic-specific Standards)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와 핵심 분야 선정에서 선정된 핵심 분야의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다음으로 제3자 기관에 의한 보고서 검증 결과는 제3자 기관에 보고서 검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록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검증 결과인 검증서, 검증에 적용된 검증 원칙과 주요 검증결과를 요약해 수록한다.

제3자 검증 기관의 경우 현재 국내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전문기관이 다수 존재하므로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국내 건설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제3자 기관을 각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제3자 기관이 보고서 검증에 적용하는 검증 원칙은 지속가능경영 검증의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는 ISAE 3000, AA1000 등의 공신력 있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포괄성(Inclusivity), 중대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을 기본 요소로 두고 검증한다. 구체적 검증 범위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정책 및 관리시스템 내용이 적절한지, 지속가능경영 이슈 선정/관리/보고 과정에서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원칙의 준수 여부, 비재무 정보가 포괄적이고 오류가 없는지, 재무 관련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향후 국내 건설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경영의 표준적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 Global Compact의 지속가능경영 6단계 모델과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실천절차 모델이 있다. 이 두 모델과 함께 GRI Standards,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6단계 모델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필요성과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규범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건설기업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이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생산과정 자체가 자연환경 파괴적이고 부패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 종합 네트워크 산업, 옥외생산 특성으로 인해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 공정거래, 안전경영 등을 포괄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은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해 고객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결국 해당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최초 발간은 선도적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편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 이후 보고서 발간 기업이 증가했다.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1990년 중반 이후 본격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고서 발간 수가 급증했다. 해외 주요 건설기업들 역시 2000년대 들어 보고서 발간이 증가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2008~2010년 사이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해 2012년 이후 최근까지 10개사 내외 건설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50위 이하 건설기업의 경우는 일부 기업이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의 범주에 포함될 일부 경영방침을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할 뿐 통합적 지속가능경영 추진은 제한적이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GRI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였고, 제3자 기관의 객관적 검증도 획득하였다. 이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에 비해 양호한 부분이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건설기업과 국내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내 일반 기업과 건설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도 분석하였다. 해외 선진 건설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했고, 지속가능경영 최고 선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Skanska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기업 중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 선도적인 기업 중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분석 결과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을 기초로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규범의 경우 UNGC 6단계 모델, ISO 26000 사회적 책임 실천 절차, GRI 표준(Standards) 등을 참조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6단계 모델인데, 목표 설정 및 전략 체계 구축, 추진 조직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 분야 및 주제 선정,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성과 측정 및 개선체계 마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검증 등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중견 건설기업을 포함한 중소 건설기업은 투입 가능한 인력, 예산 등을 감안할 때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의 건설기업 지속가능경영 추진 실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하의 건설기업들은 대부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30위 이하 건설기업 중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건설기업들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침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50위 이하 다수의 건설기업들은 통합적 관점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보다는 윤리경영, 안전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에 포함된 주요 분야를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중견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는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효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핵심 프로그램 위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을 우선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담부

서 대신 지속가능경영 전담자 혹은 타 업무와 겸임해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면 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분야 역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속가능경영의 다양한 분야 중 건설기업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 윤리 및 준법, 공정거래 등 3~4가지 정도만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별 추진 체계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갖추기보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과 절차를 규정하고, 담당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투입 예산,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 연차보고서나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주요 방침과 활동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면 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제정되었으나, 건설기업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건설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촉진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규남, “저탄소 도시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리포트, 2017.10.
- 김재욱,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2.
- 김혜숙, “지속가능경영이 공공기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7.
- 노한균, “건설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Korea Business Review, 17(1), 41-64, 2013.2.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13.3.
- 롯데건설, “2019 롯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8.
- 박수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고찰 :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산업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6.
- 박정호, 안윤기. “건설사의 지속가능경영”.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11), 333-340, 2011.11.
- 삼정 KPMG, “사례를 통해 본 건설기업의 리질리언스”, 이슈모니터 제63호, 2016.11.
- 신동엽, “윤리적 경영과 전략적 제휴의 성과,” 연세경영연구, 제36권, 제2호, 1999.
- 윤진수,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리뷰, 2009.9.
- 이명식,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 B-impact 모델 개발_건설분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융합표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7.
- 이흥일, “건설업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8.
- 이흥일 외,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9.
- 정상규, “순환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 리포트, 2020.1.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KBCSD R 04-01, 2004.3.24.

추영기,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기초연구”, 2019.3.20.

한상완 외, “지속가능경영의 도입 프레임워크”, 현대경제연구원, 2004.7.

황부영, “한국건설기업의 환경경영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2.

현대건설, “2019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7.

CSV Platform, “GRI Standards 소개”, 2016.11.

GS건설, “How we create value: GS건설 통합보고서 2018”, 2019.6.

해외문헌

Bob Willard and Hunter Lovins, “The Next Sustainability Wave”, New Society Publishers, 2005.4.

Carroll, A. B.,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 Business Horizons, Jul. Aug., 1991.

M.E. Porte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BR, January - February 2011.

Petrovic Lazarevic, S.,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Australian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Vol. 26, No. 2, pp.93-101, 2009.

Zhen-Yu Zhao, Xiao-Jing Zhao, Kathryn Davidson, Jian Zuo,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dicator system for construction enterpris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s 29 - 30, pp.277-289, 2012.7.

관련사이트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www.ksa.or.kr

GRI 홈페이지, www.gri.com

SKANSKA 홈페이지, www.skanska.com

UNGC 홈페이지, www.unglobalcompact.org

Abstract

A Study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actual condition of promot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nd to present guidelines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o successfully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The first publication of a sustainability report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as a bit late compared to global leading companies. Between 2008 and 2010, larg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began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and in 2012, 8 companies and in 2014, 10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In the case of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publ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was insufficient, but there were a number of companies reporting on sustainable management policies and contents through internet homepages. Al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that have recently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are applying global standards including the GRI guidelines. Third-party verification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was also obtained by most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ccording to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DJSI) evaluation, the difference in the score between global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ed in the World Index and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ed in the DJSI Korea Index was about 3 points. This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difference(7 points) in scores between global companies included in the DJSI World index and all Korean companies included in the DJSI Korea index. In addition, as a result of evaluation by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for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the proportion of companies with a good ESG level of B+ grade or higher.

In this study, the sustainable management guidelines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ere presented based on global standards and guidelines related to sustainable management, and best practices of leading construction companies. Specifically, with reference to the UNGC 6-step model,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 procedure, GRI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of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the guidelines for promot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ere presented as a 6-step model.

○ 저자 소개

이홍일 (hilee@cerik.re.kr)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근무

Author Andersen Korea 부장컨설턴트 근무

PwC Consulting Korea 수석컨설턴트 근무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